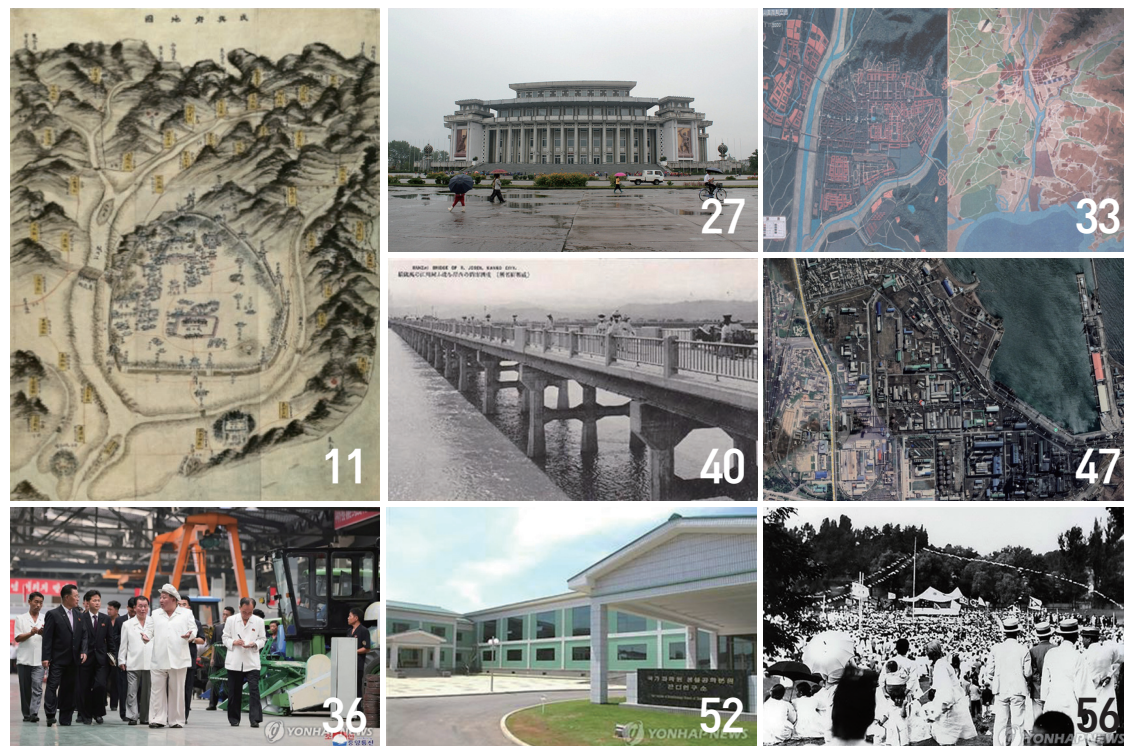



2024 겨울 통권 제7호

이번호 주제 : **함경남도 함흥시(咸興市)**



- 02 권두언** - 교회설립, 다음 세대 교육 및 의료 선교의 모범으로서의 함흥지역 선교_ 김성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 11** 북한의 대표 중화학공업도시 함흥의 역사와 공간구조
- 27** 1960-1980년대 북한의 함흥시 공간개발전략_ 박희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 33** 함흥시 건축물의 공간구조 형성과 산업시설_ 김병욱 (NK개발연구소 소장/박사)
- 40** 사회주의적 화학공업도시 함흥-흥남의 기원, 형성, 발전_ 위영금 (정치학 박사)
- 47** 북한 화학산업 대표기업, '흥남비료연합기업소'_ 김미연 (KDB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 52** 함흥-흥남은 어떻게 마약 생산지가 되었는가? _ 함흥출신 탈북민
- 56** 함흥과 그 주변의 교회를 찾아서



Cover Story

2012년에 촬영된 흥남 공업단지의 비료공장.
 흥남은 1920년대 후반 일본질소비료에 의해 공단이 조성된 이래로 한반도 화학공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 계간 북한지역연구 ◆ 등록일 : 2023년 7월 13일
 ◆ 등록번호 : 중랑, 바00020 ◆ ISSN 3022-0300
 ◆ 발행년월일 : 2024년 12월 30일

◆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E-mail : info@opendoors.or.kr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후원계좌(북한선교) 국민은행(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 75** 함경남도 함흥지역의 성결교회이야기_ 이한복 (서울신학대학교 겸임교수)
- 79** 그리스도의교회 중심지 함경남도 북청과 동석기_ 전인수 (강서대학교 교수 / 교회사)
- 84** 함흥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질소비료공장」, 「과도기」
- 86** 함흥의 이모저모
- 88** 함흥의 대표음식_ 함흥냉면, 가자미식해
- 90** 함흥의 사람 사는 이야기
- 99** 언론에 비친 함흥의 모습들
- 103** 함흥의 각종 개발 소식

교회설립, 다음 세대 교육 및 의료 선교의 모범으로서의 함흥지역 선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김성태** 교수

19세기 말에 이루어진 함흥선교의 시작과 발전 과정 그리고 함흥과 주변 지역 교회의 성장 모습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선교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흥과 주변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북한이 공산화되고 기독교 말살 정책이 혹독하게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비록 지상에 교회의 모습은 없지만 남아있는 교회의 뿌리로서 그루터기 신자들의 마음속에 참된 교회, 신앙고백과 성도의 삶이 함께 병행되는 교회공동체가 그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든지 함흥과 주변 지역에 그루터기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 사례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글을 쓰려고 합니다. 함흥지역의 선교는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캐나다 장로교의 한국선교는 자비량 선교사로 1893년 한국에 온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맥켄지 선교사와 캐나다 장로교의 선교가 한반도에서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었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적 교훈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1. 1893년 한국에 와서 황해도 소래에서 일 년 육 개월 동안 사역하다가 질병으로 순직한 윌리엄 맥켄지(1861-1895) 선교사의 삶과 그분의 사역 정신이 어떻게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에게 선교 유산이 되어서 한국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의 소천 이후에 서경조를 필두로 한 소래 교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부는 1897년에 최초의 다섯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거기에 던컨 맥래(마구레, 1869-1949) 선교사가 있습니다. 맥래 선교사는 함흥과 주변 지역을 개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는 원래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도 이런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의 정책으로 인해 공식적인 파송을 받지 못하고, 자비량 선교사로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소래에서 토착인과 똑같은 음식과 거주 환경에서 사역하다가 급속하게 건강을 잃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소천하기 직전에 침상에서 그의 임종을 지켜보던 서경조에게 요한복음 12장 24-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 속에 이루어진 예언적 말씀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약혼녀이었던 루이스 맥컬리(이 루이시, 1864-1945)는 1900년에 한국에 와서 1904년에 맥켄지의 일대기를 “한 알의 밀(A corn of Wheat)”이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맥켄지의 헌신적이고, 희생적 죽음을 통해 선교의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캐나다 장로교회가 한반도의 동북 지역뿐 아니라 중국 동북 만주 지역에 이르기까지 약 18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원산, 성진, 함흥과 주변 지역 멀리 간도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교회와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을 세우고, 이들 주변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지역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전무하고, 미신이 성행하며 산악 오지가 많은 거친 개척 지역에서 사역하였습니다. 맥켄지 선교사의 신앙 정신과 불굴의 선교 의지와 희생정신을 가지고, 함경도, 간도와 시베리아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인도하심 가운데 1898년 미국 북 장로교 선교부는 선교 지역 분할 정책을 쫓아서 자신들의 담당 지역이었던 원산, 성진, 함흥과 관북 지역 선교지역을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에 이관하고, 북 장로교 선교부에 소속된 선교사들은 평양이나 관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함흥지역은 1894년 원산에 선교기지를 세웠던 스왈론(소알론) 선교사가 조선인 전도자로 세웠던 차을경, 모학수, 고찬익, 전계은 등과 함께 함흥을 자주 왕래하면서 전도를 하였고, 1896년에는 이기풍 전도자와 함께 가서 함흥을 교회를 세웠습니다.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온 던컨 맥래(마구레)는 1899년 원산에 머무르면서 그의 어학 선생인 양씨와 서경조 등을 인솔하고, 함흥에 가서 3주 동안 머무르면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맥래 선교사는 1901년 원산에 온 케이트 맥밀란(맹미란, 1868-1922) 여의사 선교사와 함께 조선

인 전도자로 차을경, 모학수 등을 대동하고, 함흥과 주변 지역을 계속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성경공부반을 개설하고, 신앙 물품 등을 배부하면서 함흥에 선교 기지를 세울 것을 계획했습니다. 원산은 푸트(부두일), 성진은 그리어슨(구레선) 그리고 함흥은 맥래 선교사가 관할하는 선교기지를 1904년 세우게 됩니다. 맥래 선교사는 1900년에 에디스 서더랜드와 결혼했는데 그의 부인인 에디스는 푸트 부인과 함께 1901년부터 함흥에서 소녀 성경공부반을 개설하고, 1903년에는 영생 일반학교로 발전시키고, 1907년에는 남녀가 공부하는 영생 학교로 공식인가를 받았습니다. 1910년에는 중학교로 인가를 받고, 영(영재형) 선교사가 교장으로 취임합니다. 1931년에는 일제의 강요로 영생 고등 보통학교로 정식 등록된 학교로 비준을 받았지만, 일제의 간섭에 선교부와 의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영생 학교는 함경도 관북 지역의 최고 명문 학교로 발전이 되었지만, 일제의 간섭과 핍박으로 1943년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학교는 일본학교 이름으로 개명이 됩니다. 영생 학교는 캐나다 선교부가 세웠지만 1922년에 함흥의 지역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함흥에 맥켄지 선교사의 약혼녀이었던 루이스 맥컬리는 1910년 함흥에 그녀의 어머니의 이름을 딴 마르다 윌슨 여자 신학교를 세우고, 과부와 가난하고 불우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와 일반교육, 교회 예배를 돕기 위한 피아노 교육까지 한국인 동역자인 캐나다 유학생 출신의 피아노 전공을 한 조은경 교수, 한 리디아 등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영생 학교와 연관하여 발전을 시켰고, 이것은 성진, 원산으로 옮겨 가면서 1944년 일제에 의해 폐교되기까지 수많은 조선인 교회 여성 사역자와 여성 교회 지도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맥컬리 선교사는 1909년에 함흥 여전도회를 조직하고, 주변 지역에 부속회를 조직하여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의 모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1936년에 자신이 후원하여 세운 김마리아 교수가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의 회장이 되었을 때 만주 지역에 마르다 윌슨 신학교 출신의 유안심을 여전도회 연합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필자는 1990년대 말에 동북 만주의 한 지역에서 당시 80세가 넘었던 북한의 모 지역 여전도회에서 파송하였던 조사 출신의 여성 선교사 출신의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10대 말에 여성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문화대혁명을 거쳐서 살아남았는데 모 지역 조선족 교회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안심 선교사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북한의 많은 지역에 그루터기 신자들과 긴밀한 교류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맥컬리 선교사의 뿌려 놓은 씨앗이 보이지 않지만, 누룩처럼 확장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역사입니다.

맥래 선교사는 일본인의 부당한 간섭과 핍박 속에서 조선인들을 보호하면서 영생 학교 출신들이 주가 된 1919년 3월 3일 함흥 독립 만세 운동을 배후에서 적극 지원하고, 이 일로 인해 체포되고 수감된 조선인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조선인 전도자, 조사와 토착교회 지도력을 통해 함흥과 주변 지역에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고, 그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신창리 교회입니다. 신창리 교회는 원래 무당의 제사 터로 사용하였던 신창리 망덕 부지를 맥래 선교사가 구입해서 1,000명 수용이 가능한 ㄱ자 형태의 한옥 예배당을 건축하고, 여기서 1924년 조선예수교장로회 13차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맥래 선교사는 케이트 맥밀란(1868-1922, 맹미란) 의사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1903년에 함흥에 진료소를 개설하고, 1913년에는 40병상 규모의 한옥과 양옥이 혼용된 3층 규모의 제혜 병원을 세웠습니다.

맥밀란 의사 선교사는 볼티모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의 코넬 의과대학원에서 3년을 수련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 의료 선교사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선교지역의 가난하고, 불우한 원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자신의 재능과 의사로서의 모든 기술을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밀알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한 신부 교회의 일원으로 평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녀는 성진의 그리어슨 선교사를 도와서 제동 병원을 설립하였고, 함흥에 세워진 제혜 병원은 서양 의사 선교사, 간호사 선교사와 조선인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 병원이었고, 일본인이 세운 조선의 어떤 병원보다도 시설과 실력에 있어서 탁월한 북한 최고의 병원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1922년 영생 학교 여학생 기숙사에서 발진티푸스가 발병되어서 7명의 학생을 돌보다가 본인도 감염이 되어서 54세의 이른 나이에 소천하였습니다. 실로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이었습니다. 선교의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제혜 병원의 의료선교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1921년에 플로렌스 머레이 여성 의사 선교사를 함흥으로 오게 하였고, 머레이 선교사가 20년 이상 충성스럽게 희생적으로 맥밀란 선교사의 뒤를 이었습니다. 제혜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로 발전이 된 것이 아니라 전문 전도인(한 도르가, 강 도르가, 방우섭)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환자들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함흥과 주변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함흥지역의 의료 선교는 자랑스러운 선교사역의 모범을 나타냅니다. 의료 선교사 자신이 선교지역에 필요한 최고의 의학 지식과 의료 기술을 갖추었고, 무엇보다도 선교지역 원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품었고, 현지 교회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원주민 의료 인적 자원들을 개발하는 데 힘을 다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이 1930년대 함흥을 화학공업 기지로 발전을 시켰고, 의료산업

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일본인들의 함흥 개발은 우선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함흥은 거의 폐허가 되었으나 옛 동독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1955년부터 동독 정부 내의 “조선원조본부(Baustab Korea)”가 조직되어서 약 144명의 전문 기술자와 복구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함흥에 상주하면서 함흥을 구동독 지역을 모델로 한 새로운 도시로 복구하였습니다. 구소련도 전쟁으로 파괴된 흥남비료연합기업소가 다시 세워지는 데 결정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함흥은 북한의 관북 지역 최대 도시로 발전하면서 2005년도에는 흥남시가 함흥시로 편입이 되면서 성천강 구역, 동흥산 구역, 회상 구역, 사포 구역, 흥덕 구역, 해안 구역, 흥남 구역 등 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 광역 도시가 되었습니다.

90년도 초에 유럽의 한 지역에서 만난 연로한 동독인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특정 분야의 기술자로서 북한에 거의 10년을 주재하였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자로서 북한에 머무르면서 많은 숨어있는 그루터기 신자들을 만났고, 비밀스러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으며 북한 그루터기 교회와 교인들의 영적 생명력을 증언하였습니다. 함흥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2. 함흥과 주변 지역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선교사뿐 아니라 현지 조선인 전도자와 토착 지역교회 지도자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과 숭선수범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함흥지역 교회의 이런 신앙의 유산은 공산화가 되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이 이루어지는 오늘날에도 지하에 숨어있는 그루터기 신자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왈론 선교사와 함께 사역하였던 차을경, 모학수 전도자의 함흥지역에서의 조직적인 전도 활동은 맥래 선교사가 함흥에 정착하기 전에 이미 다섯 교회와 교인 100여 명을 확보하게 하였습니다. 맥래 선교사가 함흥에 선교 대지를 구매하는데 조사인 신창희의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한국 내의 지부로서 영국 성서 공회 파견의 원산 출신의 전도 부인인 한 루디아는 함흥과 주변 지역을 순회 전도하면서 거의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흥원군에 살았던 1929년 일제에 의해 조직된 지역 단위로서 도 협의회 위원이며 면장이었던 김승명 장로는 그의 생애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될 뿐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이며 후원자가 된 고린도지역 유지이며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원하였던 그리스도의 생애와 유사합니다. 김

승명 장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신앙고백하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세상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던 삶을 버리고, 오직 교회를 섬기며, 자기 재산을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송덕비를 세우려 할 때 이를 거부하고, 자기 조카와 아들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의 조카인 김형숙 목사는 1926년부터 46년까지 함흥의 대표적 교회인 남부교회를 시무하였고, 그의 셋째 아들인 김형도는 남한에 내려와서 이승만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서 1954년 최초의 군종감이 되었습니다. 김승명 장로의 믿음과 헌신과 숭선수범의 신행 일치의 삶은 그의 아들을 목사로 헌신케 하였고, 군 복음화의 산실로서 남한 군대의 최초 군종감을 낳게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군 복음화의 시작은 이렇듯이 함흥 흥원군 출신의 김승명 장로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빛을 지게 된 것입니다.

함흥지역에서 성결교회의 역사에서도 동일한 교훈을 받습니다. 성결교회는 북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우선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1922년부터 1936년까지 북한 전역에 91개의 교회를 설립하였고, 그중에 33개의 교회를 함경남도 지역에 세웠습니다. 함흥에는 철원지역에서 사역하였던 김하석 전도사를 1924년도에 함흥에 파송하여 함흥 성결교회로서 북부정 성결교회를 세우게 하였고, 북부정 성결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흥원 지역과 흥남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도 방법은 북부정 성결교회가 후원하여 특별 부흥회를 위한 강사 목사를 청빙하고, 교인들이 참여하여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세워진 지역교회가 흥남 성결교회, 서호진 성결교회, 구룡 성결교회, 용흥 성결교회 등이 있습니다. 1932년에는 경성 성서학원 출신의 조기성 전도사와 최하숙 전도 부인을 함흥에 파송하여 산수정 성결교회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성결교회의 설립은 조선인 전도사와 전도 부인의 활약과 세워진 교회가 연합하여 새로운 교회설립을 위해서 조직적인 부흥회와 교인들을 동원한 집중 전도사역으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함흥지역 성결교회의 특이한 역사로서 한국 전쟁 시기 북부정 성결교회와 산수정 성결교회의 교인들이 흥남항 철수 때에 미군 LST를 타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오늘의 충무성결교회와 종로구에 있는 삼성제일교회의 전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90년도 후반부에 발생한 함경북도 온성과 종성 주변 지역에서의 탄광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지하교회 적발 사건은 남한 출신의 월북자 가정과 기독교인 가정으로 성분 조사 시에 반혁명 가정으로 계급 성분이 구분되

어서 추방된 가정과 원래부터 함경도 지역 토착인으로 그루터기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상당한 직급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교인들이 대규모의 지하교회를 형성하여 활동하던 교회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로서 굶주림이 만연하고, 아사자가 속출하며 외부의 도움이 절박하던 때에 연변 지역에 살고 있던 조선족 친인척들이 북한 가정들의 절박한 도움의 요청에 구호와 구제에 힘을 쓰던 시기이었습니다. 조선족 교회들도 교인들을 통해서 북한의 친인척들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게 되어서 북한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도움도 요청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북한의 가족들에게 구호와 구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연변 지역 대다수의 조선족 교회가 이 사역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연변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중국과 맺은 국경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통행증만 발급받고, 쉽게 북한에 들어가서 국수 공장 및 빵 공장 등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비밀 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는 중국에서 들어와서 북한의 친인척들을 만나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구제하던 중국의 조선족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장기간 관찰하며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온갖 사건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과 종성 탄광 지역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북한의 지하교회가 적발이 된 것도 외부와의 연관 때문이었습니다. 20여 명의 주요 지도자들이 제한된 공개 총살을 당하고, 각 지역에서 체포된 200여 명의 신자들은 비밀리에 깊은 산악 지역으로 끌려가서 지면에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의 잔혹한 방법으로 소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위부 요원으로 중국에 파견되어서 활동하던 한 사람의 증언으로 교차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하교회 조직에 연관된 북한 교인들의 수효는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외부와의 연결을 끊고,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서 남아있는 교인들과 더욱 은밀한 소 분조 단위의 비밀모임을 만들어서 신앙 활동을 하였습니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모임입니다. 2000년도 중엽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 활동을 하며 함흥과 주변 지역의 교인들을 보살피었던 김 씨 할머니가 함흥 시내 비밀모임 시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신자들이 체포되었고, 그들 가정이 사라졌습니다. 김 씨 할머니와 몇 사람은 처형을 당하였고, 남은 사람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김 씨 할머니의 순교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된 것이었고, 주변 지역의 신자들은 더욱 조심하면서 지하교회 조직을 세분화하며 지금까지 외부와 연관 없이 스스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함흥과 주변 지역교회 역사가 나타내듯

이 지금도 신실하게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일사 각오의 신앙과 도르가의 희생적 구제와 사랑의 헌신과 김순명 장로의 믿음과 충성을 가진, 바알 우상숭배에 무릎을 꿇지 않은 수많은 그루터기 신자의 사도행전 29장의 하나님 나라의 신앙 행전이 있습니다.

1974년도에 함흥 시내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교회 자리(운흥 교회로 추정)의 지하실을 김태용 목사와 30명이 넘는 교인들이 그 위의 주택을 사서 지하실을 비밀리에 개조하여 예배드리는 장소로 사용하다가 우연히 적발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분들의 나이는 다양했는데 한 사람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장렬하게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외부와 고립된 가운데 독자적인 교회 조직을 갖추고,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교회공동체를 운영하다가 함흥에서 일어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정책을 미처 알지 못한 가운데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교회의 안전과 비밀스러운 신앙 활동을 위해서 외부 변화에 민감하며 사전에 항상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3. 사회주의 계획도시로서 함흥의 영예와 비극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함흥은 고려 시대에 함주목으로 불리는 관북 지역 제일의 도시이었고, 조선 왕조를 건국한 이성계의 활동 무대이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시대에 함주목은 함흥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일제 시대에는 한국주차 일본 관구사령부가 있었습니다. 함흥은 전통적으로 상업과 제조업과 농경과 수산업의 관문 도시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일본은 함흥과 주변 지역을 중화학 공업단지로 발전을 시켰고, 흥남지역을 새롭게 개발하여 질안비료공장과 군수공장을 세웠습니다. 김일성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회주의 진영의 우방국가인 구동독과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함흥을 사회주의 이상이 실현되는 계획도시로 완전히 새롭게 복구하려는 야심에 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약 10년 동안의 복구 기간이 끝난 이후에 김일성은 함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유고의 티토, 캄보디아의 시아누크,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의 방문을 맞이하였습니다.

김일성은 1940년대 말에 당시 서울대 공과대학학장이며 세계적인 화학자인 이승기 박사를 함흥에 유치하고, 흥남과학원 분원을 만들어서 비날론을 개발하게 하고, 2.8 비날론 연합 기업소를 세워서 약 180종의 화학제품을 생산하게 하였습니다. 함흥은 흥남 비료, 본궁 화학, 흥남 제련, 흥남 화학과 용성 기계 연합기업소가 위치한 흥남지구 인민 공장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

다. 함흥에는 중앙대학으로 화학공업, 수리동력, 고려의학 대학이 소재하고, 각종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북한 화학제품의 90퍼센트가 함흥에서 생산이 되므로 최근 북한의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 총비서는 함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탄소하나(C1) 개발의 화학공업을 새롭게 일으키자는 “함남의 불길”이라는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1990년대 중엽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함흥의 대다수 공장은 가동이 중지되었고, 직원과 노동자들은 먹고 살길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함흥은 중국의 범 죄조직과 연계하여 양귀비재배뿐 아니라 합성마약인 필로폰을 생산하는 기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경제난 국을 타개하려는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후유증은 함흥뿐 아니라 북한 전역에 남아있습니다. 얼음, 빙두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은 북한 전역에서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단속하고, 처벌을 엄하게 해도 흔하게 발견되며, 일반 서민들이 구매하기가 쉽습니다. 이로 인한 마약 중독자와 가정이 파괴되며 사회가 혼돈 속에 있습니다. 함흥 주변 지역에서 고위급 장교로 근무하던 엘리트 군인이 필로폰 제조를 위한 페닐아세톤을 중국에서 구매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이 과정에서 약물 중독자가 되어서 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급 군인 장교로서 자신의 이상과 신념과 현실이 너무나도 괴리가 있는 것에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는 중에 자신도 약물 중독자가 되자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안 내에 그루터기 신자가 있었고, 이분의 오랜 기도와 사랑의 인내는 중국에서도 꽃을 피워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독실한 신자를 붙여 주셨고, 이분의 기도와 사랑의 돌봄 속에서 약물 중독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치료였고, 본인 자신은 이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김일성이 사회주의 이상이 실현되는 곳으로 새롭게 함흥을 구동독과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하였지만, 오늘날 함흥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마약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의 이상 실현은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흑암 도성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고급 군인 장교의 경우에서 보듯이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이며, 그분의 복음 능력입니다. 함흥과 주변 지역이 과거 기독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져 모든 선교지역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선교의 열매와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냈듯이 다시 한번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빛의 도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북한의 대표 중화학공업도시 함흥의 역사와 공간구조

함흥은 우리민족의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한반도 동북부 중심도시의 지위를 유지해 온 도시이다. 2008년 기준으로 함흥의 인구는 768,605명으로 평양, 남포에 이은 북한 제3의 도시이며 북한 최대의 공업도시이다. 함흥은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가들에 의해 화학공업도시로 개발되었으나 6.25기간 대다수 산업시설이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북한은 이를 동독과 소련의 도움을 받아 재건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함흥은 동유럽풍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북한에서 가장 이국적인 도시이기도 하다. 함흥의 5대 공장으로 명성이 높은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함흥모방직공장,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은 북한 공업의 중추를 이루어 북한 화학제품의 90%를 생산하고 있다. 김일성에 의해 ‘지방할거주의’라 비판을 받은 ‘함남도제일주의’가 공공연하게 표현되었던 것, 국경도시도 아니고 무역도시도 아닌 함흥에 평수시장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시장을 비롯한 20개의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두 월등하게 발달한 함흥의 공업에서 기인한다.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함흥시	청진시
면적(km²)	1,849	1,295	556.4	1,855
인구(명)	3,255,288	983,660	768,605	667,973
인구밀도	1,760	758	1,381	360

표1 북한 4대도시(인구기준)의 인구와 인구밀도, 2008년 북한인구센서스,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통계청 북한통계(<https://kosis.kr/bukhan/search/search.do>)를 참조로 필자 작성.

화학공업의 발달은 1990년대 마약제조 기반이 되어 함흥에 북한최대 마약생산지의 오명을 안겼다. 김정은시기 이후로 ‘함남의 불길’이라는 슬로건 하에 함흥은 북한경제 재건의 출발지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함흥이 공업도시로 성장하게 된 과정과 현재의 공간구조를 정리하고 중화학도시로서 함흥의 미래를 전망할 것이다.

1. 함흥의 역사

1) 조선시대 함경도의 수부

함흥은 고대 부족국가인 옥저의 영토에 속했으며 이후 옥저를 멸망시킨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그 뒤로



그림1 함흥본궁,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퇴위 후 고향인 함흥으로 내려가 함흥 본궁에 거주했다. 아들 이방원이 차사를 보냈으나 보내는 차사마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전설에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유래됐다.

중국의 당나라, 대조영의 발해 시기를 거치며 고려 초기까지는 여진족의 활동이 많은 지역이었다. 고려의 예종 2년(서기 1107년) 윤관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이듬해 동북 9성을 설치하여 함흥에 함주대도독부를 설치한 이후 함주목, 함평 혹은 함산으로 불렸다. 함흥이 우리민족의 역사에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는 조선시대이다. 조선의 시조 이성계는 화령(현재의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태어나 고려말 개성으로의 이주 이전까지 함흥에서 산 것으로 알려졌다.

퇴위 후 고향으로 내려간 이성계에게 아들 이방원이 차사를 보냈으나 보내는 차사마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전설에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유래됐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1416년 정식으로 함길도의 감영이 함흥에 설치되었고 1498년(연산군 4년)에 함길도가 함경도로 바뀐 후에도 함흥은 수부의 지위를 유지했다. 1470년(성종 1년) 함흥에서 일어난 이시애의 반란으로 군으로 강등되었다가 1509년(중종 4년)에 다시 함흥부로 환원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함경도는 ‘사족(士族)이 존재하지 않아 교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리학적 사회가 수립되지 않은’ 곳으로 인식되었는데 함경도에서 유일하게 함흥은 ‘잠영(簪纓)의 족속(族屬)’이 존재하여 야만의 상태를 조금 벗어난 곳으로 여겨졌다. 또한 함흥과 영흥은 사람과 재물



1872년 함흥의 군현지도 (사진출처: 박원호 작가, 통일부)

이 모이는 큰 도회로 한반도 동북지방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¹⁾

이중환(1691~1756)의 택리지는 조선중기 함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함흥성(咸興城)은 군자강(君子江)가에 있고 강 위에는 만세교(萬世橋)가 있는데 다리 길이가 5리나 된다. 성 남문 위에 낙민루(樂民樓)가 있어 온 고을 경치를 온통 차지하였으며, 평양 연광정과 서로 첫째, 둘째를 다투다. 그러나 들판이 험하게 뻗쳐 멀리 바다와 접하였고 풍기가 웅장하고 사나워서 평양의 수려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한다.”²⁾ 함흥과 영흥의 인구는 1759년에는 107,112명으로 함경도 전체 인구 526,265

1) 『승정원일기』 순조(純祖) 8년 5월 13일을 고승희 『조선후기 함경도 상업연구』(서울: 국학자료원, 2003) p. 21에서 재인용.
2) 박원호, 『북한의 도시를 미리 가봅니다』(서울: 가람기획, 2019) p. 141.

	원산			함흥		
	조선인	일본인	합계	조선인	일본인	합계
1913년	15,646	6,936	23,096	21,452	1,992	23,517
1923년	23,151	7,743	31,611	21,233	4,068	25,440
증감률	32	10	26	-1	51	7

표2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지차사 연구』 상, 일지사 1992 p.132를 양지혜, 『일제하 일본질소비료의 흥남 건설과 지역사회』 p. 46에서 참고.

명의 20%를 상회하며 1828년의 인구는 126,480명으로 함경도 전체 인구 712,980명의 17%를 넘는다.³⁾ 조선시대의 함흥은 함경도 육상·해상 교통의 요충지로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다. 1770년대 평양을 제외한 한반도 북부의 도시들 중 4개 이상의 시장을 보유한 도시는 없었으나 함흥만이 유일하게 7개의 시장이 존재했다.⁴⁾ 이후로 조선 말기까지도 함흥은 한반도 동북부 대표도시의 위상을 유지했다.

2) 일제강점기 중화학 공업도시로의 발전

강화도조약 이후로 조선에 대한 일제의 간섭이 심화되었으며 1905년 러일전쟁 승리, 미국과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통하여 일제는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한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한 직후 조선주차군사령부를 함흥과 평양에 각각 설치하였다. 주차군사령부에 일본의 13사단이 주둔하며 함흥의 성벽, 구천각 등이 철거되었고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가 개통하게 된다. 이때 함흥 시내에 개통된 도로가 대화정과 군영통인데, 함흥 남문 부근에서 동-서로 뻗은 대화정 도로는 1912년에 공사를 시작했고, 군영통은 남문부근 대화정도로에서 함흥 동북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된다.⁵⁾

3) 『輿地圖書』, 『大東地誌』의 통계를 고승희 『조선후기 함경도 상업연구』 p. 47에서 재인용.
4) 고승희 『조선후기 함경도 상업연구』 p. 76.
5) 최지혜, 「1896~1945년 지방행정제도의 개편과 철도노선의 확장이 가져온 지역거점 도시공간의 변화」(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22) pp. 177~179.

1880년 원산의 개항으로 함경도 행정과 물류의 중심축이 함흥에서 원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원산은 개항장으로 일본인 및 서구인들이 방문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서구선교사들의 이주와 동시에 선교본부 개설, 관광지로서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한일강제병합 직후 일본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일본인 거주자가 많은 12개 지역을 부(府)로 지정하여 독자적인 행정 권한을 부여했다. 이때 함경도에서는 함흥이 아닌 원산이 부로 승격되었다. 원산은 1914년 경원선이 개통하고 1917년 일본과의 직항로가 개통하는 등 함경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었다. 1913년 원산의 인구가 함흥을 따라잡았으며, 1923년에는 도시의 규모가 역전되어 원산이 함경도 제일의 도시가 되었고 함흥의 인구는 원산 인구의 80% 수준을 유지했다.⁶⁾ 원산의 발전에도 함경남도청은 계속 함흥에 유지되었다. 1925년 3월 언론을 통해 일본질소가 함경남도 신흥군에 부전강 수력발전소를 설립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활용하여 운용할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공장이 들어설 지역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지역 간 경쟁구도를 조성하여 공장설립을 수월하게 하려는 일본질소의 전략이었다. 언론보도 직후 함경남도의 각 지역 간 공장유치를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함흥, 신흥, 원산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함흥의 유지들은 1925년 함흥

6) 양지혜, 「일제하 일본질소비료의 흥남 건설과 지역사회」(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20) p. 47.



홍남에 위치한 일본질소홍남공장 전경, 1930년대(사진: 통일부 홈페이지)

번영회를 조직하고 3군 군민대회(함흥, 신흥, 정평)를 개최하는 등 공장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질소는 각 도시를 시찰할 때마다 지역 유지들로부터 융숭한 대접과 각종 로비를 받으며 지역마다 밀약을 맺었다. 1925년 11월 공장부지로 신흥이 결정되었으나 번복되었고, 1926년 10월에는 원산으로 결정된 것이 반복되는 과정을 거쳐 1926년 12월 함흥이 비료공장을 위한 최종 부지로 선정되었다.

일본질소의 함흥유치에는 함흥지역 유지들의 노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함흥의 유지들은 함흥에 공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실제로 이들은 일본질소를 대신하여 공장유치를 직접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공장건설을 반대하던 주민들은 경찰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으며, 강제 퇴거를 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당시 홍남지역에서 강제이주를 당한 주민들의 이야기는 함흥출신 소설가 한설야의 소설 「과도기」를 통해 자세하게 묘사된다. 주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유지들이 일본질소를 유치하려 한 이유는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철도와 항만 등 교통의 발달과 이를 통한 지역 물류망 확충을 위한 것이었다.⁷⁾ 1926년 부전강

발전소의 건설공사가 본격화되었고, 1927년 여름에는 홍남 비료공장의 건설공사가 시작되었다. 첫 공장은 1929년 10월에 완공되어 1930년 1월에는 첫 제품 생산이 이루어졌다.

질소비료공장의 가동이 시작된 1930년 함흥

군은 함흥부와 함주군으로 분할되었다. 기존의 함흥군 함흥면과 인접지 일부가 함흥부로 신설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함주군'이 되었다. 이때 가동을 시작한 질소비료공장이 위치한 홍남 지역이 함주군 홍남면으로 승격되었고 1931년에는 홍남읍으로 승격되었다.⁸⁾ 일본질소공장으로 인하여 함흥의 철도와 항만시설에도 대대적인 발전이 있었다. 1926-1934년 일본질소가 발전소와 공장의 건설을 위해 공사용 철도를 부설했는데, 공장 완공 후 일본질소는 이 철도를 일반철도로 전환하여 신흥철도(新興鐵道)라 불린 송흥(松興, 오로-호암), 장진(長津, 함흥-사수), 홍남(興南, 서함흥-서호리) 노선을 신설하였다. 또한 일본질소는 1930년 초 2개의 대규모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홍남항'이라 명명했다. 그러나 일본질소에 의해 건설된 철로와 항만은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철도는 발전소와 공장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함흥의 시가지와는 거리가 먼 관계로 접근성이 없었으며 홍남항 역시 일본질소에 의해 독점되어 여타업체들과 주민들은 오히려 기존의 좋은 입지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에 반발한 함흥의 유력자들이 지속적으로 총독부에 민원을 제출하며 진정운동을 벌여 1934년 12월부터

일반인과 업체들도 홍남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⁹⁾

일본질소가 홍남읍에 들어서고 함흥과 홍남이 각각 부(府)와 읍(邑)으로 승격되며 함흥지역 유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홍남과 함흥의 합병을 꾀했다. 그러나 홍남의 급속한 발전은 오히려 함흥부와 함주군 홍남읍의 경쟁구도를 만들어낸다. 두 도시는 각각 성장을 거듭하여 함흥은 1937년 함주군 주북면, 운남면, 동천면의 7개리를 병합하였고, 1941년에는 인접한 12개리를 병합하였다. 홍남은 1937년 함주군 운남면의 17개리, 1941년에는 함주군 운남면과 삼평면의 22개리를 병합하며 인구가 급성장하였다. 특히 홍남은 일개 읍으로서 여타 부급 도시를 능가하는 인구를 갖게 되었다.

결국 1941년 홍남읍이 부로 승격하여 인접한 함흥-홍남 2개 도시가 모두 부(府)가 되었다. 조선에서 인접한 두 개의 도시가 동시에 부급 도시로 존재한 사례는 1910년 부로 지정된 경성(서울)-인천 이후 두 번째 사례이다. 일제의 아시아 각지역 점령이 가속화되던 1937년 조선 전 지역이 전시기로 돌입하며 홍남은 군수공업단지로 다시 발전한다. 1937년 이후 홍남의 인구는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많은 때는 연간 35%의 증가율을 보이기도 한다. 그 결과 1940년 홍남의 인구는 11만명으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함흥(7만), 원산(7만)을 넘어 조선 전체 7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¹⁰⁾ 홍남의 인구증가에는 일본질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1941년 일본질소의 직원은 5,562명이었으며 1940년 기준 일본질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인원이 53,658명이었음



홍남에 위치한 일본질소공장은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홍남과 주변 도시의 주민들 사이에 사지와 허의 떨림, 사지 말단부의 근육경련 등을 동반하는 질병이 발생했다.

¹¹⁾을 고려하면 홍남인구의 절반 이상이 일본질소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일본질소는 홍남에 큰 발전을 가져왔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가장 큰 부작용은 바로 공장폐수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질병문제이다. 일본질소는 일본 본토에 있는 공장의 경우 폐수관리에 대한 엄격한 지침을 세워 시험-분석-중화의 과정을 거쳐 폐수를 방류하였으나 홍남의 공장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침이 없었다. 그 결과 홍남과 주변 도시의 주민들 사이에 소위 홍남병(興南病)이라 불리는 병이 나타나게 되었다. 홍남병은 신경계통의 질병으로 사지와 허의 떨림, 사지 말단부의 근육경련 등을 동반하는 질병이다. 홍남병은 당시 홍남과 주변의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병이었으나, 병의 정확한 병명과 원인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현황에 대해서도 파악되지 않았다. 이 병은 전후 일본질소의 다른 공장이 있던 미나마타현에서 발생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미나마타(水俣)에서 발생한 질병(속칭 미나마타병, 水俣病)은 일본질소에서 방출한 수은 중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병으로 일본에서는 1953년-2001년까지

7) 양지혜, 「일제하 일본질소비료의 홍남 건설과 지역사회」 pp. 186-187.

8) 양지혜, 「일제하 일본질소비료의 홍남 건설과 지역사회」 p. 190.

9) 양지혜, 「일제하 일본질소비료의 홍남 건설과 지역사회」 p. 192, 193.

10)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293을 양지혜, 「일제하 일본질소비료의 홍남 건설과 지역사회」 p. 213에서 재인용

11) 양지혜, 「일제하 일본질소비료의 홍남 건설과 지역사회」 pp. 269, 270, 273.

지 공식적으로 2,26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¹²⁾

흥남공업지대와 관련된 기독교 인물로는 김교신 이 있다. 김교신은 1922년 동경고등사범학교 영문학부에 입학했고, 지리·박물관으로 전과하여 1927년에 졸업하였다. 동경 유학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에 반대하고 일본기독교의 자주성을 주장하면서, 무교회운동(無教會運動)을 전개하던 우치무라간조(内村鑑三)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조선에 돌아와 교사로 활동하던 김교신은 1942년 3월 필화사건으로 검거되어 1943년까지 1년간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석방 후 1944년 7월에 함흥 흥남 일본질소비료회사에 입사하여 노무과 주택계장이 되었다. 교직에서의 추방, 『성서조선』의 폐간 등으로 모든 활동이 봉쇄되었던 상황에서 김교신은 노무과 주택계장이라는 직책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담당하는 서본궁(西本宮)지역에 거주하는 5천 조선인 노무자의 복리를 위해 교육, 의료, 주택, 대우 등 개선에 전력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부녀자들과 문맹자들을 위하여 야학을 시작했다.



기독교지도자 김교신은 1944년 7월에 함흥 흥남 일본질소비료회사에 입사하여 노무과 주택계장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담당하는 서본궁(西本宮)지역에 거주하는 5천 조선인 노무자의 복리를 위해 교육, 의료, 주택, 대우 등 개선에 전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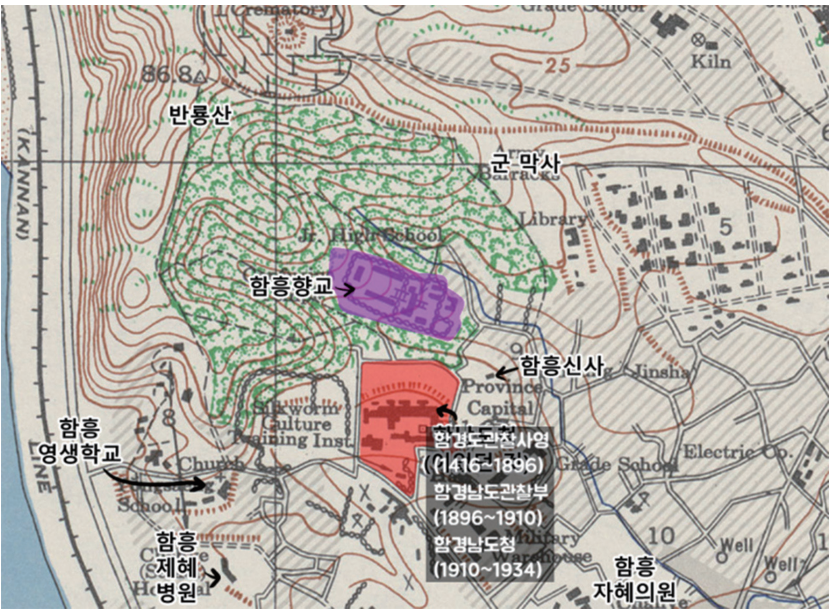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 김교신은 조선의 청년들을 이 공장으 로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그가 조선의 청년들을 흥남의 공장에 취업시킨 목적은 조선의 청년들을 징용으로부터 피신시키고자 하는 것

이었다. 또한 그에게는 일본이 패망할 때 흥남의 거대한 질소비료회사를 인수한다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1945년 4월 공장 내 노무자 숙소에서 발진티푸스가 발생하였는데, 이때 김교신도 발진티푸스에 감염되어 4월 25일 사망했다.

3) 6.25로 인한 도시파괴와 전후복구사업

일제가 패망한 후 함흥의 공장들은 모두 공산정권에 접수된다. 기계를 파괴하고 귀국한 일본인 기술자들도 있었으나, 기술을 전수해주고 떠난 일본인 고급 기술자들도 있었다. 이후 6.25가 발발하여 전쟁 중 함흥과 흥남 공업지대의 절반 이상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전초기인 1950년 7, 8월과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한 퇴각이 이루어지던 1950년 12월 북한의 대표적 공업지대인 함흥에 대한 미군의 포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흥남의 대표적인 공장인 흥남화학공장, 흥남비료 유안제조공장, 본궁화학공장 등 함흥과 흥남의 공장들이 이때 모두 파괴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북한은 함흥의 복구를 위해 사회주의 동맹국들의 지원을 이끌어 낸다. 그중에서도 동독에는 2차대전으로 파괴된 도시들을 재건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들과 책임자들이 건재하였다. 북한의 건물 파괴 정도가 2차대전에서 독일이 입은 피해보다 훨씬 적었으며, 함흥의 도시는 주로 폭격에 의한 것으로, 파괴된 구역은 평지상태가 되어 재건을 위해서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1954년 7월 12일 동독에서 동독 총리 그로테볼(Otto Grotewohl)과 동베를린주재 북한대사 박길룡, 평양주재 동독대사 피셔가 회담을 가졌다. 당시 박길룡은 그로테볼에게 함흥전후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로테볼은 이에 대해 사업의 목표가 함흥을 ‘재건’하는 것인지 ‘완전히 새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인



1945년 미군이 그린 함흥 지도 중 함흥 시가지 일대. 붉은색 구간에 함경도 관찰사영이 자리 잡았고, 이곳이 1933년까지 도청으로 사용되었다. 도청 이전 이후에도 행정관서로 쓰였기에 'Province capital'로 표기되어 있다. (사진출처: <https://blog.naver.com/mrldpeod/223113505600>)

지 질문하였고 박길룡은 ‘완전히 새로 짓는 것’이라고 답했다. 1955년 2월 3일 동독내각평의회 결정에 따라 함흥 전후복구를 담당할 정부기관인 ‘조선원조본부(Baustab Korea)’가 구성되었다.¹³⁾ 1955년 가을 함흥독일기술단이 발족되어 전문가와 숙련공 144명이 북한에 파견되어 1959년 6월까지 함흥 일대에 6,000가구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였고 1962년 복구사업을 조기종료했다. 당시 동독 기술자들은 흥덕구역에 모여 살았는데, 1970년대까지도 함흥의 주민들은 동독기술자들이 살았던 지역을 ‘독일인마을’로 불렀다고 한다.¹⁴⁾

동독재건단의 기록은 당시 동독에 유학중이던 286명의 북한 유학생 중 한명으로 동독재건단의 통역을 위해 귀국하고 이후로 동독으로 망명한 신동삼

씨에 의해 정리되어 책으로 출판되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전후의 함흥은 페터 뢰러(Peter Doehler)에 의해 설계되었다. 옛 함흥역을 중앙광장으로 하고 프랑스 베르사유궁의 다르메광장(Versailles Place Darnes)식으로 중앙광장에서 세 도로가 방사형으로 성천강을 건너 함주(옛 조양리)구역으로 연결되게 했다.¹⁵⁾

함흥의 도시계획은 성천강 너머에 있는 함흥제5구(함주구)를 서쪽 한계선으로, 북쪽에 있는 반룡산 줄기를 북쪽 한계선으로, 남쪽의 호련천을 남쪽 한계선으로 지정했다. 도시의 중심부로부터 퍼져 나가는 도로축 2개를 성천강 너머로 연장하여 함주구역과 시내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도시중앙광장에서 성천강 만세교에 이르는 도로축에 문화회관, 백화점을 배치하며 성천강 양안에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지역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만세교의 동단 부근이 소구역 중심점이 되어 현재 이곳에는 시민공원이 들어섰고 이후로 김일성 동상, 대형백화점이 세워졌다.¹⁶⁾

소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직장, 기업소, 휴식공간의 조화를 추구한 것이 동독의 ‘근린주거지역’의 개념이

13) 이정민, “함흥 전후복구사업을 통해 본 북한-동독 관계,” 『역사문제연구』 43권 (2020) pp. 429-432.

14) 이정민, “함흥 전후복구사업을 통해 본 북한-동독 관계,” p. 447.

15) 탈북민, 최OO과의 인터뷰(2024, 11, 29); 신동삼, 『1955-1962년 구동독 도시설계팀의 함흥시와 흥남시의 도시계획』 (서울: 논형, 2019) pp. 108-110.

16) 신동삼, 『1955-1962년 구동독 도시설계팀의 함흥시와 흥남시의 도시계획』 pp. 112, 113

12) 양지혜, 「일제하 일본질소비료의 흥남 건설과 지역사회」 p. 255



함흥재건프로젝트에 참여한 독일재건단과 그 가족들 (참고, 사진 출처: 임동우,, ‘함흥, 한반도에 새겨진 바우하우스의 흔적,’ https://vmSPACE.com/report/report_view.html?base_seq=NjQw, Professor Matthias Schubert D 23968 Wismar Muschelring 17 / Wikimedia Commons)

다. 이에 따라 “소구역(Wohnkomplex)”을 도시조직체의 최소단위로 정의하였다. 소학교의 학생수는 자연스레 주민 전체의 수와 연관성을 지니는데 하나의 근린지역의 주민수는 3,500명 가량 된다. 이 주민수에 따라서 하나의 근린주거지역에 필요한 주택수가 계산되며 이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이 결정되어, 지역의 면적은 주택건물의 높이와 주요시설물의 건축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구성된 근린주거지역 5-11개가 모여 하나의 구를 이룬다. 함흥의 계획도에 따르면 당시 총 40-43개의 소구역을 포괄하는 5개구역이 계획되어 조성되었다.

구역명	주민수	ha/건축면적
중앙구역	35,000	203.5
발릉산구역	5,000	143
회상구역	38,000	250.5
사포리구역	7,000	125.5
함주/서상구역	3,000	190.5
합계	88,000	913.5

표3 동독에 의해 설계된 함흥시 총 계획도의 분포기준, 신동삼, 『1955-1962년 구동독 도시설계팀의 함흥시와 흥남시의 도시계획』 p. 212 참고

전후 함흥의 복구에는 소련도 힘을 보탰는데, 소련정부는 10억루블의 재정과 기술자 지원을 통해 함

흥의 재건을 도왔다. 소련의 도움으로 흥남비료공장, 유안제조공장은 1955년까지 연간 3만톤 생산 규모로, 1956년까지 6만톤, 1957년까지 20만톤을 생산하는 규모로 복구되었으며, 소련은 1958년까지 연간 10만톤 생산능력의 질안비료공장 건설도 지원했다.¹⁷⁾

2. 함흥의 교통과 산업

함흥은 성천강 하구와 함흥평야를 품은 도시로, 동쪽으로 낙원과, 흥원, 북쪽으로는 신흥, 서쪽으로는 함주와 인접한 도시이다. 1960년 직할시 승격, 1970년 일반시 격하, 2001년도 흥남구역을 흥남시로 분리, 2005년 흥남시 재편입을 거쳐 지금은 성천강구역, 동흥산구역, 회상구역, 사포구역, 흥덕구역, 해안구역, 흥남구역을 포괄하는 거대한 도시가 되었다. 함흥역 역전거리를 중심으로 10층, 21층, 25층의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동흥산 기슭의 김일성동산, 김일성 혁명사적지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시설들이 편재되어 있다. 성천강구역을 중심으로 함흥대극장, 문화회관, 함흥경기장, 함흥체육관 등 문화시설이 있으며, 회상구역에는 북한에서 유일한 함흥구강병예방원 등 보건·위생시설도 있다. 특히 함흥은 중화학공업의 선두도시로서 수리·화학분야의 교육시설이 발달해 있다. 화학공업대학, 수리동력대학, 의학대학, 과학원 함흥분원 등의 대표적인 이과 분야의 고등교육 연구시설이 도시 내에 입지해 있으며, 이 밖에도 사범대학 및 160여 개의 인민학교 고등중학교가 시가화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¹⁸⁾

17) 이찬우, “21세기 먹거리, 탄소하나의 흥남을 바라보다 中,” 라이프인,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720> (검색일: 2024. 11. 13)

18) 안재선, “수치지형도를 활용한 북한의 평성시와 함흥시의 공간구조,”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3권 제4호 (2013) p. 173

1) 교통

함흥시는 북한 동해안과 북부내륙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다. 함흥에 기차가 개통한 것은 1919년이다. 함흥역은 당시 대화정 서쪽 끝 성천강가에 자리를 잡았다. 1928년 함경선 전 구간이 개통되며 함경선의 노선이 함흥의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함흥역도 동쪽으로 이전하였으며 기존의 함흥역은 서함흥역으로 개칭되었다.¹⁹⁾ 평라선은 경의선(북한이 평양을 분기점으로 지정하여 평의선, 평부선으로 분리함)과 함께 북한 철도의 두 줄기를 이루는 노선이다. 평라선의 주요 역으로는 만포선이 갈라지는 순천, 장진선과 부전선이 갈라지는 함흥, 백두산청년선이 갈라지는 길주역이 있다. 함흥에는 함흥역, 서함흥역, 가담역, 부민역, 함흥조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흥남지역에는 흥남역, 서호역, 하덕역, 운중역, 성천강역, 비날론역, 상수역, 마전역, 용성역, 연흥역, 흥덕역, 창흥역, 호전역 등이 설치되어 있다.



함흥역 전경

함흥의 도로는 원산~우암 간 1급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함흥~흥남, 함흥~낙원, 함흥~용림, 함흥~부

19) 최지해 “1898-1945년 지방행정제도의 개편과 철도노선의 확장이 가져온 지역거점 도시공간의 변화,” (한양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22) p. 179.



함흥-원산 1급도로.

전, 함흥~대흥 간 2급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함경북도과 양강도의 주요 도시에서 평양을 갈 때는 대부분 함흥, 원산을 거쳐 평양으로 이동하게 된다. 흥남의 도로는 흥남~함흥 간 간선도로를 비롯하여 흥남~낙원, 흥남~함주 간에 2급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이 밖에 북한 해상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흥남항(興南港)이 있으며 신포항, 단천항, 나선항, 청진항, 원산항 등 여러 항구들과 수상통로가 개설되어 있다.

2) 공업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함흥과 흥남의 공업단지는 해방 후 북한정권이 들어섬과 동시에 국유화되었다. 그중 흥남지구 5대공장인 흥남비료, 본궁화학, 흥남제련, 흥남화학, 용성기계가 있다. 이 중 용성기계공장은 “흥남지구인민공장”으로 불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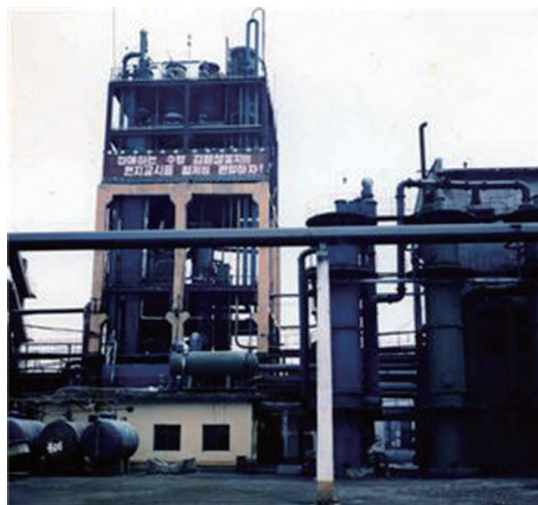
흥남의 대표 기업은 흥남비료연합기업소(興南肥料聯合企業所)이다. 이 기업소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흥남비료공장을 모체로 하고 여기에 연관부문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형업체이다.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북한제일의 화학비료생산기지로서 북한 각지에 비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함흥시에는 함흥블록공장, 함흥건설자기



공장, 함흥흡관공장, 함흥금속건재공장(咸興金屬建材工場), 함흥화학건재공장(咸興化學建材工場), 함흥목재가공공장(咸興木材加工工場) 등이 있다. 건설부 재생산은 6·25전쟁 후에 급속도로 발전한 새로운 부문으로서 시 건설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함흥건설자기공장(咸興建設瓷器工場)은 함경남도의 주요 위생자기생산기지로서 이 지역의 장식, 규석, 찰흙을 이용하여 건축타일과 여러 가지 위생자기



함흥염화비닐신발공장(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류를 생산하고 있다. 함흥에 위치한 함흥모방직공장(咸興毛紡織工場), 함흥편직공장(咸興編織工場), 함흥제사공장(咸興製絲工場), 함흥신발공장들과 130여 개의 중소규모 지방산업 공장들에서는 옷감으로부터 식료가공품, 가정용품, 문화용품, 일용잡화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소비품을 생산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자체

로 충족시키고 있다.

함흥시의 경공업은 방직 및 피복공업, 식료품공업, 신발공업, 일용품공업 등 다양한 부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함흥모방직공장에서는 모직천을 비롯하여 담요, 스웨터 등 300여 종의 천과 편직물 등을 생산하며 함흥제사공장에서는 함경남도 안에서 생산하는 누에고치를 가공하여 고치실을 생산하여 각지의 견직공장들에 공급하고 있다.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咸興榮譽軍人樹脂日用品工場)에서는 갖가지 염화비닐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지역은 북한 주요 목재가공기지의 하나로서 함흥목제품공장(咸興木製品工場), 함흥가구공장(咸興家具工場) 등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불장, 옷장, 찬장, 책상 등 여러 가지 목재가구들과 목재일용품과 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악기, 운동기구, 장난감과 같은 여러 가지 문화용품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함흥에 구축된 화학공업의 물적 사회간접자본은 전쟁후 사회주의 우방국에 의해 급속하게 복구되었고 인적자본 역시 건재했다. 전후 북한



북한이 축산업 발전의 성과로 소개한 함흥수의예방약품공장 전경(사진출처: 통일뉴스)

은 화학공업의 기반 위에 합성섬유인 비닐론 사업을 이식한다.

1938년 미국에서 개발된 나일론은 전세계에 합성 섬유 연구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일본 교토대학 화학연구원에 근무하던 조선인 이승기박사는 1939년 석회석으로부터 추출한 합성섬유를 발명하여 비닐론(vinylon)이라 이름 붙였다. 해방후 귀국하여 서울대 공과대학장을 지내던 그는 6.25 발발 후 7월 김일성의 설득으로 월북하였다.²⁰⁾ 이때부터 비닐론은 ‘비닐론’이라 불리게 된다. 이승기박사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비닐론연구실을 설립하여 1956년에 시제품을 생산하였고, 1961년 함흥에 비닐론연합기업소를 설립하게 된다. 비닐론연합기업소와 함께 국가과학원 분원이 함흥에 설립되어 이승기 박사가 원장을 맡아 북한 석탄화학 연구의 중심이 된다. 2.8 비닐론연합기업소는 함흥과 흥남 사이 본궁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한정권은 이곳에서 해마다 많은 비닐론과 염화비닐, 농약, 물감을 비롯한 180여 종의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석탄화학은 전기에너지를 과다소비하는 산업이며 폴리 에스테르 등 신소재의 개발로 의류시장에서도 ‘비닐

20) ‘주체적인 화학공업창설에 크게 공헌한 과학자,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초대원장 리승기선생’, 로동신문, 2023. 3. 10



국가과학원함흥분원의 연구자들, 최근 국가과학원함흥분원에서는 북한에 풍부한 석탄에서 석유를 합성하는 연구와 가스 추출, 암모니아 합성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뉴스1)

론’은 퇴출의 수순을 밟고 있다.²¹⁾ 최근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에서는 북한에 풍부한 석탄에서 석유를 합성하는 연구와 가스 추출, 암모니아 합성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전역에 만연한 마약은 대부분 함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흥에서 마약이 제조되는 이유는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을 비롯하여 함흥의 발전된 화학산업 환경이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3) 농수산업

함흥은 동해에 연한 도시로 농수산업이 발달한 도시이기도 하다. 농산물로는 주로 벼, 옥수수, 콩 등 곡물과 사과, 배, 복숭아, 살구, 자두 등 과일이 산출되고 있으며 공예작물로는 담배, 들깨, 박하 등도 재배하고 있다. 흥남의 수산업은 흥남수산사업소(興南水産事業所)가 있다. 흥남구역에서는 주로 명태, 도루묵, 정어리, 오징어, 꽂치, 가자미, 까나리, 미역, 다시마, 썬, 조개 등이 잡힌다.²²⁾

21) 이찬우, “21세기 먹거리, 탄소하나의 흥남을 바라보다 下,”

22)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함경남도1』



함흥과 주변지역의 시장, Google Earth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Google Earth 이미지 날짜: 2022. 12. 28, 내용 참조: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통일연구원)

4) 시장

북한의 시장은 지역의 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통제, 관리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나 사회주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리는 편법을 통하거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다수 도시의 대표시장들을 보면, 1980년대에 이미 활성화되어 관리사무실도 존재하였으나, 시장의 운영과 관리가 과연 어떠한 법과 규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모호하다. 그러던 것이 2002년 7.1 경제관리조치와 2003년 시장을 공식화한 내각지시 24호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양성화되었다. 이후로 상업관리국에서 ‘시장관리소’라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직접 시장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각 시장의 명칭은 시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이나 리의 지명을 따르는 것으로 하였고 “시장표준설계” 규정에 따라 건설을 감독하기 시작했다. 시장사용료(장세)의 액수를 결정하는 책임은 상업성, 재정성의 판단과 함께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에게 부여되었다. 2004년 북한 당국에 의해 발표된 “재정성 지시 제30호”에는 종합시장의 장세가 명시되어 있다. 곡물 100원, 채소(남새) 80원, 의복 120원, 해산물 200원, 전자기기 250원, 고기류 250원 등이다.²³⁾ 그러나 이를 최근 실제 장세 현황과 비교해보면 2009년 화폐개혁을 고려하더라도 10배에서 40

23)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p. 50-53.

배까지 차이가 난다.

통일연구원은 각 도시 시장의 장세를 4등급으로 구분하는데, 함흥은 평양, 남포, 청진, 원산, 신의주, 평성과 함께 장세 금액이 가장 비싼 1등급의 도시로 분류된다. 1등급 도시의 장세는 1일 기준, 2017년에 북한 돈 1,100원 - 3,000원이던 것이 코로나 통제가 막바지에 이르던 2022년 9-12월에는 1,800-6,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²⁴⁾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함흥시에는 2022년 당시 11개의 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평양 31, 청진 22, 남포 21의 뒤를 잇는 수치로 북한에서 한 도시에 10개 이상의 시장이 있는 도시는 평양, 청진, 남포, 함흥, 개천의 5개 도시가 있다.

북한의 시장 중 최대규모의 시장은 청진의 수남시장(30,887㎡)과 해주시 양사시장(21,303㎡)이다. 이보다 작은 15,000-18,000㎡ 규모의 시장이 대도시마다 위치하고 있는데, 함흥시 평수동에 위치한 평수시장(16,721㎡)은 북한전역에서 여섯 번째로 큰 시장이다. 함흥에는 평수시장 외에도 운중시장, 풍흥시장, 내호시장, 흥서시장, 송상시장, 흰실시장, 금사시장, 삼일시장, 사포시장, 풍호시장이 있다. 이중 가장 먼저 발전한 시장은 사포시장이다. 사포시장은 북한에서 시장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기 이전 1980년대 10일장이 설 때부터 매우 활성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직원을 위한 주거시설이 사포구역에 조성되어 거기서 나오는 각종 물품들이 종업원들에 의해 시장에 나왔기 때문이다.

3. 함흥의 대학²⁵⁾

함흥에는 과학, 공학, 의학 등 국가의 기술 및 산

24)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pp. 64, 65.

25) ‘3. 함흥의 대학’은 NKCCC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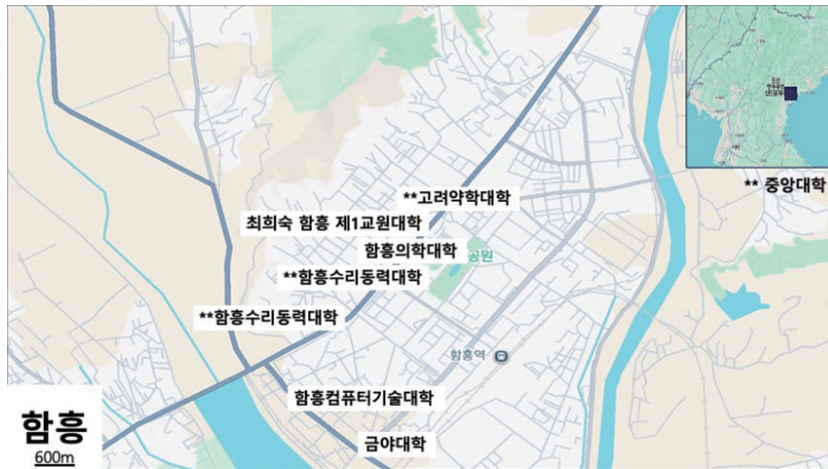


노동신문에 보도된 함흥화학공업대학의 현대화된 교육환경(사진:노동신문 2024년 1월4일)

업 분야를 지원하는 대학을 포함해 여러 교육 기관이 있다. 대표적인 중앙급 대학으로 함흥화학공업대학이 있다. 함흥시 세거리동에 위치해 있으며 1947년 9월 15일 북한의 첫 공업대학으로 창립되어 북한 화학공장의 기술자를 양성하는 기지로서 1950년 첫 졸업생들을 배출한 이후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했으며 비료공장을 비롯해 나라의 화학공장과 기업소들을 움직이고 있다. 2024년 10월 6일 노동신문은 “교육 현대화가 애국”이라는 제목으로 “대학의 실험 실습실을 현대화, 정보화하는 등 우월한 교수방법을 창조, 적용해야 한다”라고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함흥화학공업대학은 교육환경의 최신화, 현대화를 통해 국가에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적극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일하면서 배운다는 북한의 교육체계에 따라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하게 결부시켜 현직에 있는 일꾼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을 위한 통신, 야간학부를 운영중이라고 선전하고 있



수력발전소에 자원 진출한 함흥수리동력대학 졸업생들 (사진:자주시보)



함흥의 주요대학, NKCCC 제공

다. 중요공장들에 대학분교를 두어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다른 중앙급 대학으로 함흥수리동력대학이 있다. 함흥수리동력대학은 1959년 9월 1일 평양수리대학으로 창립되었다가 1961년 함흥시로 옮기면서 함흥동력대학과 병합하여 함흥수리동력대학으로 개칭하였다. 함흥수리동력대학의 교원과 연수원들은 홍수와 같은 비 피해를 막기 위한 관개 기술, 발전소 및 댐 구조에 관한 연구, 중소형 발전소의 자동화에 관한 연구, 수력터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 등 과학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육성하여 국가의 기술 발전 및 후학 양성에 전념하고 있다. 2024년 7월 23일 노동신문은 함흥수리동력대학에 ‘항만건설공학과’와 ‘간석지건설공학과’를 신설했다고 보도했다. 함흥수리동력대학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러시아의 중점대학인 극동연방대학교가 협력 대상으로 정한 북한 대학 6곳 중 하나이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러시아의 조력을 받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 육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북한정권의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항만건설’은 김정은 총비서의 숙원사업인 ‘대운하 건설’과도 맥이 닿아 있다. 김 총비서는 지난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나라의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을 비롯한 전망적인 경제사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계획을 세우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국가적인 힘을 넣어 반드시 성공을 안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내의 한 전문가는

“북한 동서해를 연결해 새로운 물류 운송 경로가 만들어지는 대규모 사업인 대운하 사업이 가시화된다면 단순히 북한의 새로운 수입원이 창출되는 수준을 넘어서 동북아의 지정학, 지경학적 구도상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²⁶⁾ 북한은 선전하기를 ‘함흥수리동력대학의 연구성과들은 최근 여러 발전소건설과정에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였으며, 이에 기초해 새로운 구조해석과 계산방법 등을 학과목에 반영해 연구성과들을 새롭게 교수안에 작성함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²⁷⁾

함흥에 위치한 또다른 중앙급 대학으로 고려약학대학이 있다. 1968년 10월 설립된 함흥약학대학이 전신이다. 남한의 한의학학을 북한에서는 ‘고려의학’ 혹은 ‘동의학’이라고 부른다. 함흥은 이제마 사상의학이 발원한 전통 도시로 고려약학대학은 동의학(한의학)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이제마 사상

26) “北, 대학에 '항만건설과' 신설...김정은 '대운하 구상' 기반 다지나” 뉴스1 2024.07.24. <https://www.news1.kr/nk/politics-diplomacy/5488594> (검색일: 2024년 11월 3일)

27) 함흥수리동력대학 “연구성과 학생 교육에 반영” SPN 서울평양뉴스 2022.12.08.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158> (검색일: 2024년 11월 3일)

의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선전한다. 고려약학대학은 제약 및 의료가 구공업부문과 약학부문의 기사,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삼고 있으며 교육기간은 6년이다. 약학연구소, 실험실습기지, 종합실습공장을 가지고 있다. 설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려약제사, 약제사, 제약 및 의료가사들을 양성하여 북한의 보건발전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함흥에는 금야대학, 최희숙함흥교원대학, 함흥의학대학, 함흥컴퓨터기술대학 등의 일반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4. 함흥의 구금 시설

‘인민보안부 교화국 산하 제9호 교화소’는 일반적으로 ‘함흥교화소’ 혹은 ‘함흥9교’로 불린다. 함흥교화소는 함흥시 화상구역에 본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덕산동 성원리와 영광군 동중리에 분소를 두고 있다. 함흥교화소 본소의 경우 일제강점기 때 감옥이었던 곳이 해방 후 재봉기 공장으로 사용되다가 1998년부터 다시 교화소가 되었다. 재봉기 공장이 교화소가 된 이유는 고난의 행군 당시 주민들이 재봉기 공장 근무를 기피하여 노동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수감자를 통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²⁸⁾

28) 안현민, 『함흥 9호 교화소』(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5) p. 1.



함흥교화소 본소에 수용된 인원들은 선반 등 기계생산과 재봉기생산을 위한 노동력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2,000여명 2007년도에는 2,500여명, 2009년도에는 3,800명 가량의 인원이 수용되었다. 본소는 방별로 수용 인원이 70-80명에 달했다.

2000년에 개설한 성원리 분소는 남새(채소)반, 화목반, 취사반, 돈사반, 건설반으로 구성되었으며 2002년까지는 600명 가량의 인원이 수용되었으나 2003년 수용자에 대한 천내교화소, 개천교화소, 동중리 분소로의 대규모 이감이 있었다. 2003년, 2008년, 2010년에 수감된 인원들에 따르면 이들의 수감 당시 300여명의 수용 인원율을 유지했다.

동중리 분소는 과거 영광군 오로 55호 단련대가 2007년경 함흥교화소 동중리 분소로 변경된 것이다. 영광군 오로 55호 단련대는 남성 단련대였고 단련대 내부에 교화소가 있었다. 이후 2005년을 전후로 함흥교화소에서 여성들이 이감되기 시작하여 돼지와 오리를 키우던 축산반이 있던 곳에 방을 만들어 여성들을 수용하는 교화소를 만들었다. 이후 오

로 55호 단련대는 함흥교화소 산하 동중리 분소가 되어 산하 남성단련대와 여성교화소를 두게 되었다.²⁹⁾ 일부 증언에 의하면 동중리 분소는 함흥교화소 여성교화소로 불린다. 동중리 분소에 구금된 인원은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270~300명이 수감된 것이 확인된다. 교화소 건물은 원래 축사로 사용되는 건물이라 유난히 빈대, 벼룩을 비롯한 벌레들이 많았다. 2008년에는 공간이 증축되어 다른 수감 시설에 비해 나은 환경을 제공받았다.


이들 세 개의 시설 중 본소에는 12개의 독방을 통해 수감자들 중 특별처벌이 필요한 인원을 관리했으며 2008년에는 동중리 분소에도 독방이 생겼다. 독방은 ‘징벌방’의 개념으로 교화소 내에서 특별한 죄를 지은 인원이 한 주간 머무르게 되며 길게는 10일까지 연장된다. 주로 탈주 시도자,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말을 한 인원, 보안원에게 잘 못보인 인원, 미신적인 행동을 한 인원이 수용되었다. 독방 수감자에 대해서는 일반수감자에 비해 1/3의 식량만이 제공된다.³⁰⁾ 본소와 두 개의 분소 모두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며 방안에 한 개의 화장실을 함께 이용해야 했다. 2008~2010년 수감되었던 인원들에 따르면 동중리 분소에서는 매년 하약으로 1~2명씩 사망하였으며 수감인원의 80% 이상이 몸에 고름이 있는 상태로 생활했다.³¹⁾

나가며

이상에서 우리는 함흥의 역사와 공간구조를 살펴 보았다. 함흥은 우리민족의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한반도 동북부의 중심지로 기능해 오고 있다. 일제강

점기 동아시아 최대의 화학공업도시로 발전한 함흥은 환경오염과 노동자의 건강문제 등 수많은 부작용과 함께 지금도 북한 최고의 화학공업도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함흥의 발전한 화학공업은 국가과학원分院, 화학공업대학, 수리동력대학 등 화학공업계열 교육기관의 발달은 물론 북한 마약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함흥에 “마약도시”의 오명을 안겨주었다.

한반도 동북부 중심도시로서의 함흥의 위상에는 수많은 도전이 있어왔다. 1880년 원산의 개항으로 인한 함경도 중심지 축의 이동이 있었으며, 공산정권 수립 이후로 함흥출신 오기업을 중심으로 한 함경남도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김일성이 비판한 ‘함경도 제일주의’, ‘지방할거주의’는 함흥과 함흥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공격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흥은 북한 제2도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남포의 인구가 100만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주변의 용강, 천리마, 온천, 강서군을 기계적으로 합친 인구로 도시의 규모에 있어서 함흥과 남포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함흥의 주민들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제2도시로서의 자부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

배후인구와 도시의 규모, 산업의 발전 현황을 보면, 함흥은 한반도 동북지역의 중심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북한은 제2의 화학공업도시 순천의 비날론공장을 메탄올공장으로 개조하였다. 메탄올(CH₃OH)은 수소산업을 위한 기초물질이다. 함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석탄으로부터 석유추출 연구역시 미래먹거리로 대표되는 수소산업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과거 함흥의 화학인프라와 인적 자원이 급속하게 마약산업을 확산시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함흥의 화학관련 인프라와 인적자본은 수소혁명시대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함흥이 가진 가장 큰 잠재력이다. 

1960-1980년대 북한의 함흥시 공간개발전략

박희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1. 들어가며

북한의 함흥시는 도시 역사가 오래되었고 면적과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사회주의 도시발전의 이야기(story)가 풍성하고 다양한 도시이다. 이에 북한에서 함흥시는 도시를 설명하는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한다.

그 첫 번째 정의는 북한 제2의 도시라는 점이다. 함흥시는 함경남도 도 소재지로서 면적 556.4km², 인구 76만 8천 명이 거주하는 평양시 다음으로 제일 큰 도시이다.¹⁾ 제2도시라는 함흥시의 정체성은 함흥 도시민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된다. 두 번째 정의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발전전략을 상징하는 전통적 중화학공업 도시라는 점이다.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을 포함하여 함흥질소비료공장, 룡성기계공장, 2.8비날론공장, 함흥

제약공장 등 북한의 굵직굵직한 거대 공장들이 응집해 있는 공업도시이자 노동자계급의 도시이다. 세 번째 정의는 태조 이성계로부터 내려져 오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는 점이다. 조선을 창업한 태조 이성계의 함흥본궁이 있으며, ‘함흥차사’, ‘함흥냉면’ 등 도시의 역사성을 나타내는 고유한 언어가 존재한다. 일제 시기에는 일본이 이곳을 만주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항만을 건설하고 화학공업을 발전시켰으며, 수력발전소와 철도를 건설하는 등 도시 자체가 식민지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함흥시 연구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북한이 함흥시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원형(origin) 도시로 건설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함흥시 건설 역사는 북한 사회주의 도시건설의 이론과 실제 그 자체이다.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권력체제와 행정조직, 주민들 삶이 일원화된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유기체와 같이 집단주의적으로 운영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함흥시의 도시공간 발전과 도시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북한 체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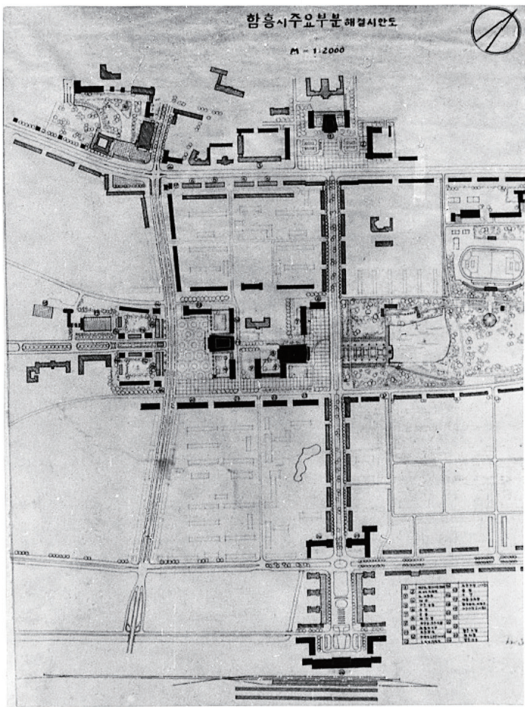
1)한국 통계청은 함흥시 인구 추이를 1967년 42만 4천 명, 1982년 69만 천 명, 1991년 80만 2천 명, 1996년 85만 7천 명으로 발표하였다. 통계청, 『한국도시연감』 (서울: 통계청, 각 년도). 그러나 한국과 달리 미국 에버스타트 연구자는 1992년 북한인구조사에 근거해 함흥시 인구를 1992년 현재 70만1천 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N. Eberstadt and J.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Institution of East Asian Stud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이 글에서는 2009년 북한이 UN에 제출한 최근 통계발표 76만 8천 명을 인용한다. *DPR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Centu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2009).

2) 이 글은 저자가 발표한 “함흥시 도시공간의 지배구조와 탈주체의 삶”의 글을 요약하고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였다.

2. 구소련 사회주의식 건설과 북한 주체식의 경합: 1960년대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후 재정 능력이 취약하고 경제적 잠재력도 미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를 받아들였다. 특히 소련은 북한의 공업시설 복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소련의 사회주의 도시계획 방법이 북한의 도시건설에 영향을 미쳤다.³⁾ 1954년 당시 북한의 함흥시 도시건설 전략은 4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제 시기 넓고 퇴폐적인 도시건설 방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도시로 건설할 것. 둘째, 주민 생활과 생산활동에 편리하게 용도별 지역구분을 명확히 하여 거주지역, 산업지역, 교통지역, 대규모 녹화지역 및 위생 보건지대 등을 구분하여 건설할 것. 셋째, 도시중심부에 광장을 계획하고 모든 도시영역 간의 합리적 도시교통체계를 수립할 것. 넷째, 도시 생활에 필요한 일련의 기술시설(상하수도, 열공급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건설할 것이다.⁴⁾ 이것은 구소련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3대 목표인 ①도시규모 성장억제, ②자족적이며 균형있는 커뮤니티 형성, ③도농간 격차해소라는 방향을 그대로 따른 계획안이었다.⁵⁾

사회주의 도시건설의 방향 아래 함흥시 건설사업의 구체적 지원은 구동독이 맡았다. 1955년부터 1962년까지 구동독은 함흥과 흥남, 그리고 본궁



칼 좀머러가 작성한 ‘함흥시주요부분해결시안도’(1959)
©Bundesarchiv Berlin / Signature: D20 (사진출처: 임동우,
‘함흥, 한반도에 새겨진 바우하우스의 흔적’ https://vmSPACE.com/report/report_view.html?base_seq=NjQw)

지역을 함흥의 특별경제구역으로 개발 육성하기로 하고, 함흥역 앞의 다층주택 1,020세대와 함흥시 중심부에 9,300여 세대, 흥남지역 8,000여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고 경기장, 공원, 해수욕장, 휴양지, 병원, 진료소, 유치원, 탁아소, 상업망 및 목욕탕 등의 건설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구동독의 함흥시 재건계획은 실행과 동시에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김일성은 빈번하게 실행계획의 우선순위를 변경하자고 요청하였고, 용도 변경도 제안하였다. 특히 김일성은 ‘더 빨리 더 많이’ 살림집 건설을 진행하자고 주문하였고, 주택 건설에서도 ‘우리식 생활양식’인 온돌방을 강조하고, 온돌난방을 위한 석탄 저장고 및 고유의 음식 문화인 김장 저장고 또한 주택건설에 반영하도록



6.25 이후 재건된 함흥의 시가지 모습

요청하였다. 김일성은 또한 함흥시 화상동 인민반 회의에 직접 참여하고 ‘층고를 낮추고 층수를 높이며, 매개 세대별 변소, 목욕탕 등을 공동으로 건설하고, 필요 이상의 부엌 면적과 매 주택의 썩시아별(계단식 구조) 계단을 외랑식(복도식 구조)으로 개조하는 등 부대시설을 축소’할 것을 제기하였다.⁶⁾ 이로 인해 구동독이 계획하였던 살림집 건설의 공용면적이 늘어나고 개인공간은 좁고 작게 만들어야만 했으며, 건설재료의 부족, 재정의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북한의 ‘중공업 우선발전’이라는 공업화 노선에 따라 산업시설 복구에 주력하고, 노동력과 자재의 증가 없이 더 많은 주택, 더 많은 공공시설 및 합숙 시설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구동독이 중장기 도시건설계획에 따라 주택지구를 포함한 근린지구(residential neighborhood)방식의 건설을 주도하였다면, 북한은 단기 도시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시설 복구를 중심으로 조립식 집합주택 모델을 빠르게 건설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은 전후 1차 5개년계획(1956-1960년)을 성공하고 사회주의 공업화 노선에 힘을 실었다. 1958년 소련의 도움으로 흥남비료공장의 복구건설에 성공하고, 마침내 1961년 비날론 공업화에

6) 『로동신문』, 1958년 2월 14일.



중국관광객이 찍은 함흥대극장

성공함으로써 리승기의 비날론 공업은 함흥시가 화학공업기지로 발돋움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비날론 공업화 이후 함흥시에는 국가와 학원 함흥분원이 설립되고 화학공업 관련 생산시설이 집중되었으며, 국가급 연구기관과 지도기관 또한 함흥시에 설립되어 ‘연구-생산-지도’의 일체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⁷⁾ 또한 단일한 행정지도체계 수립을 위해 함흥시와 흥남시를 통합하여 함흥시를 구역 단위로 재편하고 총 7개 구역으로 도시의 행정체계를 수립한다.⁸⁾

1961년 이후 흥남의 3대 공장(흥남비료, 2.8비날론, 룡성기계) 중 가장 먼저 흥남비료공장이 복구 건설을 완성하고, 비날론공장의 전신인 본궁화학공장이 1단계 건설을 완성한다. 1967년에는 국가의 자금투자와 기술적 노력으로 룡성기계공장이 완성되었으며, 사포구역에 함흥모방직공장까지 설립되자 흥남지구 일대가 북한의 자립경제, 주체식 사회주의 건설의 본보기가 되어 도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

3) “파괴된 도시의 복구와 재건에 대한 위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옮겨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쏘베트 도시 건설의 고귀한 경험을 리용해야만 한다.” 김정희, 『도시건설』(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1953), p. 51.

4) 리화선, 『조선건축사2』(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pp. 103-105.

5) R. A. French, “The Individuality of the Soviet City,” *The Socialist City: Spatial Structure and Urban Polic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9), pp. 73-74.

7) 김일성, “현대적 화학공업의 기지를 창설하기 위하여(비날론 공장 건설 관계부문 열성자 회의에서 한 연설, 1960년 9월1일),” 『김일성저작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8) 1961년 이전 함흥시는 7리 33동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고, 흥남시는 5리 22동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두 도시가 통합된 후 함흥시는 7개 구역(성천강, 동흥산, 화상, 사포, 해안, 흥남, 흥덕)으로 재편되었다.

3. 주체식 사회주의 도시건설의 본보기로 성장: 1970년대와 1980년대

1970년대 함흥시의 성장과 발전은 공간의 분화로 부터 시작한다. 흥남지구가 3대 공장을 중심으로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로 부각하고 노동자 도시 공간으로 확대 장성해 갔다면, 함흥시 중심지구는 함흥역이 위치한 성천강 구역과 도 단위, 시 단위 행정기관이 소재한 동흥산 구역을 중심으로 정치·행정적 중심지로 성장해 나갔다. 또한 흥남의 노동자 지구에서는 문화기술 수준이 높은 혁명적 노동자 양성을 위한 공장대학이 활발하게 운용되고, 1975년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시행과 1977년 사회주의교육체제 발표 등을 기점으로 각급 학교 기관 시설들이 건설되어 도시 전체에 (노동자) 계급성을 강조하고, 혁명교양과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교육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 시기 흥남지구의 공장기업소들이 자립적 생산체계를 완비하자 함흥시는 주체의 산업기지이자 발전모델로 부각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시찰단이 함흥시를 빈번하게 방문하기 시작한다. 1970년대 함흥시의 정치행사는 빈번하였고, 10만에서 30만까지 함흥시 군중들이 동원되는 군중대회가 수시로 개최되었다. 외국 수반 및 경제시찰단을 맞이하는 도시의 환영 퍼레이드(parade)는 연일 개최되었다.⁹⁾ 이로 인해 함흥시는 북한의 대표적 자립경제의 도시이자 정치 도시로 성장해 나가게 된다.

경제적 토대를 갖추고 정치적으로 성장한 함흥



함흥의 도심과 성천강 서쪽지역을 연결하는 성천교(만세교)

시는 1980년대에 들어서서 도시 면모를 문화적으로 정비하고, 각종 위락·편의시설들을 건설하여 사회주의적 도시 형상을 외연적으로 꾸미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도시 주민의 일상과 연계하여 함흥역, 역광장, 함흥경기장, 함흥인민병원, 함흥려관, 청년공원, 함흥대극장 등을 중심부에 배치하여 건설하고, 거주 밀집 지역에는 인구당 가구수에 맞춰 학교, 탁아소, 유치원, 목욕탕 등을 재정비하고 공공녹지 공원을 조성하였다. 또 생활구역 단위별로 식료품상점, 신문도서열람실, 아동도서관 및 극장 등의 문화시설을 배치, 건설하였다. 나아가 1980년대 함흥시에는 김정일에 의한 대기념비적 건축물이 시내 도처에 건설되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건축을 비반복적으로 창조할 데 대한 과업지시’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건축조형물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원형아파트, 함흥대극장, 함흥경기장, 함흥신흥관, 청년공원 등이 이를 반영하여 건설된 시설물들이다.

종합하면 함흥시는 정치행정도시 함흥이 경제산업도시 흥남을 포함하면서 자립적이며 자기 완결적인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였으며, 구역별로 정치행정, 산업경제, 교육문화 등의 기능을 분리하여 발전시켰고, 각 구역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겹겹이 쌓이면서(layers) 전체 도시의 면모를 형성하여 나갔다.

9) 고유환·박희진, “표5-5. 함흥시 군중대회 및 외국시찰단 환영행사(1957-1988년),” 『북한도시 함흥·평성 자료해제집』 (서울: 선인, 2013), p. 181.



함흥시 도시건설과 발전의 역사, 자료: Retro Photo(<https://pastvu.com/p/2175028>. 검색일: 2024.11.15.)

1960년대
물적토대구축
행정구역개편
화학공업도시구축

1970년대
함흥의 정치도시화
정치경제적
지배구조형성

1980년대
도시문화시설
사회주의경관조성

4. 만들어진(making) 도시와 주어진(giving) 삶

함흥시는 북한 자립경제의 표본이자, 사회주의 자력갱생 모델의 산지로서 경제도시이자 정치도시로서의 속성을 지닌다. 도시의 정치성이 강화되면 될수록 이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도시 안에 상징물을 건축하고 도시 미감을 나타내는 화려한 경관을 조성한다. 이렇듯 국가체제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부여받은 함흥시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도시’로 기능하고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만들어진 도시 안에서 삶과 생활을 영위하는 도시민들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주어진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게 된다. 모순되게도 주체의 사회주의 도시 함흥시 안에서 그 곳의 도시민들은 탈주체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1960년부터 1980년대를 살았던 함흥시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결같이 체제 순응적이며 때론 운명론적이기까지 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약 35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당시 함흥시의 구역 공간 프로그램에 따라 구역 안의 삶과 일상을 살았다. 이들의 생애사 경로는 이미 설정된 듯 동일했다. 이들은 출생지에서 500m 안팎의 유치원과 인민학교를 다녔고, 약 15분 거리에 있는 고등중학교를 다녔다. 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님이 다니시던 공장기업소에 배치를 받아 노동자가 되었고, 신분상의 특별한 경우에만 도급, 시급 단위의 사무원이 되었다. 남성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이 군대로 나갔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와 공장기업소에 배치를 받았고, 여성들은 타 도시로 시집가지 않는 한 구역 내에서 삶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다 보니 면접을 위해 만났던 함흥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이 대대로 ‘함흥토박이’임을 강조하곤 하였다. 함흥시 안에서도 두 구역 이상의 거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조차 없었어요.
저는 함흥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

해요. 다니긴 다녔지만 여기 신흥관이나 동상 같은 것은 알고 있지만은 사포 같은 곳은 그냥 기차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나 알고 있을 정도지요(중략)... 저는 진짜 정말. 저는 학교 다닐 때는 할머니 집에 1년에 한 번씩이나 놀러 가봤고 회사 다녀서는 그닥 그냥 회사에 묻혀서 사니까. ...네..아마 거의 다 그럴겁니다.”¹⁰⁾

이들은 대부분 반복적이며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삶을 구술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 사람들 그런 거 없었어요, 어느 직장을 원한다거나..’, ‘꿈 그런 거 없어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신흥관, 함흥대극장 가본 적 없어요. 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도 없었구요. 마전유원지나 함흥대극장, 동물원 같은 데는 공장에서 집체적으로 갈 때 조직적으로 참관한 적밖에 없어요.’라고 했다. 같은 공간 안에서 반복적이며 동일한 생활 패턴을 가진 삶을 살고 동일한 의식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지향하는 바는 유일하게 ‘간부’가 되는 것이었다. 이들은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간부가 되길 꿈꾸었고, 신분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 ‘당원 되기’에 도전하였다. 이들은 신분 상승을 위해 조직 생활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다. 이것은 도시 안의 위계와 권력 질서에 순응하는 삶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당 간부가 되길 소망하는 도시민에 의해 사회주의 도시의 지배 질서는 유지되었다.

10) 박희진, “함흥시 도시공간의 지배구조와 탈주체의 삶,”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2호(2013), p. 319.

5. 나가며

함흥시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은 함흥시를 기억할 때 ‘북한 제2의 도시로, 5대 공장이 있는 곳’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개인 경험을 구술할 때도 ‘산과 바다를 끼고, 흥남의 큰 공장이 있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 말한다. 함흥시가 자랑하는 신흥관의 냉면, 문화예술의 상징인 함흥대극장, 노동자들의 휴양지인 마전유원지 등은 가본 적도 없지만,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사회주의 상징도시이자 살기 좋은 도시라고 전했다. 이것이 도시공간의 지배성이 작동하여 지배체제에 포획된 결과인지, 그 도시를 떠나온 이들이 갖는 기억의 향수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들은 당시 새로운 것을 갈구하고 욕망할 만큼 타인에 비해 불평등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 이들은 직업에 따라 ‘그 곳’에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다른 곳’에 살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때문에 선호하는 어느 한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거나 공간적 위계가 공간의 불평등 구조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듯 함흥시의 도시건설 역사는 북한식 주체도시가 탈주체화된 도시주민에 의해 도시발전을 이루고 그 명성과 영광을 누려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의 북한 체제가 여전히 도시건설에서 과거 사회주의 건설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함흥시 건축물의 공간구조 형성과 산업시설

김병욱 (NK개발연구소 소장/박사)

북한 지역에는 과거 이씨왕조 시대와 더불어 ‘조선’을 일으킨 땅’으로 불렸으나, 광복 후에는 북한 정권의 등장과 함께 ‘지방할거주의(지역주의)’의 온상지로 낙인된 함경남도 지역이 있다. 함경남도의 중심지인 함흥시 건축물의 공간구조는 광복 전 일제의 동북아 침략을 위한 산업기반의 조성, 광복 후 5년 만에 일어난 한국전쟁 후 동독 정부의 도시 재건 지원, 그리고 이를 활용한 북한 정권의 중화학공업분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추진을 통해 형성되었다.

1. 한국전쟁 이후 함흥시 재건

함흥시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고향으로, 이 시대에는 함경감영이 소재하여 한반도의 북부지역에서 큰 위상을 가진 도시였다. 1927년에 흥남철소비료공장이 세워지고, 1937년 중국 본토에 대한 일제의 전쟁 발발과 함께 이 지역은 대규모 공업도시로 성장했다. 일제는 한반도를 군수물자 조달을 위한 산업육성의 전초기지로 활용했다. 산금(産金) 5개년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제는 본토에 있는 재벌들의 한반도 진출을 유도했다. 이에 따

라 조선철소비료 주식회사, 일본마그네슘금속회사(흥남공장노구치), 조선철소화학회사흥남공장(노구치), 니혼철소흥남유지공장, 닛치쓰시오노기제약공장 등 중화학공업 관련 산업시설들이 이 지역에 자리 잡게 됐다.¹⁾

광복 후 함흥시는 한국전쟁과 더불어 미국의 폭격으로 초토화되었다. 주택의 95%, 주요 교량(橋梁)들과 문화유산, 학교, 교통시설 대부분이 파괴됐다.²⁾ 한국전쟁이 끝난 후 사회주의 진영은 북한의 주요 도시를 분담해 도시재건을 지원했다. 소련 정부는 평양시의, 폴란드 정부는 청진시의, 동독 정부는 함흥시의 도시재건을 각각 지원했다. 당시 독일민주공화국(DDR, 이하 동독 정부)은 소련에 이어 사회주의 진영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두 번째의 강대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소련이 전쟁배상으로 독

1) 기무라 미쓰히코·아베게이지 지음, 차문석·박정진 역음,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공업화』(서울: 도서출판 미지북스, 2009), pp. 113-152.

2) “함흥 집회에서 히스헬(Fischer) 대사의 연설문(1955. 3. 15경 추정)”, II 92/103, A5597, Sektion Korea. Hilfe der DDR beim Aufbau der koreanischen Stadt Hamhyng (한국과. 북한 도시 함흥 건설을 위한 동독의 원조).



동독 기술자들이 작성한 함흥 재건 마스터플랜과 함흥, 흥남 현황도(사진출처: 박하의 북한읽기, <https://m.blog.naver.com/wonh55/221449706010>)

일지역의 공장, 기업소들을 해체해 갖고, 서독과의 체제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때여서 경제 상황이 어려웠다. 그러함에도 동독 정부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상당한 양의 구호물자를 북한에 보냈고, 600명의 전쟁 고아들과 286명의 대학생을 유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비롯해 많은 지원을 하였다.³⁾ 이 가운데서 가장 규모 있게 진행한 지원사업은 함흥시 도시재건이다.⁴⁾ 당시 동독 총리였던 오토 그로테볼(Otto Grotewohl)의 아들이 기술자격으로 북한에 파견되어 3년간 일하기까지 했다.⁵⁾

동독 정부의 함흥시 재건 지원사업은 1954년도에 구상되어 1962년도 근 9년간 종료될 때까지 많

은 곡절을 겪었다. 그 이유는 동독과 북한 관계자들 사이의 민생난 해결이 우선이나, 중화학공업 토대 구축이 우선이나의 상이한 인식, 동독의 지원에 대한 북한의 “이기적이고 산발적인 바램”,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독 파견자들의 불만⁶⁾ 때문이었다.

동독 정부의 함흥시에 대한 재건지원은 주택단지

와 교량, 상하수도 시설과 같이 인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기반 시설의 복구에 맞추어져 있는 반면, 북한은 흥남지역과 본공

지역으로 함흥시 건설을 확대하여 그곳에 있던 중화학공업시설들을 복구하고자 했다.⁷⁾ 동독 정부의 함흥시 재건지원을 여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업의 방향성이 흥남 일대의 중화학공업시설 복구 중심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 건설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때여서 중화학공업시설 복구사업이 추가될 경우, 물자 부족이 가증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아랑곳없이, 한발 더 나아가 함흥시 도시재건을 위해 책정된 원조자금의 일부를 다른 지역의 중공업시설 복구에 투입할 것을 동



함흥 팔천각 앞에서, 동독파견팀(1955)

독 정부에 요구했다.⁸⁾ 1956년 6~8월 사이에 있는 김일성의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 방문 시 오토 그로테볼 총리와의 회담을 비롯해 여러 기회에 함흥시 재건용 원조자금의 일부로 황해 제철소와 강선제강소에 사용될 압연기와 단점 설비를 공급해줄 데 대해 요청했다.⁹⁾ 북한당국은 동독 정부에 의한 함흥시 재건사업이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난 주민들의 민생난 해소보다, 북한의 전반적 군수산업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중화학공업 분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원했고 동독 정부도 일부를 수용해 추진했다. 1961년

상반기에는 기계공장, 변전소, 곡물저장소, 결핵병원 등이 완성되어 북한 정부에 인계되었다. 하반기에는 전화시설, 상수도시설 등의 복구가 끝났다. 동독 정부 수립 12주년을 기념하여 원강공장에서는 제품생산이 시작됐다.¹⁰⁾ 1960년대 초에 이르러 함흥시는 동독 정부가 추진한 함흥시 도시재건 지원사업에 따라 전쟁의 폐허를 건너낸 새로운 도시로 등장하게 되었다.

2. 함흥시 건축물의 공간구조 형성

함흥시는 동해안에 있는 함경남도 소재지이다. 인구 77만 명(2008년 기준)의 도시로 북한 전체 시 행정지역 가운데서, 평양시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함흥시의 면적은 약 556,4km²로 함경남도 면적의 약 3%를 차지한다.¹¹⁾

함흥시의 지경학적 측면을 보면, 성천강의 서쪽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이고 강의 동쪽지역을 따라 가면서 도시가 형성되었다.¹²⁾ 도시 중심부의 공간형성에서 전후 폴란드가 지원한 청진시인 경우, 김일성 동상과 주변이 중요시되었던 것에 비해 함흥시는 함흥 대극장과 그 주변이 상징적 공간으로 되고 있다.¹³⁾

함흥시의 도시형성을 보면, 1960년대에는 주택과 산업시설 건설이 많았고 1970년대에는 도시

3) “독일 건설학원(Deutsche Bauakademie) 산하 정기 독일건축박람회(Ständige Deutsche Bauausstellung) 기술부장 공학사 Hans Grotewohl →총리 비서실 Hans Tzschorn(1960.5.28)”, 위의 문서철.
4) 이정민, “함흥 전후 복구사업을 통해 본 북한-동독 관계” 『역사문제연구』, 제43호, p. 424.
5) 신동삼, “구동독 도시 설계진에 의한 함흥시와 흥남시의 도시 설계 사업에 관한 연구: 1955-1962”,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2019년 5월 29일, p. 3.

6) “함흥 독일기술단의 1959년도 상반기 결산보고서(1959. 7. 28)”, II/11151/63, A 10256, Botschaft Phônggiang. Hilfe der DDR beim Aufbau der Stadt Hamhung sowie Protokolls und Bericht <평양주재 대사관. 함흥시 건설에 대한 반년 및 연차보고, 기타 회의록과 보고서>
7) 이정민, “함흥 전후복구사업을 통해 본 북한-동독 관계” 『역사문제연구』, 제43호(2020), p. 438.

8) 위의 글, p. 440.
9) “동독 총리 Grotewohl →북한 임시 전권특사 박길룡(1956. 7. 23)”, Bestand DC20, Band 15515, Die Besprechung zwischen der KDVR-DDR Regierungen über die verliene aus DDR Frabiksanlage teil[Band 15515, [동독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한 공장시설 부품과 관련한 양국 간의 협의] “북한 내각수상 김일성→동독 총리 Grotewohl(1956. 9. 11)”, 위의 문서철

10) “함흥 독일기술단 1961년도 결산보고서(1962. 2. 22)”, II/11151/63, A 10256, Botschaft Phônggiang. Hilfe der DDR beim Aufbau der Stadt Hamhung sowie Protokolls und Bericht <평양주재 독일민주공화국 대사관. 함흥시 건설에 대한 반년 및 연차보고, 기타 회의록과 보고서>
11) 고유환 외,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 도시사』 (서울: 한울, 2014), p. 55
12) 위의 책, p. 24.
13) 위의 책, 같은 쪽

〈그림 1〉구글맵을 통해 본 함흥시 도시 중심부



출처: 고유환 외,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도시사』(서울: 한울, 2014), p. 25.

〈그림 2〉구글맵을 통해 본 함흥시 도시 중심부



출처: 필자가 구성

광장을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었다. 1980년대에는 함흥 대극장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 기념물과 건축물들을 건설하였다. 1984년 김정일의 지시로 연면적이 약 6만㎡인 함흥 대극장이 완공되었다. 당시로서는 북한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극장이었다. 극장의 정면방향으로 기념탑이 세워졌고 기념탑 뒤쪽 방향에는 3만 5,000석을 가

진 김일성 함흥경기장과 함흥 역사 박물관이 개건되었다. 그리고 함흥 역사박물관 옆에는 함흥 청년공원이 건설되었고 여기에는 롤러 스케이트장과 배구장, 정구장, 농구장 등이 건설되었다.

2013년 김정일의 지시로 함흥시 흥남구역에는 마전유원지가 개건 확장되어 운영되고 있다. 유원지는 동해안을 따라 길이 6km, 너비 50~100m의 모래사장에 전개되었으며 주변은 562m 천주봉의 구릉성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¹⁴⁾ 유원지는 일반 해수욕장 지구와 학생 해수욕장 지구, 캠프장 지구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일반 해수욕장 지구의 길이는 3km에 가깝고, 주변에는 잔디밭·해당화밭·소나무 숲이 있어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2016년에는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주변에 수백 세대의 과학자 살림집이 준공되었다.

현재 함흥역 앞에는 21층과 25층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동흥산 기슭에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함께 혁명사적지가 있다. 동상 앞에는 계단이 있고, 계단의 양옆에는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가산과 절벽이 있으며, 폭포수가 흘러내리고 있다. 또한 주변에는 신흥관이 건설되어 주민들의 문화 휴

1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65587&cid=40942&categoryId=39766> 두산백과 (검색일: 2024년 11월 3일)

식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3. 함흥시의 주요 산업시설

북한에서는 함흥시 일대를 함흥공업지구라고 부른다. 이 지역은 중화학공업과 모방직공업, 기계공업이 발달한 공업지구이다. 북한당국은 함흥시를 중화학공업 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와 생산이 복합적으로 갖춰진 공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지역에는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을 비롯해 중화학공업 연구 분야의 대표적인 기관들과 2·8 비날론연합기업소, 흥남비로연합기업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 등 중화학공업 생산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도 있다.

광복 전 한반도의 경제 분포를 보면, 경공업 부문은 남쪽 지역에 대부분 배치되었다. 방직 제품인 경우, 남북한 전체 생산량의 96%가 남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¹⁵⁾ 경지면적이 부족한 북한의 지리적 환경에서 주민들의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면을 재배하는 것보다 화학섬유를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광복 이후 김일성은 일제 근대화의 산물이기도 한 함흥지역의 지경학적 잠재력에 주목하여, 자력에 의한 비날론 생산을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나갔다. “주체섬유”라고 선전하는 비날론 섬유생산에 김일성이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북한에 풍부한 무연탄과 석회석을 원료로 하여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나 비날론이 다른 화학섬유에 비해 가볍고 질겨서 천연섬유와 유사한 점 등에 있지만 않았다. 당시 비날론을 개발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리

15) 북한지역에서 방직제품 생산량은 함경남도 지역이 1.7%, 함경북도 지역이 0.6%, 황해도 지역이 1.4%를 합쳐 약 4%에 불과했다. 기무라 미쓰히코·아베게이지 지음, 차문석·박정진 엮음,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공업화』, p. 159.



함흥시내 지도(출처: 조선향토대백과)

승기 박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전쟁 발발과 더불어 북한은 특수작전대를 파견해 리승기 박사가 주도하였던 연구진을 북한에 데려오도록 하였고 전쟁의 승패를 가리기 어려운 때였지만, 연구진이 비날론 연구에 전심하도록 국가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비날론 연구가 중간공정 실험에서 성공하자, 김일성은 1959년 3월 25일 함흥지역을 방문하고 비날론 공장의 위치까지 정해주었다.¹⁶⁾ 196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북한에서는 자주국방 노선이 제시되고 함흥지역에서 생산하는 중화학 제품에 대한 군수산업의 수요가 높아졌다. 1962년 북한은 중화학공업 분야 연구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기관으로 국가과학원 함흥분

16) 윤명수, 『조선과학기술발전사 해방후 편 1』, p. 144; 김태호, “리승기의 북한 ‘비날론’ 연구의 공업화: 식민지 시기의 연속과 단절을 중심으로”, p. 33, 강호제, 『북한과학 기술형성사 1』, p. 180.



2011년 함흥 2.8비날론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중인 김정은 (사진출처: 연합뉴스)

원을 설립했다. 현재 함흥분원은 유기화학연구소, 무기화학연구소, 고분자화학연구소 등 13개의 전문 연구기관과 중간실험공장 10개, 이과대학 분교 등을 갖춘 대표적인 연구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¹⁷⁾

한편 이 지역에 소재한 북한의 중화학공업 및 기계공업 분야를 대표하는 산업시설은 2.8비날론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들 수 있다.

2.8비날론연합기업소는 함흥시 사포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이 273만㎡에 달한다.¹⁸⁾ 비날론을 비롯하여 가성소다, 비료, 농약, 염료, 염화비닐 등 420여 종의 화학제품을 생산한다. 생산에 필요한 석회석은 부래산광산에서, 연료인 무연탄은 은곡광산에서, 그리고 소금은 평안남도 일대의 염전에서 공급받고 있다. 또한 전력은 부전강과 허천강 수력발전소에서 공급받으며 공업용수는 성천강물을 사용하고 있다.¹⁹⁾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전신은 1935년에 설립된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 본공공장이다. 동 기업소는 1974년에 연합기업소로 승격하여 2.8비날론 공장, 기존 본공지역에서 가성소다나 암모니아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그리고 부래산광산(석회석)과 은곡탄광(무연탄) 등을 포괄하여 운영하고 있다. 2.8비날론연합기업소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가동을 멈추었고 현재까지도 과거의 생산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북한 신문은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 생산한 비날론으로 만든 담요와 양복천, 외투천 등 다양한 제품을 평양제1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²⁰⁾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생산을 추켜세우는 데 국가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이에 따른 결과는 보도되지 않고 있다.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북한의 대표적인 화학비료공장으로 동해안과 인접하고 있는 함흥시 흥남구역에 있다. 총부지면적은 140만㎡이며 이 중 비료공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119만㎡에 이른다.²¹⁾ 동 기업소는 1974년에 연합기업소로 승격되었으며 산하에 변류직장, 전해직장, 질소직장, 가스발생직장, 변성직장, 합성직장, 요소직장, 질안직장, 질안석회직장, 유안(황산암모늄)직장과 과인산석회직장 등 20여 개 직장을 두고 있다. 생산에 필요한 무연탄은 수동탄광에서, 석회석은 부래산광산에서, 유화철은 만덕광산에서, 그리고 인회석은 동암광산과 쌍용광산에서 공급받고 있다.²²⁾ 또한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장진강과 부전강 그리고 허천강 일대의 수력발전소 등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공

〈그림 3〉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룡성기계공장



출처: [https://www.google.com/search?sca_esv=ca2c68be96a7cdb5&q\(검색일: 2024.11.2.\)](https://www.google.com/search?sca_esv=ca2c68be96a7cdb5&q(검색일: 2024.11.2.))

업용수는 성천강물을 사용하고 있다.

동 기업소의 전신은 1931년에 완공된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 흥남공장이다.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후 1953년부터 1958년 사이에 동독 정부의 지원으로 복구 확장했고 1974년에는 연합기업소로 승격되었다.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갈탄 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공정 설비가 건설되었고 2012년 메탄올 생산공정 증설이 이루어졌다. 2020년 9월에는 연간 수천 톤 규모의 채소 수경재배용 영양액 비료 생산공정을 건설하였다. 또한 2021년 6월 3호 무연탄가스 발생로를 신설하였고 원료공장 회전건조로를 증설하는 등 생산능력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룡성기계연합기업소는 함흥시 용성구역에 소재하고 있다. 공장부지는 68.6만㎡(20.7만 평), 건평은 11.6만㎡(3.5만 평)에 달한다.²³⁾ 수력 및 화력 발전설비, 대형공작기계, 발전용 대형터빈, 프레스 등을 생산하여 관련 단위에 공급하고 있다. 생산에 필요한 철강재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로부터, 특수강은 성진제강소에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⁴⁾ 산하에 2개의 기계직장과 2개의 제관직장 외에 함흥대형공작기계공장, 공업시험소, 설계연구

소 등이 있다. “자력갱생의 본보기 공장”, “힘 있는 공장” 등으로 북한의 언론매체에 소개되고 있다. 북한언론은 2023년 ‘10대 최우수 기업’으로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제일 먼저 소개하기도 했다.²⁵⁾

동 기업소의 전신은 광복 전 함흥에 소재한 용성기계제작소이다. 전쟁으로 혹심하게 파괴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재확장공사를 거쳐 1960년에 완공되었다. 1985년에 최초로 1만 톤 프레스를 제작한 이래 1987년에는 3천m 지질탐사 대형시추기를, 1991년에는 4만㎡ 원심압축기와 5만㎡ 원심송풍기를 제작했다. 2015년에는 첨단지열 설비를 개발하였고 2016년에는 철도현대화에 필요한 중량 레일 수평 교정기도 제작했다. 2017년에는 신형 V형 공기압축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

북한의 함흥시는 일제강점기에는 동북아 침략을 위한 중화학제품 생산지로, 광복 후 북한 정권 수립 이후에는 자립적인 중화학공업발전을 위한 정책수행에 앞장서 나가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17) 강호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1』 (서울: 선인, 2007), p. 337.

18) 김경원 외, 『2015 북한의 산업』 (서울: 한국산업은행, 2015), p. 44.

19) 위의 책, p. 48.

20) “北, 평양제1백화점에서 비날론 제품 판매 시작” 『통일뉴스』, 2012년 1월 16일.

21) 김경원 외, 『2020 북한의 산업』, p. 303.

22) 위의 책, p. 309.

23) 김경원 외, 『2015 북한의 산업』, p. 361.

24) 위의 책, p. 364.

25) “북, ‘2023년 10대 최우수기업’ 선정 …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 『통일뉴스』, 2024년 9월 15일.

사회주의적 화학공업도시 함흥-흥남의 기원, 형성,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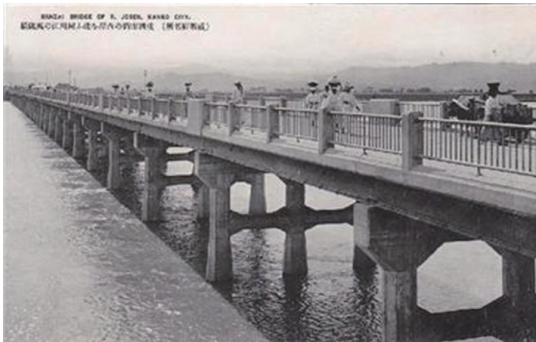
위영금 (정치학 박사)

1. 식민지적 화학공업도시 함흥-흥남의 기원

함흥은 동해안에 위치한 화학공업도시이다. 흥남은 함흥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져 있고 행정구역상 함흥시 흥남구역에 속한다. 함흥은 1416년 함주라는 함자에 흥하라는 의미에 함흥이라는 지명을 가졌고, 흥남은 1927년 질소비료공장이 생기면서 함흥의 남쪽이라는 의미에 흥남이라는 지명이 새로 태어났다.

함흥은 조선시대 함경도 행정중심지로 조선을 일으킨 전통적인 도시이며 흥남은 일본인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에 의해 생겨난 근대적 도시다. 1943년 기준 함흥 인구는 12만명, 흥남인구는 16만명이다. 해방 후 1960년 함흥-흥남이 통합하면서 평양 다음가는 제2도시가 되었다. 함흥면적(2003년 기준)은 556km²이며 현재 인구는 83만7천명(2013년 기준)으로 추정한다.

조선시대 가장 긴 목조 다리로 유명한 만세교는 성천강을 가로질러 함주와 연결되어 물류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만세교는 1905년 러시아군에 의해 소실되었다가 1930년 철근으로 지었고, 1959년 다



일제강점기 만세교, 조선시대 가장 긴 목조 다리로 유명한 만세교는 성천강을 가로질러 함주와 연결되어 물류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시 축성하면서 성천교로 명명했다. 함흥은 조선을 일으킨 이성계가 살았던 본궁을 비롯한 함경도관찰사가 행정사무를 보았던 선화당과 옛 성터가 남아있다.

함흥-흥남은 화학공업도시가 되기에 적합한 지리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함흥-흥남은 해발 2,000m가 넘는 산맥에서 내려오는 풍부한 강수량과 석탄과 석회석이 풍부하고, 저렴한 토지와 노동력,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통이 편리하다. 물의 길을 보면 랑림산맥과 함경산맥에서 발원하는 물줄기는 성천강으로 흘러든다. 성천강과 호련천 물줄기는 경흥천, 금사천 등 지류와 이합집산하면서 큰 물길로 동해로 흐른다. 반룡산(동흥산)은 성천강과 호련천 사이



동흥산공원, 동흥산은 함흥의 북쪽에 위치한 산으로 과거 반룡산으로 불리었다. (사진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에 걸쳐 있고 크고 작은 산들이 도시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개마고원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과 동해 바람은 차고 강해 이것을 비유해 ‘함흥내기’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흥남은 식민시기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의 단독 투자로 생겨난 근대적 도시이다. 노구치는 1927년 함흥에서 12km 떨어진 흥남에 질소비료공장을 세웠다. 흥남질소비료공장이 생겨나기 전 운전면은 조선가옥 200여채가 있는 작은 농어촌 마을이었다. 흥남이라는 지명을 얻기까지 서호진항으로 유명했다. 서호진항은 전국적으로 명태어획량이 가장 많은 황금어장이다. 명태와 고등어, 가재미, 도루묵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저장하고 가공하는 시설이 발달했다. 명태김치, 가재미식해(食醢), 명란젓, 창난젓은 함경도 특산이다. 노구치 화학기술은 물의 길을 따라 부전강에서 장진강, 허천강에서 압록강까지 뻗어나갔다.

“흥남공장은 원래 서호진에 세울 작정이었지요. 그래서 처음엔 서호진 공장이라고 했어요. 흥남공장이라고 부른 것은 훗날의 일이지요. 공장부지를 매수(買收)하는 문제가 있었지요. 원산(元山)도 후보지가 되어있었어요. 서호진은 만(灣)이 너무 좁아서, 서호

진 외곽에 넓은 만(灣)이 있고 어촌밖에 없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새로 항만(港灣)을 건설하는 방안을 세워서 공장부지를 옮기기로 했지요. 그 즈음 어느 날 회사 창립자 야구사장을 따라 서호진서부터 천기리, 구룡리. 그리고 만(灣)전체가 내다보이는 산언덕에 올라갔어요. 때는 벌써 추워서 수수밭 수수대는 서리 기둥으로 가득 차 있어서 왕생(往生)했던 계절을 기억했어요. 산등에 오른 야구사장은 사망을 전망하더니 산 저쪽에서 여기까지 매수하라 라고 지시했는데 그게 대체로 반경 2Km 정도였어요. 너무나 넓은 땅이어서 야구사장이 아니면 그렇게 결정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 매수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인 주민들은 모두 구룡리로 이전시키고, 구룡리를 조선인 거주구역으로 하라는 결정도 이때 한 것이지요. 매수 지역내에는 조선인가옥이 200채가량 있을 정도였어요. 그 해변가의 대부분 집들은 수수대로 만든 울타리로 싸여 있었고 그 안에 어부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부들은 자기 집만 갖고 있을 정도로 경작지는 별로 없었지요. 그와 별도로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산기슭에는 조선인 부락이 있었고, 농부들이 살고 있었고 지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땅들은 후일 모두 공장 사택지나 일본인 동네가 되었지요.”¹⁾

“마을 중앙에 집합장(集合場)이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큰 팽나무가 서 있었어요. 주민들은 이 나무를 신목(神木, 加護神樹)으로 섬겼답니다. 저 팽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풍설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1) <http://ballyong34.blogspot.com/> 미주반룡 34호

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팽나무마당에 와-
악 몰려왔지요. 거기서 반대운동을 하는 거
지요.....공장건설이 점점 진행되어 마을 집
합장은 류산공장의 한가운데 놓이게 됐어
요. 손을 대면 액운(厄運)을 당한다는 풍설
(風說)을 갖고 있는 팽나무는 거기에 그대
로 서 있었어요. 이제 그 나무를 찍어낼 때
가 됐지요. 하는 수 없어 조선인 무당을 불
러 악귀 쫓기를 했죠. 마시면 입안 전체가
빨개지는 술이 있었는데 인부들은 이런 술
을 마시고 그 팽나무를 잘랐던 거예요. 그
런 후에 어떤 일인지 류산계의 정춘씨가 열
을 내면서 반년동안이나 잠을 잤던 일이 생
겼어요”²⁾

중일전쟁으로 공장은 확대되고 흥남은 화학공장
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식민지적 화학공업
도시가 되었다. 초대 읍장인 노구치는 흥남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을 관리했다. 1927년 질소비료공장 시
공을 시작하여 1935년 흥남의 서쪽으로 공장을 지
었고 1937년에 군수공업으로 전환되면서 함흥의 중
간지점까지 확장했다. 공장관리와 기술은 주로 일
본인들이 맡았다. 많은 일본인들이 흥남으로 이주했
고 공장 사원이 되었다. 공장건설과 함께 사택도 건
설했으나 일본인과 조선인으로 구분되고 조선인 마
을은 점점 잠식되었다. 흥남은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노동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이북명과 한설야 등
카프문학가들과 국내공산주의자들의 운동거점으로
되었다.

2) <http://ballyong34.blogspot.com/> 미주반룡 24호

2. 사회주의적 화학공업도시 함흥-흥남의 형성

사회주의적 도시는 계획된 도시이다. 사회주의
적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 중심에 광장이 있
고 기념비나 동상, 문화 시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함흥-흥남은 화학공업 중심지로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노동자들이 많다. 김일성
은 전쟁이 끝나고 함흥을 체제 선전을 위한 ‘로동
계급’의 도시로 만들려 했다. 전쟁으로 함흥-흥남
은 폐허가 되었다. 특히 흥남은 완전히 파괴되었
다. 전후 함흥-흥남의 공장복구에 소련기술자들이
참가했고, 1954년부터 1962년까지 동독도시기술
자들의 지원을 받았다. 구동독의 지원으로 함흥과
흥남 중심거리에 공장과 주택이 건설되었다. 동독
기술자들은 함흥-흥남 주요거리와 살림집, 주요산
업시설 복구와 신설에 참가했다. 함흥시 역전거리
에는 동독사람들이 지은 건물로 동독 초대 대통령
이름을 따서 ‘피크거리’라 했다. 이는 당시 통역으
로 참여했던 신동삼의 저서 『함흥시와 흥남시의 도
시계획』(2019년 출간)에 소개되어 있다.

함흥-흥남은 흥남을 만든 노구치와 함흥을 만
든 리승기의 화학기술로 탄생하고 발전했다. 노구



6.25로 폭파된 흥남비료공장 전경

치가 만든 흥남은 공기를 전기분해하여 질소비료
를 생산하는 무기화학중심으로, 리승기의 비날론
은 석회석과 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카바이드 공법
이다. 리승기는 1905년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
나 서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교토제국대학에
서 공업화학을 공부했다. 화학연구소 조교수로 근
무하면서 1939년 나일론과 아크릴 섬유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 합성섬유이자 최초의 비날론을
발명했다. 리승기 박사는 남북을 통틀어 해방공간
에서 합성섬유분야의 가장 명망 높은 과학자이다.

당시 북한에서 화학화를 통한 경제발전은 중요
한 정치적 사안이었다. 소련의 분업을 반대하고 자
립적 경제를 주장한 김일성에게 비날론의 성공은
정치적 입장을 견고히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
이다. 김일성은 당시 화학공업의 중요성에 대해 “카
바이드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와 석회석이 무진장
으로 있고 무연탄도 전력도 풍부하게 있다. 수력 자
원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력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또 무연탄을 가스화하면 연료와 동
력에 있어서도 문제없다. 카바이드에서 섬유를 뽑
는 것이 중요하다. 비날론 공장, 염화 비닐공장을
건설한다면 질 좋고 다양한 화학섬유를 훨씬 많이
얻게 될 것이다. 화학화의 길로 나간다면 합성고무
도 생산할 수 있다. 고무는 어디서 안 쓰는 데 없다.
트럭도르나 자동차를 굴리려 해도 고무가 요구되
고 여러 가지 인민소비품을 만들려고 해도 고무가
요구된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결정적으로 화
학화의 방향에서 출로를 찾아야 한다”³⁾고 했다. 김
일성은 화학기술자 리승기 박사를 데려오는 데 공
을 들였다. 결국 리승기박사는 1950년 7월 31일
자신의 인맥과 함께 월북을 선택했다. 리승기박사

3) 김일성, “현대적 화학공업기지를 창설하기 위하여 1961년9월 1
일”, 『비날론 공장 건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 기념』, (국립건설
출판사, 1961), p.3



노동신문이 공개한 1960년대 흥남지구 비날론공장 건설당시 사
진 (사진출처: 뉴스1)

가 발명한 합성 섬유 비날론은 중간시험을 거쳐 함
흥과 흥남의 중간지점에 당시 최대규모인 2.8비날
론공장이 건설되었다. 1961년 세워진 2.8비날론공
장은 짧은 기간에 건설되어 북한의 자부심을 높여
주었다. 최초라는 의미로 ‘주체비날론’으로 호명되
었다. 1961년 5월 1일 함흥과 흥남의 중간지점에
건설된 ‘2.8비날론공장’이 완공되어 대규모 군중집
회를 하면서 함흥-흥남을 대규모 화학공업기지로
만들려고 했다. 흥남의 공급체계가 잘 확립되지 않
았고 앞으로 인구는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도시를 합하여 흥남은 생산을 위한
도시로, 함흥은 행정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
하여 한 개의 대도시를 만들어 모든 힘을 집중하여
대규모 화학공업기지를 조성하려 했다.

이러한 변화로 함흥-흥남에는 화학공업을 통일
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관리체제로 과학원 함흥분
원 건설이 필요했다. 1961년 과학원 산하 화학연
구소와 중앙분석소가 함흥으로 이전하고 함흥분원
에서 무기화학연구소, 유기화학연구소, 고분자화
학연구소, 중앙 분석소로 연구체계가 만들어졌다.

1961년 비날론공장이 완공되면서 ‘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김일성의 연설이 있
었다. 그리고 1964년 농촌 화학화를 목표로 함

흥에 중소화학공장들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 1960년대부터 세계는 석유화학공업체계로 전환하는데 북한은 자립경제를 주장하면서 석탄화학산업체계를 공고히 했다. 1970년대 석유파동은 석탄화학공업체계를 확고하게 만들었고, 이로써 대규모 화학공업도시 함흥-흥남 지역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1980년대 함흥시에 대규모 화학공업지구를 계획하고 살림집을 건설했다. ‘함흥시를 공업도시 맛’이 나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23층 원형아파트를 시작으로 성천강, 동흥산, 사포구역 등 중심거리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1984년 대극장(총부지면적 11만㎡)이 완공되었다. 당시는 북한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극장이었다. 대극장의 정면에서 우측으로 함흥인민경기장과 기념탑, 공원이 건설되었다. 광장을 중심으로 중심부를 형성하고 기념탑과 건축물로 채우면서 사회주의적 도시를 형성했다. 사회주의 도시 표상인 광장과 기념비가 세워지면서 중앙과 지방공업을 가진 도시 안에 농촌을 포함한 사회주의적 도시체계를 갖추었다. 이로써 함흥-흥남은 기술과 생산이 갖추어진 사회주의적 화학공업기지로 형성되었다. 이는 대도시를 만들지 않는 사회주의적 도시건설 이념과 배치되는 것으로 특별한 사례이다.

3. 사회주의적 화학공업도시 함흥-흥남의 침체와 발전

북한의 제2도시이자 노동계급의 도시 함흥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대규모 아사(餓死)를 겪었다. 공장은 가동을 멈추었다. 함흥-흥남에 장마당이 생겨나고 각자의 방법으로 생존을 해결했다. 국가계획은 축소되고 시장이 생겨나면서 물류유통 중심지로 되었다. 도시 주변에 있던 장마당은 도시 중심으로 확장되었다. 2022년 통일연구원



함흥편직공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연구자료에 의하면 현재 함흥에 11개의 시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⁴⁾

리승기박사의 화학기술로 생겨난 사회주의적 화학공업도시 함흥-흥남은 권력자의 관심을 받으며 회생하기 시작했다. 김정일의 함흥방문과 함께 공장이 가동을 멈춘 지 17년만인 2010년 2.8비날론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다. 북한은 2016년 탄소하나(C1)화학공업 창설을 선언하고, 촉매의 국산화, 석탄가스화를 강조했다. 탄소하나화학은 탄소하나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원소를 더하면서 여러 가지 화학제품을 생산한다. 석탄가스화기술로 메탄올을 얻고 기존의 석유에서 생산되던 제품을 얻을 수 있다. 북한 산업은 석탄화학산업으로 석회석과 무연탄으로 아세틸렌을 얻는 방법이었으나 석탄가스화를 통해 메탄올(북한말.메타놀)을 얻는 유기화학인 탄소하나화학공업으로 기술을 전환하고 있다. 전기가 많이 드는 카바이드 공법보다 석탄가스화에 의한 메탄올 공법으로 전환하여 자립경제를 이루고자 한다. 탄소하나화학 관련기술은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산하 “메탄올 및 석유화학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함흥시 회상구역 정성동에 위치한 연구소에서는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석유화학, 메타놀 등을 연구하고 있다. 특

4) 홍민 외, 「2022년 북한의 공식 시장현황」, KINU 연구총서 22-28

히 탄소하나화학은金正은시기 중요하게 강조되는 만큼 화학산업이 밀집해 있는 함흥-흥남지역이 부각된다.

함흥-흥남에는 2·8비날론 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대상설비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룡성기계연합기업소와 식료, 피복, 방직, 일용품 공장이 밀집해 있다. 흥남비료공장에서 2013년 메타놀 생산 공정을 갖춘 공장이 준공되었고 2015년에는 혼합비료 생산 공정이 완공되었다. 2019년 함경남도과학기술도서관이 건설되었고, 2021년 함흥화학공업대학에 화학실험관과 함흥의학대학체육관을 준공했다. 2019년에는 함흥메기공장, 2021년에는 김치공장이 건설되었다. 주요 인사들이 함흥지구를 시찰하면서 대기업인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2·8비날론 연합기업소를 돌아보고 생산실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2022년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지구에 함흥시에 공급할 대규모 온실농장 착공식에金正은이 참가하여 눈길을 끌었다. 함흥-흥남은 ‘사회주의선경도시’로 호명되었다.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주변에 수백세대 과학자살림집이 건설되었다. 북한이 구상하는 석탄가스화에 의한 탄소하나화학공업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의 단번도약 중심에 사회주의적 화학공업도시 함흥-흥남이 있다.

4. 사회주의적 화학공업도시 함흥-흥남의 특징

함흥-흥남의 특징은 첫째로 전통적 도시인 함흥과 화학기술자인 노구치로부터 흥남이라는 근대도시가 생겨났다. 함흥은 고구려에서 발해국으로, 발해국 패망으로 여진족에 소속되었고, 고려시대를 거쳐 1392년 태조 이성계로부터 조선 왕조를 잉태

한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새 왕조가 된 태조는 국호를 조선(朝鮮)이라 정하고 1394년 서울 한양(漢陽)으로 옮겼다. 왕자의 난으로 이성계는 함흥으로 돌아왔고 그를 모시러 왔던 사신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말로 咸興差使(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겨났다. 함흥은 1416년 함주(咸州) 함자와 흥하라는 ‘흥’자를 따서 함흥이라는 지명을 얻었다. 흥남은 1930년 질소비료공장이 생기면서 운전면 12개 리를 병합하여 흥남이라는 행정구역을 만들었다. 해방 후 함흥과 흥남의 중간지점에 2.8비날론 공장이 생기면서 행정구역을 같이하게 되었다. 이후 여러 번 변경을 거치면서 지금의 함흥-흥남이 되었다.

둘째로 흥남은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이다. 흥남항이라는 관문을 거쳐 함흥에서 북쪽으로 청진 나진 온성으로 갈 수 있고, 함흥에서 장진 부전으로 가는 신흥선이 있으며, 남쪽으로 평안도와 강원도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중심에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 함흥은 교통운수가 유리한 점으로 국경에서 밀려드는 상품이 도소매로 거래되는 상업 중심지 역할을 했다.

셋째로 동해안에 위치한 흥남은 굼직한 화학산업시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비료생산기지인 흥남비료연합기업소가 흥남항에 잇닿아 있고 화학기술 특성으로 연결된 크고 작은 기업소들이 있다. 함흥과 흥남 중간지점에는 1961년 건설된 2.8비날론연합기업소가 있다. 대형기계설비를 생산하는 룡성기계연합기업소와 흥남제약공장, 흥남제련소가 있다.

넷째로 1960년 무역항으로 개항된 흥남항은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여 흥남공업지구 관문역할을 하고 있다. 흥남항은 2만 톤급 선박 접안이 가능하며 4개의 부두와 5개의 정박장을 가지고 있어 해상무역에 11.5% 화물을 처리한다. 안벽길이는 2,217m이고 연간 하역능력은 260만톤 정도로 마



마전유원지는 흥남 남동부 동해안에 있다. 흥남역에서 8km 거리에 있으며 약 400정보 부지에 해수욕장, 휴양소, 야영소가 있다. (사진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그네시아 클링커, 비료, 석탄, 시멘트 등 품목을 취급한다.

다섯째로 동해안에 위치해 수산업이 발달하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동해안에는 명태, 도루메기, 정어리, 낙지, 꽁치, 가재미 등 생선이 잡힌다. 특히 흥남과 청진, 신포, 흥원, 원산은 이름난 어장이다. 대표적인 흥남수산물사업소와 서호수산물사업소가 있다. 여기에서 어획한 생산을 냉동하고 말

리고 절이는 다양한 가공 시설이 있다.

여섯째로 관광자원으로 마전유원지와 함흥본궁을 비롯한 역사유적이 있다. 마전유원지는 흥남 남동부 동해안에 있다. 흥남역에서 8km 거리에 있으며 약 400정보 부지에 해수욕장, 휴양소, 야영소가 있다. 역사유물로 함흥본궁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급107호로 보호되고 있다. 함경도관찰사가 머물던 함흥선화당과 함흥성이 보존되어 있으며, 함흥시 중심에 위치한 신흥관에서 함흥냉면 원조를 맛볼 수 있다.

일곱째로 함흥-흥남은 무기 및 유기화학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대규모 화학공업도시이다. 비날론, 비료, 카바이드, 농약, 합성수지, 합성고무, 물감, 기초약품 등을 생산한다. 화학을 중심으로 기계, 금속가공, 건재, 방직, 식료, 일용품을 만드는 경공업과 중공업이 있는 도시로 설계되었다. 함흥에는 모방직공장과 함흥곡산공장, 함흥염화비닐신발공장 등 중소형 공장들이 있다. 함흥은 함경남도 도소재지로 화학공업대학, 고려약학대학, 구강예방병원, 교원대학 등 교육기관이 있다. 🍷

북한 화학산업 대표기업,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김미연 (KDB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1.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소개

1. 입지 및 연혁

북한 최대규모의 화학비료공장으로 손꼽히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동해안과 접하는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 호남동에 위치하고 있다. 흥남항에

인접해 있으며 평양-나진 간 동해선 철도뿐 아니라 원산-함흥-나진을 연결하는 도로와도 가까워 입지 조건이 유리하다. 총 부지면적 140만 제곱미터 중 비료공장이 120만 제곱미터로 부지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1927년 6월 조선질소비료 흥남공장으로 시작한 이래 설비 증설을 지속해

〈그림 1〉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제품생산 및 공급체계



출처: 저자 작성

주: 39°50'21.61"북 127°37'59.67"동
출처: Google Earth(2024.11.22 기준)

* 본고는 “화학산업 대표기업, ‘흥남비료연합기업소’, 『KDB북한개발』(통권 30호), pp. 101-135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2023년 기업 활동 동향을 추가하여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왔으나 한국전쟁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파괴되었고, 1958년까지 소련의 지원을 통해 황산직장 등을 중심으로 시설을 복구했다. 1970년까지는 자체기술을 통한 암모니아공장 건설, 연산 35만 톤 능력의 질산칼슘공장 완공을 비롯하여 스위스 및 네덜란드에서 요소 생산시설과 새로운 공정을 도입했다. 1974년 연합기업소로 승격된 이후부터 황산 생산능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으며, 비료증산을 위한 설비보수 공사도 꾸준히 진행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부분적인 보수만이 이루어졌고 정상가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얹친 데 덮친 격으로 1997년에는 설비에 큰 고장이 발생하여 대대적인 보수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500여 톤에 달하는 구조물과 장치물 해체, 3개 합성탑과 여러 대의 보일러, 1백여 대의 설비 개조 등을 포함하여 수천 미터의 배관망 신규 건설 등을 진행한 결과 2007년 후반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가동을 재개했다.

2009년부터 시작한 새로운 갈탄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 생산공정 건설은 원료난을 해결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질소비료 생산을 위해서는 원료인 암모니아 생성용 수소가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함경남도 고원탄광의 무연탄을 가스화하여 수소를 생산해 왔다. 그러나 고원탄광 등 동부지구 무연탄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됨에 따라 기존 무연탄 가스화 설비의 생산 규격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비료생산에도 차질이 생겼다. 평안남도 등 서부지구 탄광에서 무연탄을 수송하여 공급하기도 했으나 높은 물류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 대안으로 동부지구에서 산출되는 갈탄을 이용하는 가스화 설비구축에 집중했다. 2011년까지 갈탄 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공정 설비가 건설되었으며 이듬해 11월까지 메탄올 생산공정 증설도 이루어졌다. 2014년 이후부터는 기존 공정을 확

장하고 설비를 현대화하는 데 집중했다. 니트로가스냉충탑, 산소분리기공기정화탑, 암모니아증발기 등의 개조공사를 포함하여 촉매직장 활성화, 혼합비료, 요소직장 과립요소 생산공정 등 분야별 설비가 갖추어졌다. 2020년에는 연산 수천 톤 규모의 채소 수경재배용 영양액비료 생산공장을 건설하였고 질소비료 생산능력 확장 작업을 위한 설비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2. 조직체계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화학공업성 산하 중앙급 연합기업소로 지배인, 기사장, 초급당비서 중심의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원료·암모니아합성·제품부문 및 기타 10개 직장, 연구소 등으로 나누어져 생산을 진행한다. 부문별 직장에서는 생산공정별 작업을 통해 요소비료, 유안비료, 질산석회비료, 과인산석회비료 등 각종 화학비료를 생산하며, 합성암모니아 외 염화비닐 등 450여 종의 화학제품과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있다.¹⁾ 주요 직장별 담당 세부 생산공정을 살펴보면, 먼저 원료부문에 편재된 1~2질소직장은 공기를 액화분리하여 질소와 산소를 생산한다. 이외 3류산직장, 원료직장, 촉매 직장에서는 암모니아, 질산, 석회석, 황산암모늄, 인회석, 황산 등을 혼합, 농축, 중화하는 과정을 통해 화학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생산한다. 다음으로 암모니아합성부문에 편재되어 있는 1~2합성 직장에서는 혼합가스를 압축하고 합성시켜 암모니아를 생산한다. 나머지 가스발생로직장, 물전해

1) 2021년 기준 주요 인사로는 김철하(지배인), 리철철(기사장), 리경일(당위원회 책임비서), 박남진(당위원회 비서), 주용범(물전해 직장 전해수리작업반 당세포비서), 원복연(메타놀직장 2교대 당세포비서), 원광학(전기직장 작업반장), 민경수(1합성직장 직장장)가 있다. KIET 북한산업·기업DB, <<http://nkindustry.kiet.re.kr/>> (검색일: 2024.11.22)

〈표 1〉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주요 직장별 설비 현황

구분	직장	공정	설비
원료	1~2질소 직장	- 공기 액화분리를 통해 질소, 산소 생산	공기압축기, 정류탑, 팽창기
	3류산 직장	- 암모니아와 희석 질산을 중화, 농축 후 제립 - 질산암모늄 용액에 석회석 혼합 후 제립 - 암모니아를 산화시켜 물에 흡수 - 황산암모늄과 암모니아 중화 - 인회석과 황산 혼합	중화기, 증발기, 건조기, 암모니아 송풍기, 가스흡수탑, 질산냉각기, 회수탑, 혼합기, 입상화(粒狀化)탑, 분말석회 저장조, 회전냉각기, 산화기, 여과기, 포화기, 압축기, 황산저장탱크, 원심분리기, 광석분말 수송 장치, Ball Mill, 혼합탑, 흡수탑
암모니아 합성	1~2합성 직장	- 혼합가스 압축, 합성을 통한 암모니아 생성	가스압축기, 냉각탑, 암모니아 합성탑 등
	가스발생로직장	- 증기와 공기를 이용한 갈탄, 무연탄의 가스화	가스발생로, 공기압축기, 수세탑(탄산가스흡수탑), 열교환기
	물전해직장	-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와 산소 생산	전해조
	청정직장	- 혼합가스에 섞인 잔여 산소 화합물 제거	흡수탑, 팽창기, 암모니아 냉각기
제품	요소직장	- 요소 합성, 순환, 증발, 제립	반응탑, 탄산가스압축기, 탈기(脫氣)탑
기타	변배전직장	- 전해직장에 공급할 전류를 변환	회전변류기

출처: KDB산업은행, 『북한의 산업』(2020), pp. 306~307. 참고하여 재작성

직장, 급수직장, 청정직장은 갈탄과 무연탄의 가스화, 물 전기분해를 통한 수소 및 산소 생산, 일산화탄소를 탄산가스로 변화시켜 제거하는 등 직장별로 각기 공정을 담당한다. 기타 공정 중 변배전직장은 물전해직장에 공급할 전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작업을 담당하며, 자동화직장, 공업기술연구소 등에서는 원료·암모니아합성·제품부문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을 진행한다.

3. 생산능력 및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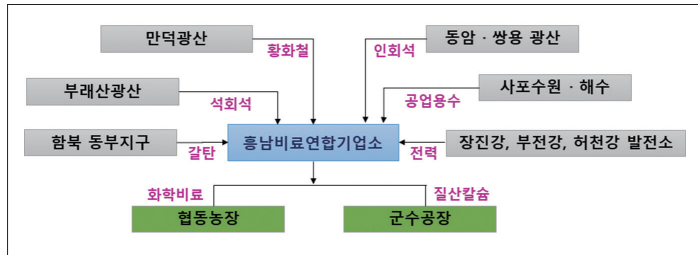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요소 42만 톤, 황산암모늄 40만 톤, 질산칼슘 33만 톤, 과인산석회 40만 톤 등 주로 화학비료를 생산한다. 이외에도 무기화학제품인 황산 45만 톤, 암모니아 30만 톤, 질산 17만 톤을 생산하고 있어 흥남비료연합기업소가 북한 화학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를 짐작할 수 있다. 흥남비료연합기업소가 보유 중인 주요 설비는 전해조, 암모니아 합성탑, 왕복식 암모니아

압축기 등이며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된 9천 4백여 대의 현대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

4. 제품생산 및 공급체계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주요 생산품은 요소비료, 질산칼슘비료, 황산암모늄비료, 과인산석회비료 등 화학비료로 북한 전역의 협동농장에 공급한다. 이 중 일부 질산칼슘은 화약 원료로 군수공장에 공급하기도 한다. 갈탄 가스화 설비에 공급되는 갈탄은 명천탄광, 석성탄광 등 함경북도 명천지구탄전에서 생산한다. 갈탄 이외 석회석은 고원군 부래산 광산에서 조달하며 황화철과 인회석은 각각 허천군 만덕광산, 단천시 동암·쌍용광산에서 제공받는다. 또한 전력은 장진강, 부전강, 허천강 발전소에서 조달하고 공업용수는 성천강물을 양수(揚水)한 사포수원과 해수를 사용중이다. 〈그림 2〉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제품생산 및 공급체계를 도식화한 내용이다.

〈그림 2〉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제품생산 및 공급체계



출처: KDB산업은행, 『북한의 산업』(2020) 참고하여 재작성

II. 12개 중요고지 달성과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북한 당국은 202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12개 경제 분야를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 점령해야 할 중요 고지로 제시했다.²⁾ 특히 12개의 중요고지 중 가장 첫 번째로 제시한 분야는 ‘알곡’이다. 여전히 주민들의 먹거리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충분한 비료공급이 필요하다는 것과 연결된다. 2023년 한 해 동안 노동신문에 수록된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관련 기사는 총 153건으로 2022년(143건)에 비해 7.0% 정도 증가했다. 2022년도 기사 건수가 2021년(206건)에 비해 약 30.6% 감소했던 것으로 볼 때, 2023년 북한 당국이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 걸었던 기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보도기사 중 김정은의 언명을 수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북한 당국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화학공업은 공업의 기초이며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

니다.”는 코로나19 이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김정은의 언명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다. 세부 실천 사항이나 강조점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화학산업의 핵심 역할이 모든 산업의 기초이자 북한 경제를 자립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토대로서 주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2023년에는 특히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를 적기에 보장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내각 중심의 규율,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³⁾

〈표 2〉 노동신문 수록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관련 기사 연도·분야별 분포

구분	기타 활동	생산	투자	사고·보수	계
’20년	75건	22건	18건	2건	117건
	64.1%	18.8%	15.4%	1.7%	100.0%
’21년	114건	51건	37건	4건	206건
	55.3%	24.8%	18.0%	1.9%	100.0%
’22년	73건	45건	19건	6건	143건
	51.0%	31.5%	13.3%	4.2%	100.0%
’23년	87건	50건	14건	2건	153건
	56.9%	32.7%	9.2%	1.3%	100.0%

III. 시사점

북한 최대의 화학비료공장인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주요 입지, 생산능력과 설비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료의 품질 저하, 설비공정 미개발, 설비 노

3)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를 제 때에 보장하는 것입니다.” 『노동신문』, 2023년 11월 5일;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노동신문』, 2023년 9월 24일.

후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질소비료 생산을 위한 필수 원료인 암모니아 생산을 경제성이 낮은 석탄가스화법에 의존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어 있다. 최근 세계적 추세가 석유화학공업의 주요 중간생산물을 활용하는 나프타가스화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내 화학비료 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설비 교체가 시급하다.⁴⁾ 북한 당국도 설비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 현대화는 충분한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3년까지 노동신문에 수록된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 관한 기사의 대부분은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 자체기술역량 강화당부 등에 관한 내용이다.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다.”를 실천하기 위해 2014년 이후부터 기존 생산공정을 확장하고 설비 현대화에 힘써왔다. 그러나 대내외 정치·경제적 여건은 생산공정의 확대, 설비 현대화의 진전을 어렵게 했다.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랜 기간의 노력은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최근까지도 극복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는 비료 생산량을 증대시켜 농촌 각지에 충분한 비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량 증대와 함께 원가절감 방안 모색도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고민거리이다.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비료 생산량을 증대시켜 연간 계획에 수립된 목표량을 농촌에 공급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공사, 새로운 공정 수립, 설비의 정상가동 보장 및 현대화와 촉매의 국산화를

4)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중간재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며 석유정제시설에서 직접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하여 운송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한꺼번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2023년에는 12개 중요고지 목표 달성이라는 과제까지 추가되었다. 2023년 연초부터 노동신문 보도기사는 당국이 지시한 비료생산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로 어김없이 수행했다는 선전성 기사 보도를 시작으로, 상반기 기존 관행을 벗어 던지고 시비년도(施肥年度) 영농 비료공급 계획을 한 달 이상 앞당겨 수행했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⁵⁾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잠시 미뤄두고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게 한 동력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북한 당국은 생산 지휘조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생산 최적화, 최량화 방법 도입을 비롯한 기술혁신 및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들이 생산 지휘조의 강한 지휘에 따라 마련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여타 다른 해에 비해 뚜렷한 해결책이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12고지 점령을 위한 부단한 노력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의 지원은 축소된 반면 책임이 무거워진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일꾼들의 어깨에는 올 연말 계획 수행을 위한 힘겨운 짐이 지워져 있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KDB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2020.
김미연. “화학산업 대표기업. ‘흥남비료연합기업소’.” 『KDB 북한개발』. 통권 30호. 2023년.
- 북한 문헌**
『노동신문』. 각호.
- 기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검색일: 2024년 11월 22일).
KIET 북한산업·기업DB. <http://nkindustry.kiet.re.kr/> (검색일: 2024년 11월 22일).

2)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검색일: 2024.11.22)

5) 『노동신문』 2023년 1월 3일; 2월 3일; 3월 3일; 8월 2일; 8월 16일.

함흥-흥남은 어떻게 마약 생산지가 되었는가?

함흥출신 탈북민

1. 화학기술이 만든 함흥-흥남

함흥-흥남은 북한 최대 화학공업도시로, 함흥과 흥남은 12km 떨어져 있다. 식민시기 흥남은 화학기술자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에 의해 새로 생겨난 근대적 도시이다. 함흥은 조선왕조의 발상지로 전통적 도시이다. 함흥이 북한 최대 규모의 화학공업도시로 되기에 일본인 노구치와 이승기 박사가 있다.

화학기술은 전쟁을 동반한다. 노구치가 흥남에 질소비료공장을 세울 당시 만주사변이 있었고 이어 중일전쟁이 있었다. 화학기술은 군수산업에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질소에서 암모니아를 합성하고 암모니아에서 황산암모늄의 형태로 바꾸면서 비료로도 사용되지만 폭약과 화약의 원료가 된다.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는 1873년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태어나 도쿄제국대학 전기공학을 전공한 화학기술자이다. 암모니아합성기술 특허권을 구매하여 노베오카(1923년), 미나마타(1909년)에 암모니아합성공장을 세웠다. 비료 수요가 높아지자 자원이 풍부한 조선을 찾았다. 1927년 질소비료 공장 시공을 시작하여 1935년에는 흥남의 서쪽에 공장을 지었고 1937년에는 군수공업으로 전환되면서 함흥의 중간지점까지 확장했다. 흥남의 초대 읍장이 되기도 한 노구치는 공장을 확대하여 종전 직후 흥남은 동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화학공업도시, 기업도시가 되었다. 일본이 패망 당시 한반도의 화학공업 80%가 북쪽에 있었고, 흥남의 화학공업은 전국화학공업 생산액의 52.2%를 차지한다. 기술자가 필요한 노구치는 1940년 흥남공업학교를 설립해 기술자를 양성했으나, 조선인 화학기술자는 없었다. 일본인들은 조선인에게 화학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승기박사는 북한이 자랑하는 화학자로 함흥의 화학산업 발전에 큰 공로를 세웠다. 그러나 함흥의 화학산업은 마약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했다.

해방 후 김일성은 화학공업이 거미발처럼 묶여 있는 흥남을 주목했다. 당시 화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은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었다. 소련의 분업을 반대하고 자립적 경제를 주장한 김일성에게 비날론의 성공은 정치적 입장을 견고히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다. 화학기술자가 시급했기에 1946년 4월 흥남인민공장 연구과를 만든다. 1947년 9월 월북 학자 중심으로 최초의 흥남공업대학이 세워진다. 북한 최초의 화학공업대학이 세워지고 흥남비료공장에 첫 과학연구기관인 산업성 화학공업관국 산하 ‘흥남시험소’를 설립했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은 화학공업도시 함흥-흥남이 마약생산도시가 되기에 적합한 기술과 인력을 제공한다.

다. 이는 1948년 6월 4일 독립적인 ‘흥남시험소’로 개편되었다. ‘흥남시험소’는 고분자·유기·무기·전기·제약·촉매를 비롯한 9개의 연구부서와 서무과 등 8개의 행정관리부서로 조직되었고 약 600명 정도가 있었다. 1960년 9월 ‘과학원함흥분원’의 건설을 시작으로 1983년 ‘석유화학메탄올 연구소’가 만들어졌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화학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김정은은 원료의 자립을 위해 촉매 반응을 거쳐 여러 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탄소하나(C1) 화학공업’에 관심을 쏟고 있다.

화학공업 도시로 자리 잡은 함흥은 보건의로 중심지이기도 하다. 함흥은 이제마 사상의학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로 의학 관련 교육 시설이 많다. 함흥에 함흥의 학대학과 함흥약학대학은 의사와 약제사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의대 열풍이 남한만 못하지만 함흥의대, 함흥약학대학만큼은 남한의 서울대만큼이나 이름 높다. 북한의 의술은 동의학과 신의학을 배합하여 유기화학으로 합성약품을 만드는 기술을 배운다. 약품제조기술을 배운 사람들과 유기, 무기 화학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마약 제조기술을 빨리 습득한다. 또한 공장 내 연구소에서 오랜 기간 단련된 숙련공들이 있다. 따라서 화학공업도시 함흥-흥남은



과거 함흥의 주민들은 양귀비라 부르는 아편은 보통 집 울타리에 조금 심어 잎과 줄기를 치료용으로 사용했다. 이것이 이후 마약 산업으로 발전한다.

마약생산도시가 되기에 적합한 기술과 인력, 유통구조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2. 마약 생산지 함흥-흥남

마약은 식물에서 추출하는 것과 화학기술로 합성하는 마약이 있다. 진통제인 모르핀은 식물인 아편에서 추출된다. 모르핀은 마약성 진통제이므로 모르핀 진단과 처방은 국가의 통제에 있었다. 처방날짜와 수량을 적어야 하고, 약품 검사를 세밀하게 받는다. 많이 처방받으면 의심을 받는다. 북한주민들도 중독성 마약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마약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갖지 못했다. 양귀비라 부르는 아편은 보통 집 울타리에 조금 심어 잎과 줄기를 치료용으로 사용했다. 아편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아편으로 중독된 사람이 없었으니, 아편 중독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함흥에서 신흥선을 타고 북서쪽으로 가면 장진이라는 곳이 있다. 1990년대 초반 그곳에서 아편을 심었다. 장진은 감자로 유명하다. 무연한 들판에 아편이라고 하는 양귀비를 눈썹리가 아득하게 심어 놓고 한 개 직장에 몇 명씩 참가하도록 할당을 주어 아편을 채취하게 했다. 아편을 처음 보았고, 아편을 먹어본 적 없으니, 그것을 탐내는 사람도 없



마약 제조기술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함흥-흥남은 마약 생산도시가 되었다. 두부 파는 집보다 마약 만드는 집이 더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집집이 마약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난의 행군’이 있었고, 함흥은 식물성 아편이 아닌 합성의약품 각성제로 마약을 생산했다.

함흥-흥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마약은 ‘얼음(필로폰)’이라 부른다. 마약을 만드는 사람은 화학기술자들이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은 북한 최대 합성의약품 생산기지인 흥남제약공장이다. 흥남제약공장에서 마약을 만들어 유통시킨다. 흥남제약공장은 1947년 일제시기 개발된 본궁화학공장을 모체로 생겨났다. 화학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흥남제약공장은 1953년 함흥시 북한 최대 합성제약생산기지로 되었다. 여기서 신토미핀을 비롯한 페니실린, 결핵약 등 합성의약품을 생산한다.

마약은 중국에서 원료인 페닐아세톤(phenylacetone)을 들여와 증기 가마를 통해 기름을 만들고 고순도 알루미늄을 이용해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얼음(필로폰)을 만든다. 마약 생산은 흥남제약공장 지하 2층에서 한다. 흥남제약공장에서 한 해에 최대 15톤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진다. 같은 시기 북한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에서 마약을 생산하기 시작했다.¹⁾ 흥남제약공장에서 생산되는 합성약

1) 이관형, “북한 마약산업의 주요 실행 주체와 생산 시설 연구”, 行政學會報 - 第94號(2023), P, 285

품(메스암페타민)은 교통의 유리한 점으로 빠르게 전파된다. 마약 범죄시장에서 함흥-흥남에서 만든 필로폰을 최고로 인정한다.

함흥-흥남이 마약 생산지로 전락한 중요한 이유는 화학기술과 생산력에 있다. 노구치와 이승기로 부터 세계굴지의 화학공업도시로 자리매김한 함흥-흥남은 탄탄한 기술을 보유한 화학기술자들이 많다. 오랜 시간 동안 화학 관련 연구를 해온 연구소와 합성약품을 만들고 그리고 기술을 가르치는 대학까지 있다. 어려운 시기 국가는 화학공업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마약을 생산하도록 허용했다. 함흥은 화학기술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살아남았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마약은 순식간에 퍼졌고 함흥-흥남에 마약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최고급 마약을 만드는 사람들은 함흥약학대학과 함흥의대, 연구원에서 화학제조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다.

화학기술자 집단과 합성의약품 공장이 있는 함흥-흥남 마약은 최고의 품질로 생산되었다. 마약 제조기술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함흥-흥남은 마약 생산도시가 되었다. 두부 파는 집보다 마약 만드는 집이 더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집집이 마약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생산되는 마약은 교통이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국외로 옮겨졌다. 화학공업도시 함흥-흥남은 화학기술로 마약을 제조하고 마약으로 돈을 벌었다.

3. 함흥-흥남에서 생산된 마약의 유통, 처벌

함흥-흥남에서 생산된 최상의 품질을 가진 마약은 중국을 넘어 불법마약조직에 넘어간다. 인기 높은 얼음(필로폰)은 수요가 높다. 마약 유통업자는 위험부담을 안고 중국 국경으로 간다. 위험부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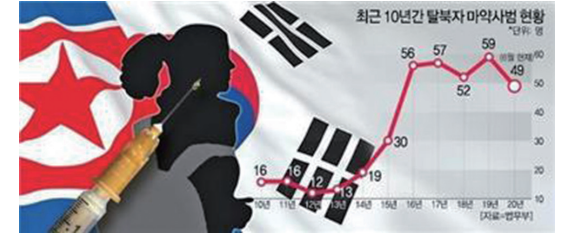
있으나, 한번 성공하면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10년을 장사하던 사람들이 17kg의 마약을 싣고 국경으로 가던 도중 보안원에 걸려 공개 처형을 당했다.²⁾ 북한에 마약 문제가 생기면 함흥-흥남이 거론된다.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북한은 2021년 ‘마약범죄방지법’을 제정했다. 마약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밀수·거래한 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³⁾ 무자비하게 소탕하라는 지도자의 지시에도 마약 생산은 계속된다.

마약으로 생기는 수익인 검은돈의 유혹은 크다. 누구나 쉽게 제조가 가능한 마약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얼마 전 함흥에서 고등학교 학생 여섯 명이 마약을 먹고 목욕탕을 통째로 빌려 집단 성행위를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다. 함흥-흥남은 마약으로 오염되고 있다. 마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돈으로 목욕탕도 살 수 있는 부의 과시가 마약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사회주의적 도시 함흥-흥남에서 일어나고 있다. 마약 유통업자들은 담도 커져 한 번에 몇십킬로 운반한다. 단속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며 걸리면 죽을 것을 알면서 모든 것을 운에 맡긴 채 필로폰을 가지고 국경으로 향한다.

함흥-흥남, 지금은 마약 생산도시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흥남제약공장에서 필로폰을 생산했고, 화학기술을 가진 연구기관에서 마약을 생산했다. 누구나 한코 썹 할 수 있는 마약을 선물로 주고받기도 한다. 몸이 아프면 마약으로 해결한다. 마약이 만병통치인 것처럼 사용한다.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 마약으로 해결하려 한다.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2) http://cdnk.co.kr/board/bbs/board.php?bo_table=nk-news&wr_id=1487&page=446 “마약 운반 주도 40대 남성, 함흥서 공개처형 당해”


3) 김정환, “북한의 마약범죄방지법 신설을 통한 마약범죄 처벌의 확대”,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34권 제3호(2024년 9월)



북한의 마약문제는 국내정착 탈북민의 마약문제로도 이어진다.

마약에 중독될 위험이 크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 가운데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이유이다. 탈북하고 마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하거나 마약 운반책을 자처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마약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유통했던 사람들이다.

마약 생산도시는 화학기술이 만든 것이다. 생존이 급박했던 사람들이 합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만든다. 생산되고 유통되면서 돈을 알게 되고, 마약이 가져오는 황홀함도 있다. 마약을 접하면 심신이 망가지고 도시도 망가진다. 마약이 성행하고, 범죄가 성행하자 다급한 국가는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해보지만 한번 기울어진 도덕과 윤리는 바로 세우기 힘들다. 마약으로부터 온갖 사회악이 생겨난다. 약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없어야 마약이 근절될 수 있다. 화학공업도시 명성에 맞게 함흥-흥남이 마약 생산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 식의주 문제가 화학기술에 달려 있듯이, 마약 생산에 앞장섰던 화학기술자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마약 문제는 해결된다.

화학기술이 마약 생산도시 함흥을 만들었다. 흥남제약공장과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얼음(필로폰)은 화학기술자들로부터 나왔다. 돈이 되는 마약으로 순간은 풍요로울 수 있으나, 도시는 범죄로 얼룩진다. 고등학교 학생이 저지른 집단 성행위 범죄만 보더라도 도시가 타락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화학기술이 언제나 전쟁을 동반했듯이 화학기술로 범죄도시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함흥과 그 주변의 교회를 찾아서

1. 함흥으로 복음의 전래와 확산

함경도지방을 처음으로 방문한 선교사는 게일(J. S. Gale, 기일)과 마펫(S. A. Moffett, 마포삼열)이다. 이들은 서상륜의 인도로 1891년 2월 27일부터 관서지방과 만주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백두산을 거쳐 관북지방의 성진, 함흥, 원산을 방문했다. 여행을 마친 후 게일은 1892년 7월 원산으로 이주하여 선교부를 개설하였으며 1894년에는 스왈른(W. L. Swallen, 소안론) 선교사 역시 원산으로 이주하여 차을경, 모학수, 고찬익, 전계은 등의 조선인 신자를 전도인으로 세운다. 스왈른을 비롯한 선교사들과 전도인들은 함흥을 자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전한다. 선교사들은 함흥의 지리적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나 함흥은 아직 개항이 되지 않았으므로 선교본부 설립은 여러 해 동안 미루어졌다.¹⁾

1892년 6월 장로교와 감리교는 선교구역 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어 장로교 내부에서도 선교구역 분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1898년 연합선교사공의회가 함경도 지역을 캐나다장로회의 선교구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북장로회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를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에게 양도하고 원산을 떠난다. 게일은 캐나다인이었으나 미국북장로회 소속이었으므로 이때 함경도를 떠나 서울로 사역지를 옮겼고 스왈른은 평양으로 이주했다. 이들의 빈자리를 캐나다장로회의 푸우트(W. R. Foote, 부두일), 그리이슨(R. Grierson, 구례선), 맥레(D. M. McRae, 마구례), 롬(A. F. Robb, 업아력) 목사가 메우게 된다.



함흥에 정착한 최초의 선교사는 맥레이다. 1903년에 그는 조선인 성도의 이름으로 함흥에 가옥을 구입하여 철거 후 선교부 건축 부지를 마련한다.

이 중 함흥의 개척자는 맥레 선교사이다. 기록에 따르면 맥레는 1899년 5월 그의 여학생 양씨, 서경조와 함께 함흥으로 전도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3주간을 머무르고 원산으로 돌아왔다.²⁾ 그는 이 여행을 통해 함흥에서 사역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

2) 헬렌 F. 맥레, 『팔룡산 호랑이』 (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2010) pp. 125-139. 던컨 맥레의 딸 헬렌 F. 맥레는 1971년 캐나다 의회의 지원을 받아 부친의 편지와 선교보고를 비롯하여 함흥에서 부친과 함께 사역한 선교사들의 자료를 집대성하였으며 이 중 부친 던컨 맥레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1993년 『A Tiger on Dragon Mountain』을 출간한다. 이 책은 2010년 한신대학교에 의해 우리말로 번역되었다.

은 맥레선교사가 함흥을 여행하며 약혼녀 에디스에게 쓴 편지이다.

“이곳에선 많은 이상한 것들을 듣고 보오. 외국의 숙녀가 거리를 지나가는 것은 하나의 숙제가 될 것이요 … 새로 결혼한 신부를 데려오기에는 어려운 곳일 것이라고 나는 당신에게 말하나, 이 이교의 도시로 신혼여행을 위해 나의 작은 아가씨를 데려오는 것은 나에게 즐거움일 것이요.”³⁾

“만약 하나님이 우리 서로를 만나게 해 주신다면, 당신의 집은 함흥시 안이 될 것이고 당신의 사역 범위는 러시아 국경과 두만강, 먼 북쪽으로 수백 마일 이상일 것이요. …나의 사랑, 우리는 그 지역에서 가장 외지고 가장 어두운 부분에 있을 것임을 기억하세요. 장마철이 끝나는 대로 곧 우리는 함흥시 안에서 살 곳을 준비하도록 일을 해야 해요. 그곳은 외진 곳이며, 아마도 1년 내내 당신은 한 명의 외국인도 보지 못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 대한 호칭을 바꾸기 전에 2주간을 외국의 어느 한 곳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요. 이것이 영국의 법이래요.”⁴⁾

맥레, 맥밀란 등의 캐나다 출신 선교사들과 차을경, 모학수 등의 조선인 전도자들은 함흥을 비롯한 함경도 중부지역의 전도여행을 지속하였고 그리어슨과 맥레는 1900년을 시작하는 기도주간(the

3) 던컨이 1899년 5월 6일 에디스에게 보낸 편지, 헬렌 F. 맥레, 『팔룡산 호랑이』 (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2010) p. 130에서 재인용

4) 던컨이 1899년 6월 21일 에디스에게 보낸 편지, 헬렌 F. 맥레, 『팔룡산 호랑이』 (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2010) p. 139에서 재인용



맥레선교사가 찍은 조선인 사진, 맥레선교사는 함경도지역에서 사역하며 많은 조선인 사진을 남겼는데 독립기념관이 이를 모아 '캐나다 선교사가 본 한국, 한국인' 사진집을 발간했다. (출처: 연합뉴스)

week of prayer)에 함흥의 작은 기독교 공동체와 함께 한 해를 시작한다. 그들은 함흥에 성경공부반을 개설하고 신앙물품과 달력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 매일 전도했는데 전도를 위해 준비한 달력 300개가 모두 소진되어 1,000개를 원산으로부터 추가로 주문했다.

원산의 선교본부는 함경도 북부 선교를 위해 선교지부를 물색하였고 그 후보지는 성진과 함흥이었다. 당시 책임자였던 그리어슨 박사는 성진을 방문하여 “남쪽 지역을 위해 원산이 있는 것처럼, 북쪽 지역을 위한 역할을 할 운명에 있다,” “함흥을 희생시켜서라도 이곳(성진)에 한명 또는 두명의 사람이 머물도록 해야한다”고 느꼈다고 전한다.⁵⁾ 1900년 초반 맥레는 함흥에 거주하는 교인

5) 윌리엄 스코트,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 p. 116.

1) 윌리엄 스코트,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2009) pp. 111, 112.

신창희와 선교지부의 설치를 위한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아직 조약이 맺어지기 전이라 외국인은 땅을 살 수 없어, 선교지부 설치가 좌절되었다.⁶⁾ 결국 1901년 5월 함경도 북부를 위한 본부로 성진이 선택되었다. 성진은 함흥보다는 낙후했으나 1899년 개항장이 설치된 도시였다. 함경도를 대표하는 원산과 성진지부의 사역이 활발해져 3년 후인 1904년 함흥에도 독립적인 선교지부가 개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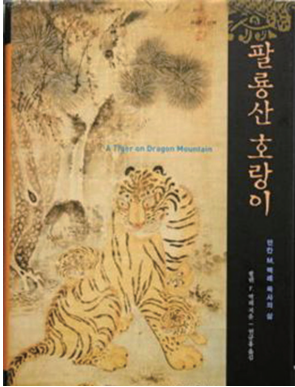
당시 함흥의 분위기는 매우 보수적이며 외국인이 거주할 정도로 개방적이지 않았다고 전한다. 1901년 함흥을 방문한 푸트여사와 맥레여사는 함흥을 방문한 최초의 서양 여성이었다. 이들은 “너무 불안해서 이틀간의 초조한 긴장의 시간을 지낸 후… 물레 이곳을 빠져나가 10마일을 걸어서라도 우호적인 마을로 철수하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전한다.

선교구역 협정 시기 함경남도에는 14곳의 장로교 예배처소가 있었는데 북장로회로부터 함경도 사역을 이어받은 캐나다장로회는 원산, 성진, 함흥을 넘어 간도지역으로 선교영역을 확장한다. 1904년 기준으로 그리어슨은 성진, 푸트는 원산을 기점으로 함경도 남부를, 맥레는 함흥을 중심으로 함경도의 중부를 맡게 되었다. 1903년에 맥레는 조선인 성도의 이름으로 함흥에 가옥을 구입하여 철거 후 선교부 건축부지를 마련한다. 그는 함흥이 선교본부로 인정받도록 고국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다.

각 지역의 사역에 대한 전망은 내가 믿기로는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함흥은 함경남도 지방을 순회하기에 좋은 중심지이므로 함흥에 즉시 선

6) 김명배, “던칸 M. 맥레의 초기 선교사역과 그 신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p. 114.

교회 본부가 개설되도록 우리 선교회가 강력히 추천하기를 바랍니다.⁷⁾



맥레의 별명은 ‘팔룡산 호랑이’였다. 던컨 맥레의 딸 헬렌 F. 맥레는 1993년 『A Tiger on Dragon Mountain』을 출간한다.

맥레의 요구는 받아들여져 맥레는 함흥의 팔룡산(반룡산) 위에 새로운 선교가옥을 조선식으로 건축할 수 있었다. 선교부 가옥의 건축은 러일전쟁으로 인하여 지체되어 맥레 부부는 1905년이 되어서야 함흥으로 이주했고 케이트 맥밀란 의사와 메어 선교사는 1906년도에, 영목사 부부는 1907년도에 함흥으로 이주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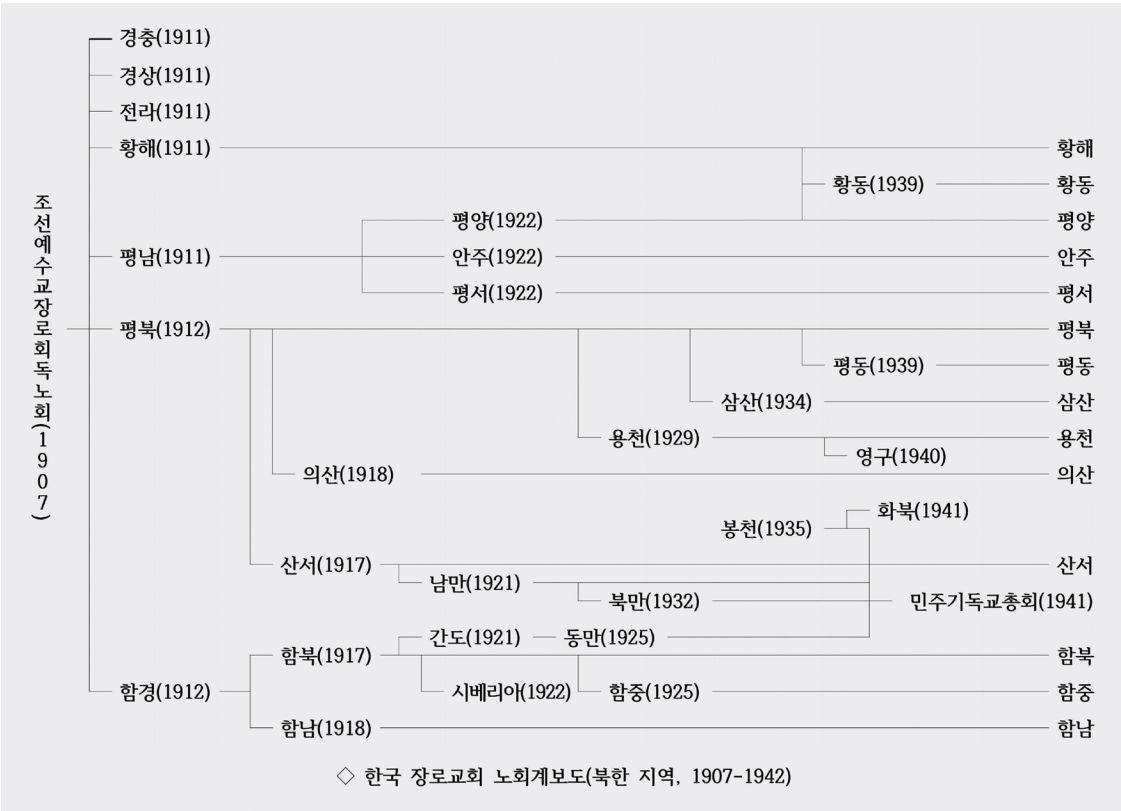
함흥에는 이미 1896년 북장로회의 스왈른과 이기풍의 전도로 설립된 함흥읍교회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었다. 맥레는 본인이 함흥에 부임하기 직전인 1903년 함흥의 교세는 교회 5개, 교인 104명, 학습교인 100명으로 성장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1903년 개척된 함흥선교부는 발전을 계속하여 10년이 지난 1913년에는 선교사 외에도 조선인 목사 1명, 조선인 장로 1명, 조사 10명, 전도부인 9명, 교회 10개, 세례교인 369명, 일반교인 727명, 주일학교 3개의 규모로 성장한다.⁹⁾

함흥은 1903년 대부흥이 일어났던 원산과 멀리

7) Duncan McRae, “Mission Report of HamHung City and Substations of the Northern Circuit, Aug. 15. 1903,”을 김명배, “던칸 M. 맥레의 초기 선교사역과 그 신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p. 114.에서 재인용.

8) 김승태,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3) p. 147.

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p. 105.



조선예수교장로회 북한지역 노회 계보도

않은 지역으로, 1903년 원산대부흥과 1907년 평양대부흥 직후 두 도시의 영향을 받아 부흥이 일어난 지역이다. 평양대부흥은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사경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에 영향을 받아 1907년 1월 25일에 함흥에서 있었던 집회에 대해 맥레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이러한 모든 모임들 안에서 성령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도둑들은 훔친 것을 상환했고, 살인자들은 자비를 빌며 울었고, 술꾼들은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그들이 지냈던 시기, 질투, 험담, 증오가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생활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랑과 충성

스러운 마음이 모두의 마음을 채웠습니다.¹⁰⁾

스코트는 당시 함흥에서 있었던 부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함흥 성경반에서는 부흥운동의 물결이 다소 덜 하는 듯 했지만 성경공부와 개인 복음전도에 헌신했다. 이웃을 돕기 위해 먹을 것을 담은 단지과 작은 쌀 주머니 30개를 인편을 통해 보낸 일들은 함흥 지역의 그리스도교인들의 헌신을 잘 보여준다. 성경반 마지막 날에 참여한 그리스도교인들은 오래도록 개인 전도에 힘을

10) 김명배, “던칸 M. 맥레의 초기 선교사역과 그 신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p. 117에서 재인용.

을 요청받았다. 그 요청에 부응하여 어떤 이는 한 주 동안, 다른 이는 두 주, 또 다른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전도사역을 위해 자원하여 400 일간 전도사역이 지속되었다.¹¹⁾

1912년 장로회 총회가 조직됨과 동시에 총회 산하 7개의 노회가 설립되었는데 함경노회도 이때 설립되었다. 함경노회는 1912년 1월 29일 원산 상리상동교회당에서 창립되어 함경도 전지역과 북간도, 블라디보스톡의 전 교회를 관할하게 된다. 함경노회는 교세를 확장하여 1917년 함북노회와 함남노회로 분리되고 다시 간도노회(1921), 시베리아노회(1922), 함중노회(1925)가 분립되어 나간다. 1910년 캐나다장로회의 선교부는 총 5개로 개편하였는데 그중 3개는 함경도 연안(원산, 함흥, 성진)에, 나머지 2개 지부는 북간도(현재 중국의 연변지방), 혹은 북간도와 조선의 국경(회령)에 위치한다.¹²⁾

함흥지역의 교회는 1920년대 초반에 급격한 부흥을 경험한다. 1919년 캐나다 선교부가 관할하는 함경도지역의 기독교인은 13,602명에서 1925년에는 22,721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 부흥의 열기가 식어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1930년 기독교인은 17,524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1920년대 후반 교회 쇠퇴의 원인에 대해 스코트 선교사는 공산주의사상의 영향을 지목한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 발생한 러시아 내전에서 1922년 볼셰비키가 최종 승리함에 따라 1922년 블라디보스톡이 완전히 공산화되었고, 1925년 일본은 모스크바 공산정부를 인정함과 동시에 러시아, 중국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이 조선과 일본에 들어올 길이 열리게 되었다. 국내에 귀국한 공



맥레가 촬영한 1930년대 함흥에서 개최된 주일학교대회(출처: 독립기념관)

산주의자들의 첫 번째 공격대상은 기독교였다.¹³⁾ 이 시기 조선에서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반기독교 집회가 서울 각지에서 벌어진다. 함경도지역은 중국, 러시아와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을 심하게 받았다.

일제 강점기 함흥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은 조선인 조력자(helper)들에 대한 칭송을 아끼지 않는다. 맥레는 차을경에 대해 “믿음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그의 동료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안내하는, 나는 당시에 대한 모든 기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며, 안수받은 첫 장로 유태운 장로와 “함흥 교회의 아버지” 신장회를 훌륭한 동역자로 치켜세운다.¹⁴⁾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함흥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로 최장로와 김장로가 있었다. 최장로(Elder Chey)는 함흥에서 활동하는 한의사로서 스왈렌 선교사를 만나 기독교에 호의를 갖게 되었으며 함흥에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자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독교 모임 참석을 위해 매일 길이가 1/4마일이나 되는 만세교를 건너다녀야 했는데 이 다리는 밤마다 군대귀신이 모인다는 전



구한말 함흥 만세교, 만세교는 조선에서 가장 긴 다리로 알려졌다. 함흥의 최장로는 예배 참석을 위해 매일 길이가 1/4마일이나 되는 만세교를 건너다녀야 했는데 이 다리는 밤마다 군대귀신이 모인다는 전설이 있어 위험한 다리로 여겨지고 있었다.

설이 있어 위험한 다리로 여겨지고 있었다. 실제로 다리는 폭이 좁으며 길이가 매우 길고 난간도 없어 밤에 다니기에는 매우 위험한 다리였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나는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읊조리며 다리를 건너 모임에 참석했다. 신앙이 성장한 그는 전도의 열심을 내며 성령이 충만해졌고, 자신의 체험을 불신자들에게 나누며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해보시오! 믿어보시오! 그러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로 전도를 했다고 한다.¹⁵⁾

김승명 장로는 함남 흥원군 삼호리의 지역 유지였다. 1920년 일제는 조선의 각 지역 통치에 있어서 지역 유력자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부·지정면 협의회(1929년 도·부·읍 의회로 발전함)를 조직하였는데, 김승명은 흥원군 지역의 몇 마을을 대표하는 도협의회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면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그는 평소 오촌 조카 김형숙의 신앙생활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김형숙을 면서기에서 해고하는 등 많은 핍박을 가하였다. 김형숙은 교회의 건축 책임자가 되었는데, 김승명은 지역의 유지로서 예배당 헌당식에 참여하여 교회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는 술에 취한 채 헌당식에 참

석하여 350엔의 헌금을 약속한다. 이후로 기독교인이 된 그는 흥원의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진 3,900엔의 빚 중 2,500엔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작정하였고, 남은 1,400엔에 대해서도 다른 성도들이 십시일반 400엔을 작정하면 본인이 1,000엔을 부담하기로 하여 성도들의 헌금을 격려하였다. 성도들은 헌금에 열심을 내어 400엔의 헌금을 모았고, 결국 김승명 개인의 헌신이 아닌, 모든 성도들의 헌신으로 흥원교회의 예배당을 봉헌하게 된다.¹⁶⁾ 그는 기독교에 귀의한 이후 술과 담배를 끊었고 물질과 명예를 탐하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모든 관직에서 사임했다. 과거 지역주민들을 위해 회양학교를 세우고 자신의 임야를 기부하여 공동묘지를 조성한 것에 감사하여 면민들이 이를 기리기 위한 송덕비를 세웠는데, 그는 회심 후 조카를 시켜 이 송덕비도 철거하게 하였다. 김승명 장로는 사업을 정리하여 모인 자금으로 찬송과 성경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한다. 수많은 소작인들에게 성경과 찬송을 나누어주며 교회를 나가게 하였고 교회에 출석하는 소작인들에게는 주일헌금을 위한 재정을 따로 지원하였다. 그는 장성한 자녀들을 설득하여 기독교에 귀의하게 하였으며, 과거 자신이 핍박했던 조카 김형숙을 평양신학교에 보내 목회자가 되게 한다. 김형숙 목사는 1926년 목사 안수를 받고 1926년부터 1946년까지 함흥남부교회를 담임하게 된다.¹⁷⁾ 이후 김승명 장로는 가장 아끼던 셋째 아들 김형도를 신학교에 보내 목사가 되게 하였는데, 김형도 목사는 이후 대한민국 초대 군종감으로 한경직 목

11) 윌리엄 스코트,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 134.

12) 대한예수교장로회 함해노회, 『함해노회 80년사』 p.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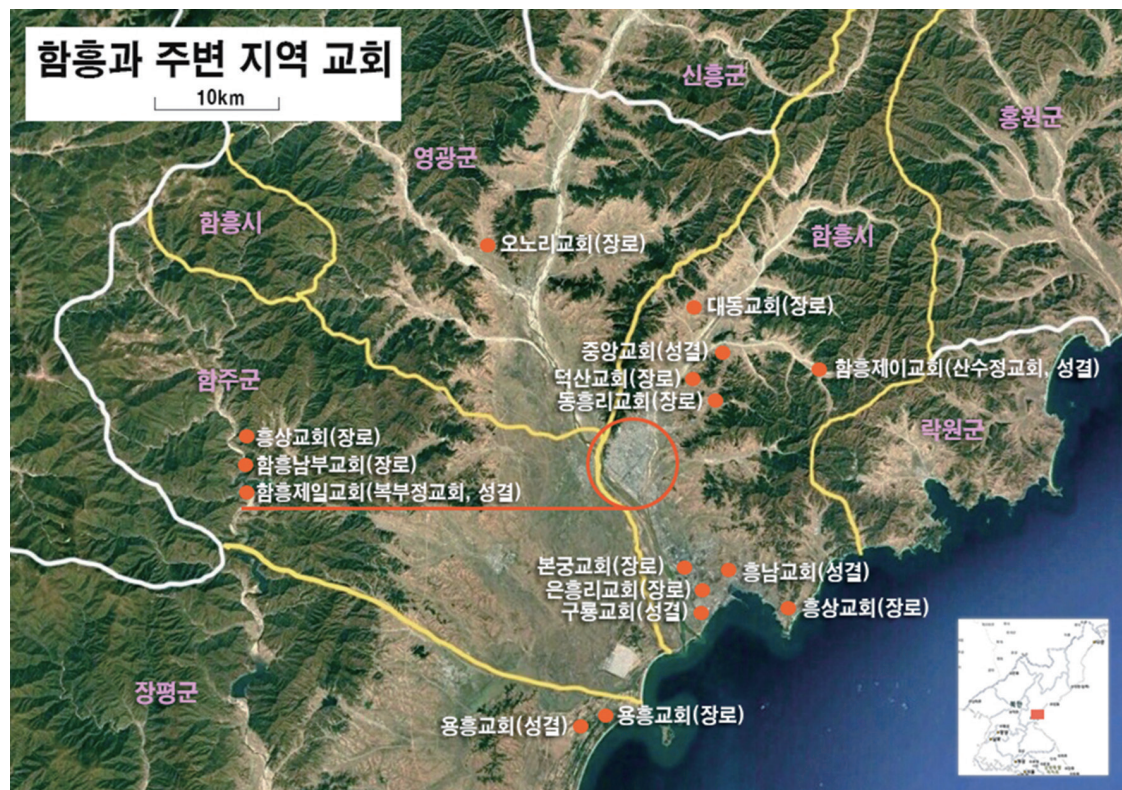
13) 윌리엄 스코트,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 p. 236, 237.

14) 윌리엄 스코트,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 p. 139.

15) 윌리엄 스코트,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 p. 212.

16) 김형차 『운명의 터널』 (서울: 마음, 1968), 김승명 장로의 5남 김형차 장로(성남교회)는 1968년 자서전 『운명의 터널』을 통해 어린 시절 목격한 부친의 회심과 함흥교회의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윌리엄 스코트,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 p. 219-225

17) 김형차 『운명의 터널』 p. 122.



차재명 「조선장로회사기 상, 하」(서울: 기독교역사연구소, 2000-2002); 주승민 외,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고양: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20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사와 함께 국군 군중제도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2. 함흥의 교육·여성·의료 사역

(1) 함흥의 교육 사역

1900년 8월 맥레는 약혼녀 에디스 서덜랜드(Edith F. Sutherland)와 일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원산으로 돌아왔다. 맥레 부부는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특히 토착민 리더십 양성 측면에서 접근했다. 결혼을 전후하여 맥레는 순회전도여행을 통해 함흥의 소년들을 위한 성경공부반을 세워 기독교인 박씨로 하여금 성경을 가르치게 하였고, 에디스는 1901년 푸트부인과 함께 함흥을 방문하여 소녀들을 양육

하기 시작했다. 에디스가 시작한 소녀 성경공부모임은 발전하여 맥레 부부가 함흥으로 이주하기 이전인 1903년 영생학교라는 이름으로 일반 교육을 시작한다. 맥레는 청소년선교에 대해 1903년 연례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는 지적인 사상가들과 일꾼들이 되도록 젊은 남성과 여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발전된 학교체계를 가까운 장래에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강하고 독립적인 토착민 교회와 선교를 바랄 수가 있기 때문이다.¹⁸⁾

18) Duncan McRae, "Mission Report of HamHung City and Substations of the Northern Circuit, Aug. 15. 1903,"을 김영배, "던칸 M. 맥레의 초기 선교사역과 그 신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p. 117.에서 재인용.



백석이 영생고보에서 강의하는 모습, 1903년부터 함흥에서 시작된 영생학교는 1907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는데, 1910년 8월에 영생중학교로 정식 인가되어 초대 교장에 영(Young, L. L.)이 취임했다. 백석은 이 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했다.

1905년 맥레부부가 함흥으로 완전 이주하기 직전 함흥의 성도 수가 증가하여 소녀성경학교는 네 배, 소년성경학교는 두 배 규모로 성장한다. 이에 에디스는 제니 럽 선교사를 비롯하여 채마리아, 이만옥, 양씨의 도움을 받아 성경학교를 확장하였다. 1903년에 시작된 영생여학교도 발전하여 1910년 사립 영생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1911년에는 고등과가 신설되었다.

1903년부터 함흥에서 시작된 영생학교는 1907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는데, 1910년 8월에 영생중학교로 정식 인가되어 초대 교장에 영(Young, L. L.)이 취임했다. 영생중학교(남학교)는 1911년 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1915년까지 매년 5-1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작은 학교였다. 개교 초기에는 캐나다선교부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함흥의 교세가 성장함에 따라 1922년부터 함흥의 지역 교회와 공동운영이 시작되었다.

1915년 총독부가 제시한 새로운 사립학교법은 운동장을 비롯한 학교의 각종 시설과 직원 등을 위한 예산의 영역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

합하기까지 10년의 유예기간을 제시했다. 영생남학교와 영생여학교는 캐나다로부터 오는 풍족한 지원금을 통해 대부분의 기준치를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1925년부터 시행된 사립학교법은 기준을 충족한 학교들이 '등록(registration)' 혹은 '지정(designated)'을 선택하도록 했다. '등록'된 학교는 공교육의 일부로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여 당국에 의해 호의를 받고 졸업생의 상급학교 입학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등록된 학교는 교육부의 규정에 따라 교과과정을 통해 성경을 교육할 수 없으며 성경을 가르치기 원할 경우 교과과정 외에 편성해야만 했다. 반면 '지정'을 선택할 경우 자유롭게 성경을 교육할 수 있지만 일본의 상급학교 입학에 차별을 받게 되는 등 사회적으로는 삼류학교로 분류되었다.

함흥 영생남녀학교의 '등록' 혹은 '지정'의 문제는 1922년 선교협의회 이후로 몇 년간 선교부 회의의 가장 논쟁적인 의제였다. 한국인 성도들은 '등록'을 원했으나 선교부는 '지정'을 선택하였다. 선교부의 결정은 노회의 허가를 필요로 하였는데, 조선인이 중심이 된 노회는 1924년부터 1926년까지 선교부의 결정을 승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생학교의 등록을 위해 선교부에 탄원하여 선교부의 입장도 결국 '등록'으로 기울게 되었다. 1927년 선교부는 학교등록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여 "조선의 교회가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이라는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함경도와 간도의 4개노회의 의견을 물어 노회의 승인을 얻었다. 이후로 총회의 거부에 이은 찬성과 반대의 혼란 그리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931년 영생학교에 대한 등록이 승인이 되어 영생고등보통학교로 발전한다.¹⁹⁾ 1937년부터 일제의 학원탄압이 가중되어 영생고

19) 윌리엄 스코트,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 pp. 243-245.



마르다윌슨신학교의 교사와 학생들, 맥컬리는 1910년 함흥에 “유능하고 선별된 젊은 여성들을 잘 교육시켜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교회에 열정적으로 돕도록 파송하고자” 마르다윌슨여자신학교(Martha Wilson Memorial Bible Institute)를 설립한다.

등보통학교는 교과 외의 신앙교육, 선교사들의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선교사들이 철수한 1943년에는 교명이 히노데(日出)고등보통학교로 개칭되었다.

(2) 함흥의 여성사역

루이스 맥컬리는 조선에 온 첫 캐나다 선교사 윌리엄 맥켄지(William McKenzie)의 약혼녀였다. 그러나 1893년 먼저 조선에 온 맥켄지는 소래교회에서 선교활동을 하며 열병과 정신착란 증세로 고생하던 중 1895년 6월 소래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맥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맥컬리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마음을 추스르고 1897년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 1900년 중국에서 일어난 의화단운동으로 중국에서 철수하여 원산에 정착한 그는 1904년 맥켄지의 자료를 정리해 그의 전기(A corn of wheat)를 집필한다. 이후 맥컬리는 1907년 정식으로 조선에 파송을 받았다.²⁰⁾ 당시 선교사들과 수준 높은 남성 성도들은 일반 여

20) 국내에 발표된 대부분의 자료에는 루이스 맥컬리가 1907년 내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기록에는 1903년 원산 부흥운동 시기에 그가 원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임영희, 루이스 맥컬리의 선교활동에 관한 연구, 2008)

성들과 접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말을 사용했다. 토착교회 여성도들이 전하는 말이 일반 여성들과 수준이 맞으므로 여성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에 적합했다. 맥컬리는 1910년 함흥에 “유능하고 선별된 젊은 여성들을 잘 교육시켜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교회에 열정적으로 돕도록 파송하고자” 마르다윌슨여자신학교(Martha Wilson Memorial Bible Institute)를 설립한다. 개교 당시의 상황을 맥컬리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함흥에서 3개월간 이루어지고 있는 마르다윌슨기념여성경학원의 두 번째 해의 수업을 가졌다. 34명이 출석했는데, 두 번째 해의 학생은 20여명이었다. 기숙사에는 절반의 학생을 수용했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함흥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남으로는 원산에서부터 간도와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왔다. 그들은 수업에 참가하는 것과 함께 함흥시에 있는 교회를 많이 도왔다. 주일학교와 야간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시에서 조직적으로 전도했다. 그 결과 많은 건강한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거두었다.²¹⁾

마르다윌슨여자신학교의 초기 학생 대부분은 과부와 소박맞은 여성들이었다. 이들의 장점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점과, 남성들보다 쉬운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마르다윌슨여자신학교는 피아노를 치지 못하면 졸업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학생

21) “Summary of report of Korea Mission for 1911-1912”. Annual Report of the Foreign Mission Committee 1898-1945를 임영희, “루이스 맥컬리의 선교활동에 관한 연구,” (2008) p. 22에서 재인용.

들의 피아노 교육에 열심이였다. 학교는 맥레 선교사가 캐나다에 가 있는 동안에도 캐나다에서 피아노를 공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²²⁾ 토론토 음대를 졸업하고 돌아온 조은경 교수를 정식 교수로 초빙했다. 이 학교는 루이스 맥컬리를 따라 함흥을 떠나 성진, 원산으로 옮겨갔으며 이후 일제 말기 일제의 핍박과 선교사들의 추방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1944년 6월에 폐교당했다.²³⁾



루이스 맥컬리는 조선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윌리엄 맥켄지의 약혼녀로 맥켄지가 죽은 후 1907년 정식으로 조선에 파송을 받는다.

함흥의 여성사역은 1902년 성서공회에서 파송받은 원산출신 전도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전도부인 한리디아는 1902년 함흥을 순회하며 4,52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한다. 함흥에서 열린 부흥회를 통해 성령을 체험한 ‘한나’라는 여성은 한 해동안 426권의 복음서를 팔았고 3천명의 여성에게 설교를 했다. 함흥 여성사역의 열매를 바탕으로 루이스 맥컬리는 1909년 11월 함흥 여전도회를 조직하였다. 여전도회는 함흥의 중앙회를 중심으로 각 마을마다 부속회를 두었다. 이후로 조직된 전국여전도회 연합회에서도 함경도지방 여전도회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부였다. 그 이유는 여전도회연합회를 조직한 인물이 루이스 맥컬리였고 함경남

22) ‘강신환이 맥레에게 보낸 편지,’ 독립기념관 소장 재한선교사 보고문건, <https://search.i815.or.kr/contents/missionary/detail.do?searchKeyword=&missionary-Id=3-002335-037> (검색일: 2024. 11. 29)

23) 임영희, “루이스 맥컬리의 선교활동에 관한 연구,” (2008) pp. 23-26.

도 여전도회는 전국 회비의 1/6을 담당했으며, 인원에 있어서도 전국 연합회의 1/4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함경남도 여전도회는 1933년 여성장으로 안수에 대한 청원서를 함남노회에 제출하였고, 함남노회는 이를 받아 “여자로서 교회 치리하는 권한 부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 22회 장로회 총회에 제출하였으나 총회는 “개정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1936년 광주에서 열린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에 루이스 맥컬리는 종신회원으로, 루이스 맥컬리가 발굴한 김마리아가 회장으로 참석한다. 이 총회를 통해 여전도회가 단독으로 만주에 여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마르다윌슨여자신학교 출신 유안심이 만주로 파송되었다. 루이스 맥컬리는 1934년 은퇴 이후 함흥 선교부에 정착하여 함흥중앙교회 여전도부와 함경남도 여전도연합회를 이끌었다. 1940년 제 2차대전이 확대되며 조선에 거주하는 영연방 선교사들의 추방·철수가 시작되었다. 루이스 맥컬리도 1940년 11월 23일 함흥역에서 교인들의 환송을 받으며 철수하게 된다.²⁴⁾

(3) 함흥의 의료사역

조선에 대한 서구 선교사들의 의료선교는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는 정부와 원만한 관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직후 서구의료를 받아들여 전통의학을 폐기하고 서구적 시스템을 갖추어가고 있었다. 일제의 조선강제병합 시기, 일본은 자신들이 갖추기 시작한 선진의료체계의 조선 이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 하였다. 그러나 조선에는 일제가 자랑하는 서구의료시스템보다 더욱 수준 높은 시스템이 선교사들에 의해 갖추어

24) 임영희, “루이스 맥컬리의 선교활동에 관한 연구,” p. 32



1920년대의 함흥제혜병원, 1901년 원산에 부임한 여의사 맥밀란이 1903년 맥레와 함께 팔룡산에 위치한 두 칸의 초가집에 진료소를 개설하였는데 이 병원이 발전하여 제혜병원이 되었다.



제혜병원의 조선인 의사와 간호사들

져가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식민지 조선의 기독교 의료계는 일본의료계와 경쟁구도가 형성되었으며, 서구 출신의 의료선교사들은 일본의 견제, 통제, 회유를 감수해야 했다.²⁵⁾

함흥의 의료사업은 1901년 원산에 부임한 여의사 맥밀란이 1903년 맥레와 함께 팔룡산에 위치한 두 칸의 초가집에 진료소를 개설하며 시작이 된다. 다른 선교지와 마찬가지로 함흥에서도 교회, 학교, 병원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를 형성했다.²⁶⁾ 맥밀란은 미국 뉴욕의 코넬의과대학(Cornell Medical College)을 1901년 졸업하고 원산으로 파송받은 여성 의료선교사이다. 그는 1903년 이후로 원산과 함흥을 오가며 진료활동을 이어갔다. 맥밀란은 원산에서 영어와 의술을 가르친 한 소년과 한 여성을 함흥으로 데려왔다고 전한다. 그중 여성의 이름은 강도르가(Kang Dorcas)로 그는 남편과 세 자녀 모두를 병으로 잃은 아픔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맥밀란과 함께 함흥선교에 투신한 인물이다. 그는 맥밀란의 유능한 조수이자

평생의 친구로 함께 사역했다.²⁷⁾ 1909년부터 함흥의 의료선교사역이 급격하게 성장하여 맥밀란은 본국에 후원을 요청하였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본국의 선교회는 1913년에 함흥군 낙민정(樂民町)에 한·양식이 절충된 40병상 규모의 제혜병원(濟惠病院)의 건축을 지원하기로 한다. 제혜병원은 앨런(Allan) 의사부부와 맥밀란 그리고 샌들(A. Sandell)간호사가 활동하였으며 서울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모학복 등의 조선인 의사들, 간호사 이종실, 박마리온, 약제사 박성호 등이 함께 근무했다. 특이한 점은 함흥 제혜병원은 일반병원과 다르게 전도부인 강도르가와 한도르가 그리고 전도사 방우섭 등의 전도인들을 병원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함흥제혜병원의 선교적 열심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1914년 9월에는 간호사 커크(J. H. Kirk)가 부임하여 간호사 교육을 시작하여 조선인 간호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제혜병원은 1920년부터 전염병 격리병동을 운영하였으며 1921년 실적은 입원 600건, 진료 3만 2천건으로 보고되었다. 제혜병원

으로 대표되는 함흥의 의료사역과 조선인 의료진 양성사역은 함흥지역 의료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특히 함흥 출신으로 1910년대부터 모학복, 이상중, 유철석, 박성호 등의 조선인 의사가 배출되기 시작하였으며, 해방 직후에도 함흥에는 30~50대로 풍부한 임상경험과 잠재력을 갖춘 엘리트들이 포진하고 있었다.²⁸⁾ 이는 모두 앨런, 맥밀란을 비롯한 의료선교사들과 제혜병원의 공헌이었다.



맥밀란 선교사, 맥밀란은 제혜병원의 증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1922년 초 여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7명의 열병 환자를 치료하던 중 자신도 감염되어 3주 후인 1922년 2월 25일에 소천한다.

맥밀란은 제혜병원의 증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1922년 초 여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7명의 열병 환자를 치료하던 중 자신도 감염되어 3주 후인 1922년 2월 25일에 소천한다.²⁹⁾ 맥밀란의 헌신적인 사역에 이은 소천 소식은 전 캐나다 선교부에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었다. 맥밀란의 뒤를 이어 그의 조카 맥밀란(McMillan Helen Janet, 1899~1967)이 함흥으로 파송받았다. 조카 맥밀란은 함흥에서 여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1930년대에는 간도의 용정선교부로 파송되었으며 그곳에서 함흥선교부 소속의 서덜랜드(Chester Roland Sutherland)와 결혼하여 함께 사역했다.

28) 허윤정, 조영수 “일제 하 캐나다 장로회의 선교의료와 조선인 의사: 성진과 함흥을 중심으로,” p. 646.

2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내한선교사사전』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4)

3. 함흥의 교회와 일제의 갈등

(1) 캐나다장로회 함흥 선교부지 침탈사건

캐나다장로회 함흥선교부는 개척 초창기부터 일본과 긴장관계가 지속되었는데, 이는 책임자인 맥레선교사와 함흥주재 일본 정부기관의 악연과 관계가 깊다. 맥레는 함흥에 정착하며 선교부지로 함흥 성내 신창리에 있는 망덕기지를 구입하였다. 이 땅은 무당이 제사를 지내던 마을소유의 땅으로 기독교인 이주한이 마을의 원로 박정양과 교섭하여 600년에 구입한 땅이었다. 그러나 1906년 함흥에 재정고문으로 부임한 일본인 가미야(神谷)가 땅의 일부를 침범하여 말뚝을 박고 소유권을 주장했다. 맥레는 정부가 발행한 땅문서를 갖고 있었으나 일본군은 이곳을 관유지이므로 정부의 땅이라 주장하였다. 맥레가 말뚝을 뽑는 과정에서 맥레와 일본 병사들 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일본군은 무력을 앞세워 해당 부지에 화장실을 건축하였다. 영연방 국민인 맥레는 서울의 영국 총영사관에 진정을 넣어 이 문제는 영·일 양국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었다. 양국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 대한 선교부의 권리가 인정되었으나, 일본은 이미 해당 부지에 건물이 있으므로 자신들이 소유한 인근의 학교부지와 망덕부지의 교환을 제안했다. 선교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학교부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제사터였던 망덕부지에서 기괴한 일들이 발생하자 일본인들은 선교부에 망덕부지를 살 것을 제안하였다. 맥레는 그 기지를 헐값에 구입하여 1000명 이상 수용가능한 “ㄱ”자 예배당을 건축하였는데 그 교회가 바로 1924년 장로회 13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신창리교회이다.³⁰⁾

30) 김명배, “던칸 M. 맥레의 초기 선교사역과 그 신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p. 122.

25) 전우용, “동아시아 나라들이 본 서양 근대 의학,” 『동아시아 서양의학을 만나다』 (파주: 태학사, 2007) pp. 49~56.

2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p. 105.

27) 허윤정, 조영수 “일제 하 캐나다 장로회의 선교의료와 조선인 의사: 성진과 함흥을 중심으로,” 『의사학』 24권 3호(서울: 대한의사학회, 2015년 12월) p. 629.

(2) 함흥의 염전세 거부운동과 일제의 탄압에 대한 맥케이의 폭로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제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조선산업의 각 분야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한다. 함흥에서는 1907년 1월 “염세규정”을 통하여 염전업과 수산업에 대한 통제를 시작하려 하였다. 이에 반발한 조선인들은 연포사염민계를 조직하여 염세조사와 징수를 거부하였다. 조사와 징수를 위해 파견된 일본인 순검과 조선인 보조원들과 주민들 간에 마찰이 폭력사태로 비화되었다. 이튿날 일본군이 출동하여 주민 30명을 체포하여 폭력사태의 주동자는 10년, 가담자들은 3년의 징역형을 언도하였다. 조선인들은 맥레 선교사를 찾아가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한다. 사건 직후 맥레는 캐나다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다.

그날 저녁은 거의 지냈다. 한국인들이 학대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무겁다.... 연포는 며칠전 일본 기병과 포병, 보병과 경찰로 인해 폐허가 되었다. 자격이 끝나고 칼이 흘린 피로 엉겨붙었을 때, 걸을 수 있는 자들은 읊으로 끌어갔고,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들의 핏속에 몸부림치도록 남겨졌다.... 우리가 그런 잔인한 대학살에서 편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괴로워해야 한다. 그것을 폭로하라. 하늘이 억압받는 자의 부르짖음에 반향할 때까지 그것을 폭로하라.... 마치 나의 펜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 같다. 나의 마음은 무겁다. 사람은 무엇인가 하기에 너무 무력하다.³¹⁾

31) Duncan, letter to “Loved Ones at Home,” July 11, 1907, MGI, Vol. 2252, #12.; Helen 팔룡산 호랑이 134.

함흥의 연포사건이 일어나던 시기, 캐나다 장로회의 해외선교책임자 맥케이(Dr. G. L. McKay)가 한국을 시찰하기 위해 원산에 와 있었다. 맥레는 맥케이를 찾아가 연포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함께 함흥의 사건현장을 시찰했다. 맥케이는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 총무의 자격으로 영국인 베델이 경영하던 The Korea Daily News 1907년 7월 10일자 호에 “함흥에서의 무서운 대량학살(Terrible Massacre at Hamheung)”라는 글을 기고했으며, 캐나다에 돌아가서도 함흥 사건에 대해 The Montreal Daily Star에 기고하였다.³²⁾

(3) 함흥읍교회의 『월남망국사』낭독 사건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은 조선 성도들의 영성뿐 아니라 교회 조직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당시 조선을 장악해 나가고 있던 일제는 교회의 영향력이 일제의 영향력 확장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였는데, “선교사 및 기독교에 관한 서류”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정도였다. 함흥에서 사상 관련 문제가 된 사건은 1909년 1월 31일, 2월 1일 양일간 함흥읍교회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발생했다. 당시 강사는 맥레의 조사 출신으로 한국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된 김창보와 맥레의 한국어 선생 조희림이었다. 김창보는 연설에서 “현시 한국의 상태는 마치 암석 끝에 서 있는 자 같아서 장차 굴러떨어지려는 비참한 지경에 있다”고 말하면서 “만약 조선 국민으로서 애국정신을 가진 자가 있다면 누구나 속히 우리 교문(기독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연설을 했다. 조희림은 『월남망국사』의 내용을 낭독하며 “조선의 상태는 흡사 옛날 안남(安南, 월남)과 다름이 없다.... 이

32) 김승태,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3) pp. 172-175.

제 조선은 제2의 안남이 되려는 비참한 지경을 만난 이때를 당하여 조선인이라는 각성을 하여 위난을 면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 일은 원산 이사청(理事廳)을 통해 조선통감부에 보고되었으나, 함흥읍교회와 조희림이 수사에 협조하여 다행히 주의조치로 끝났다.³³⁾

(4) 3·1운동과 함흥의 교회들

함흥에서의 3·1운동 준비는 1919년 2월 25일부터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월 25일 원산의 광석동교회 장로이자 전도사인 이순영이 함흥 중하리에배당(함흥남부교회)에 방문하여 교인들을 규합했고 그 자리에서 교회지도자들과 함흥기독교청년회 임원들이 독립청원서에 서명을 하여 이순영에게 전달했다. 함산학우회(咸山學友會)는 함흥출신 최순탁 선생이 영생학교를 비롯해서 몇몇 학교의 학생들로 조직한 단체이다. 이들은 평양과 원산의 인사들과 교류하며 3월 3일 함흥에서 있을 만세운동을 준비했다.³⁴⁾ 함흥의 교인들은 시위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함흥의 장날인 3월 3일 정오에 함흥면 대화정통 부근에 집결하여 ‘조선독립만세’라는 글씨가 크게 쓰인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를 3월 6일까지 이어갔다. 당시 캐나다 장로회 함흥선교부 책임자였던 맥레는 일본경찰의 탄압에 반발하여 서울을 찾아 총독부를 향의 방문하였고 영국영사관에 방문하여 함흥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에 대해 알린 후 실명으로 진술서를 발표하였다. 진술서의 내용은 시위가 시작되기 전인 3월 2일부터 일본경찰에 의해 기독교인들이 연행된

33) 김승태,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3) pp. 181-183.

34) 유관지, 『북녘교회 이야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 p. 135.



조영신 전도사의 장례식, 함흥 3·1운동의 지도자 조영신 전도사의 장례는 1월 18일 함흥에서 엄수되었다. 영생학교의 악대가 인도하고 수만 명이 뒤따르며 애도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장례가 치러졌다.(사진 출처: 동아일보 DB)

것, 일본경찰의 과잉 진압의 내용, 진압을 통해 중상을 입은 조선인들의 상태, 조선인 시위대의 평화 시위에 대한 증언이었다.³⁵⁾

3월 2일 예비검속을 통해 검속된 인물 중 조영신은 신창리교회의 전도사였다. 그는 시위의 주동자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19년 가을 고문 후유증으로 늑막염에 걸리게 된다. 조선도사의 부친이 상경하여 북장로회 선교사 쿤스(Edwin. W. Koons, 군예빈)의 도움으로 11일간 일제 경찰과 교섭한 끝에 조영신 전도사는 1920년 1월 13일에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출옥 다음날 새벽 22세의 나이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천한다. 그의 장례는 1월 18일 함흥에서 엄수되었다. 영생학교의 악대가 인도하고 수만 명이 뒤따르며 애도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장례가 치러졌으며, 이는 동아일보, 기독교신보 등에 보도되었고 제4회 함남노회에서 상제하게 보고되었다.³⁶⁾

35) 김승태, “함흥에서의 3·1운동과 조영신 전도사,” pp. 101-104.

36) 김승태, “함흥에서의 3·1운동과 조영신 전도사,” pp. 105.

(5) 함흥헌병대사건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에 조선에 수교 장로회는 1938년 총회를 통해 굴복했다. 그러나 함흥지역의 동부교회에는 김연 목사를 중심으로 신사참배에 참석하지 않고 버티는 무리가 있었다. 1943년에는 성탄절 예배에서 출애굽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김연 목사와 이순기 장로를 비롯하여 신사참배에 동조하지 않는 교인들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였다. 이를 “함흥헌병대사건” 혹은 “함흥구국투쟁위원회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연 목사가 고문으로 순교하였으며 이순기 장로와 김용준 목사가 빈사상태로 풀려났다. 함흥헌병대사건의 주도인물 이순기 장로는 함주출신으로 1908년 함흥영생학교를 졸업하고 모교의 교사로 봉직하며 1919년 함흥의 3.1운동을 주도하여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른 인물이다. 그는 함흥 YMCA조직에 관여했으며 1925년에는 신간회 부회장으로 1926년에는 함흥중앙교회의 장로로 선출되었다. 이순기 장로는 함흥헌병대사건으로 구속되어 1년 3개월을 복역하고 출옥한다. 함흥헌병대사건 주동자 중 함흥중앙교회 이순기 장로와 이창승 장로, 함흥남부교회 주재원 목사는 일제말기에 일제의 미움을 사 다시 한번 수감되었고 감옥에서 해방을 맞는다. 옥중에서 순교한 김연 목사는 이후 함흥의 성도들 사이에서 “함흥의 주기철”로 불리었다. 김연 목사는 함흥출신 피아니스트 한동일 교수의 고모부이기도 하다.³⁷⁾ 함흥헌병대사건으로 일제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인원은 100여명에 이른다. 이순기 장로는 해방 후 조만식의 조선민주당 함경남도당 부위원장, 함흥시장

위원장을 맡았으나, 공산당에 의해 3개월간 구금되는 등의 박해를 받고 1948년에 소천했다.

4. 해방 이후 현재까지 함흥과 그 주변 지역의 기독교인들

(1) 함경남도 문장로 이야기

Y자매는 함남 함흥에서 태어나서 어린시절 평양으로 이주했고 이후 온 가족이 산간오지로 추방되었다가 2002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다. 그의 아버지는 1948년 함흥에서 경찰에게 끌려가 사망하였다. Y자매는 어린시절 함흥에서 살던 중 평양에 살던 고모의 집으로 이주하여 친할머니의 돌봄을 받으며 자랐다. 할머니는 성경을 은밀하게 보관했으며 할머니가 Y자매의 손을 잡고 가곤 했던 초가집에는 늘 20명이 모였고 모인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아 중년의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 모임 때마다 중절모를 돌렸는데 사람들은 중절모에 돈을 넣었다. 1956년 이후로 모임이 중단되었으나 그의 가족은 1960년 양강도로 추방되었다. Y자매의 오빠는 1980년 처형을 당하였는데, 체포 당시에 예수 믿은 집안 출신이라는 것이 빌미가 되었다.

Y자매는 북한에서 지내며 아버지가 무슨 죄로 잡혀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듣지 못하였으나, 남한에 입국 후 1948년 당시 아버지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월남한 지인을 통해 부친의 사망과 관련된 비밀을 알게 된다. Y자매의 부친은 일본 동경대학을 나온 엘리트 기독교인으로 일제강점기 하얼빈에서 지내다가 해방 후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와서 거주하던 중 1948년 겨울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했다. Y자매의 모친도 1950년 교수형

으로 생을 마쳤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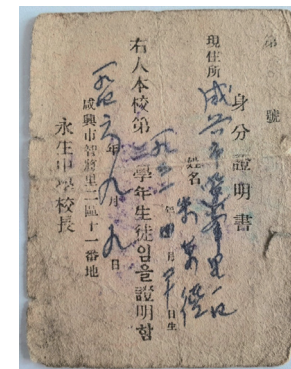
(2) 북청의 안봉진 목사

안봉진 목사는 1895년 8월 10일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태어났다. 오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안봉진은 청산학원을 졸업하고 순회목사가 되어 경기도 양주 강원도 협곡 호양 고저교회를 돌보았으며 북청동부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 직후 그는 북청교회 당회장으로 있으면서 함남노회장에 피택되어 노회산하 교회들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으며 조만식이 설립한 조선민주당의 북청군 당수가 되었다. 그는 공산당의 경계를 사 8.15기념일이나 3.1운동 기념일 등의 국가행사 직후에는 반드시 4-5일간 예비검속을 당하고 수시로 가택수색을 당했다. 북청지역의 목사들이 하나둘 월남하자 1947년 북청성동초등학교 교사였던 딸 김준삼이 "그러지 말고 아버지 남한에 가서 살자"고 애원했지만 "목자가 양떼를 두고 어찌 도망치듯 피난할 수 있느냐? 이 아비를 샅꾼 목자로 만들지 말거라"는 말로 거절했으며 1948년 담임목사가 월남한 중앙교회를 거쳐 고향인 신창교회로 임지를 옮겼다. 안목사가 고향교회로 부임하자 기독교도연맹은 그를 군당위원장으로 임명하였으나 안목사는 강경하게 거절했다. 1949년 크리스마스 때 내무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크리스마스 전야에 집회승인 문제로 잠시 왔다가라는 연락을 받고 출두하여 구속되었다. 1948년과 1949년 북한은 수많은 반공인사들을 시베리아의 노동수용소로 보냈는데 안봉진 목사도 이때 시베리아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다.

38) 김병로 외, 『그루터기』, (서울: 박영사, 2020) pp. 80-91.

부인은 남편을 기다리며 끝내 월남하지 않고 거듭되는 박해로 인해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차남과 함께 북에 남았다. 가족 중 셋째 아들 김순천과 외동딸 김준삼은 월남하여 남한에서 활동했다.³⁹⁾

(3) 함흥 학생운동사건



함흥영생고 출신 학생인 피난민이 소지한 학생증, 해방 후 함흥에서 일어난 반공운동인 함흥학생운동의 중심에는 영생중학교가 있었다.

해방이후 공산당이 점령한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반공 학생운동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신의주학생운동과 함흥학생운동이 있다. 함흥학생운동은 1946년 3월 13일 영생중, 흥남공업, 함흥농업, 함남중의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땅을 돌려주라”는 슬로건을 걸고 데모를 벌인 사건이다. 사건의 배후에는 기독교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데모 참가자 중 사망자 6명, 중상자 33명, 체포자 2,000명이 발생했다.⁴⁰⁾

(4) 함흥출신의 순교자들

김경종 목사는 1895년 10월 17일 홍원군 홍원읍에서 출생했다. 그는 1929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933년부터 함흥 운흥리교회를 담임하였다. 1940년에는 함남노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43년 9월 “일본 천황은 신이 아니다. 다만 피조물인 사람

37) 함흥중앙교회 이도재 장로의 손자이자 주일학교 부장 이창승의 아들인 이제영씨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https://blog.naver.com/syunglee423>, 검색일: 2024. 11. 10)

39) 사와 마사히코(澤正産), “해방 이후 북한지역의 기독교,” 『해방 후 북한교회사』 (서울: 다산글방, 1992) pp. 34, 35.

40) 사와 마사히코(澤正産), “해방 이후 북한지역의 기독교,” p. 42.

일 뿐이고 그런 고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교하여 5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박해가 심해지자 1948년 월남하여 서울의 후암교회를 담임하던 중 6.25가 발발하여 공산군에게 납치되어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석 목사는 1890년 함흥 서포리에서 출생했으며 함흥 영생중학교를 2회로 졸업했다. 그는 3.1 운동에 가담하여 3년간 옥중생활을 하였으며 연희전문과 평양신학교를 마치고 1927년 함남노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그는 함흥을 중심으로 교회의 봉사를 이어가던 중 함남노회 파송 만주선교사로 북간도(현재의 연변) 왕청에 파송되어 왕청교회를 담임하였고 해방 후 귀국하여 서울 영등포교회에서 사역했다. 6.25 전란 중 공산군에게 납치되어 행방불명이 되었다.

석박남 전도사는 1903년 5월 함흥에서 출생한 여성사역자이다. 영생여학교를 거쳐 일본 요코하마 여자신학교를 졸업하고 홋카이도로 가서 강제징용에 끌려온 노무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며 해방을 맞았다. 해방 후 귀국하여 함흥 서상리교회에서 시무하던 중 6.25 발발 후 공산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목사는 1903년 함남 북청에서 출생하여 간도의 용정중학을 졸업하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했다. 흥남 서호진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으며 1937년 신학교 졸업 후 원산 석우동교회, 함흥 북주동교회를 담임하였다. 김주현 목사가 북주동교회를 담임하던 시기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예배당 건축을 마친 후 그는 흥남의 내호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해방 이후 공산당의 박해가 심해지자 월남하여 전북 후정교회를 담임하였고 1950년 6.25 동란 중 전라북도에 진주한 공산군에 의해 살해당한다.

주채원 목사는 1904년 9월 함경남도 북청에서 출생하였다. 1937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함남

노회에서 안수를 받은 후 함흥중앙교회에서 시무하며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3년간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 월남하여 아현동의 행화정교회에서 사역하던 중 6.25가 일어났고 1950년 7월 27일 공산군에 연행되었다.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5) 함흥의 지하교회 관련 사건들

2018년 국내에 알려진 북한 보위부의 교육영상에는 차덕순이라는 사리원 출신 기독교인이 등장한다. 차덕순은 고난의 행군 시기 중국으로 탈북하여 요녕성 심양시에 위치한 서탑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후 북한으로 돌아갔다. 보위부의 선전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설교하는 정탐배들의 설교에 넘어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종교광신자가 되어.....생활곤란을 내세워 장사의 미명하에 함흥, 청진, 해산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치면서 신념이 없는 불평불만자들과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난 시기 종교와 미신을 믿던 자들과 그 자녀들을 찾아내서 돈과 물건으로 매수하고 종교교리를 선전했다.”고 전한다.⁴¹⁾

1974년 10월 함흥시 반룡구역(盤龍區域) 용마동(龍馬洞) 부근 지하실에 지하교인 36명이 일시에 체포되어 처형된 사건이 국내 정보기관 종사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문제의 지하교회는 옛날 교회가 있던 터전을 이용해 꾸렸던 곳인데, 6·25 전쟁 당시 본 교회당은 파괴되고 지하실 입구마저 막혀 버렸다. 교회 구조를 잘 아는 김태용(金泰鏞) 목사는 교인들을 비밀리에 동원하여 그 터 위에 집을 짓고 비밀 통로를 통하여 지하실로

내려가 예배를 하기 시작하였다. 함흥은 북한 제2의 도시로 캄보디아의 시아누크 국왕,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대통령, 유고의 티토 대통령 등 동구권 지도자들이 자주 방문하였고 김일성이 참여하는 소위 1호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도시였다. 반룡구역(현재의 동흥산구역) 용마동은 김일성 동상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1970년대 초반 함흥의 시내정비가 추진될 때 예배당교회터도 정비구역에 포함되었는데, 이때 위장되었던 예배처소가 드러나게 되었다. 당시 발각된 성도수는 18세 소년부터 80세 노인까지 모두 36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인민재판 과정을 거쳐 함흥시 만세교(萬歲橋) 다리 아래 강변에서 교수형(絞首刑)으로 공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⁴²⁾

2000년대 초반 국내에 입국한 함흥 출신 탈북민 김OO 자매는 어린시절 부모와 할머니 그리고 집에 방문한 부모의 지인들로부터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을 갖고 있다. 그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고난의 행군 오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노무 세상 불로 심판당할 때가 됐나보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할머니도 믿음에 관련된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북한에서는 종교를 믿는 이유로 추방당하기도 하거든요. 저희집 멀지 않은 곳에 예수믿어서 추방돼 온 집이 있어요. 가족 중에 정치범 수용소 가서 죽은 사람도 있는 집이에요. 그집 아저씨가 저희랑 가깝게 지냈는데 “용서해야한다, 사랑해야 한다.” 같이 진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⁴³⁾

42) 박완신, 『북한 종교와 선교통일론』 (서울: 지구문화사, 1994) pp. 320-322.

43) 2024년 11월 함흥출신 탈북민 김OO씨와의 인터뷰.

김OO자매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 이끌리어 교회에 다녔다는 사실을 남한에 입국한 후 고모를 통해서 알게 된다.

나가며

함흥은 함경도의 중심지로 원산, 성진과 함께 함경도 선교의 거점이었던 도시이다. 맥레션교사는 1898년 조선에 부임한 이후 1903년부터 2차세계 대전으로 인하여 추방이 되던 194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함흥의 선교부를 이끌었다. 그는 선교사로서 조선인 성도들을 돌보는 한편 서양인으로서 일제에 저항하는 조선인들의 후견인을 자처했다. 루이스 맥컬리는 독신의 몸으로 함흥에 머무르며 마르다월슨여자신학교를 세워 함흥의 여성 복음화에 앞장섰다. 그 노력의 열매로 조직된 함흥의 여전도회는 전국여전도회의 모체가 되었으며 전국여전도연합회가 힘을 합쳐 함흥출신 유안심 선교사를 만주에 파송하는 열매를 맺는다. 1920년대부터 격리병동을 갖춘 함흥제혜병원과 함흥의 명문 영생여학교와 영생고등보통학교는 한반도 동북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일본 관료들의 경계 속에서 의료·교육 선진화를 이루어 내어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 선전을 무색하게 한다. 함흥의 성도들은 독립운동에 앞장서, 함흥의 3.1운동을 주도하는 한편 일제 말기 신사참배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었다. 그 결과 순교의 제물이 된 신창리교회의 조영신 전도사, 동부교회의 김연 목사는 남북한의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선배들이다.

해방 후 찾아온 공산화의 어려움 속에서 월남한 성도들은 서울의 충무성결교회, 삼성제일교회, 노량진의 강남교회 등을 개척하여 큰 성장을 이루었다. 한편 함흥중앙교회의 이순기 장로, 북청의 안



함흥 동부교회 북주동교회 피난민 16명이 모여 노량진에 설립한 강남교회

봉진 목사 등은 함흥과 북청을 지키며 양떼를 돌 보았고 역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월남한 지도자들과 순교한 지도자들을 뒤로하고 함흥과 주변 지역에 남아 믿음을 지킨 지도자와 교인들이 있으며, 그 소식이 남한의 정보기관 당국자와 탈북민을 통해 일부 국내에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여 믿음의 기초를 다진 땅,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세워가며 믿음의 지조를 지킨 땅, 핍박 가운데서도 숨죽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는 함흥을 기억하며 형제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

함경남도 함흥지역의 성결교회이야기

이한복 (서울신학대학교 겸임교수)

함경남도에 세워진 성결교회들

한국성결교회는 동양선교회가 운영하는 동경성서학원을 졸업한 정빈과 김상준 두 전도사가 1907년 5월 30일 서울 종로 염곡에 ‘염곡복음전도관(현 중앙성결교회)’을 설립함으로 시작되었다. 성결교회는 초기부터 북한지역 전도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1908년에는 북한지역 진남포에 조선의 두 번째 복음전도관인 ‘진남포복음전도관’을 설립하였고 1909년에는 송도(개성)에 세 번째 복음전도관인 ‘송도복음전도관’을 설립하였다.

이처럼 성결교회가 북한지역 전도활동에 열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결교회의 초석을 놓은 최초의 전도자들 대부분이 북한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정빈(황해도 해주), 김상준(평안남도 용강군), 이장하(평안북도 의주) 이들은 자신의 고향 땅에 복음 전하는 일을 원했다. 북한지역에서의 본격적인 전도활동은 1922년 함경남도 북청에 북청성결교회가 설립됨으로 시작되었다. 동양선교회는 1922년 4월에 곽재근 전도사와 신관빈 전도사를 파송하여 북청성결교회(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서리 179)를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북청극명학교(北靑克明學校)를 빌려 임시예배당으로 사용하다가 5월

22일과 23일에 대거전도(大舉傳道)를 한 결과 구도자 90여명을 얻게 됨에 따라 6월 12일에 20여명이 출석한 가운데 창립예배를 드렸다.

교회설립과 함께 북청성결교회 신자들은 전도대를 조직하여 사방 8km 되는 지역의 각촌(各村)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전도하였다. 그 결과로 어포리성결교회(1922.9.) 평산성결교회(1922.9.) 예원리성결교회(1922.10.) 니망지리성결교회(1923) 강평성결교회(1924.8.) 동평리성결교회(1925.6.)가 연이어 설립되었다. 이것은 실로 북청 지역의 큰 부흥이었다. 이 같은 부흥의 소식을 전해 들은 구미(歐美, 유럽과 미국)에 있는 신자들은 ‘북청지방유지단(北靑地方維持團)’이라는 선교후원회를 조직하여 함경남도지역의 전도활동 및 교회설립과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많은 헌금을 보내 주었다.

성결교회는 북한지역에 91개소의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33개소의 성결교회가 함경남도 지역에 세워졌다. 33개 교회는 북청성결교회, 어포리성결교회, 평산성결교회, 나하대성결교회, 예원리성결교회, 임자동성결교회, 북부정성결교회, 동평리성결교회, 개운성성결교회, 신북청성결교회, 간평성결교회, 니망지리성결교회,



피난민 거제성내예배당 신도일동(1952년 1월 1일)

양천성결교회, 흥남성결교회, 해산진성결교회, 흥원성결교회, 고원성결교회, 영흥성결교회, 원산성결교회, 원산제2성결교회, 산수성결정교회, 안변성결교회, 신고산성결교회, 용흥성결교회, 구룡성결교회, 현금리성결교회, 구미단성결교회, 도룡리성결교회, 종고대성결교회, 신창성결교회, 서호진성결교회, 마장성결교회, 송전리성결교회, 단천성결교회이다. 이 교회들은 1922년~1936년까지 설립되었다.

한국성결교회의 전도방침 가운데 하나는 ‘오지 전도’였다. 이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사역에 힘썼다. 대표적인 교회가 북한에서도 가장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겨울에는 살인적인 추위와 함께 교통망도 거의 없는 고립된 지역인 ‘함경남도 삼수군 관흥면 개운성리’에 1928년에 설립된 개운성결

교회이다.

함흥과 주변지역의 성결교회

이번 호의 주제인 함흥과 주변지역에는 함흥에 2개소, 흥원에 2개소, 흥남에 3개소 등 모두 7개소의 성결교회가 세워졌다.

함흥지역에 설립된 성결교회 :

함흥지역에는 북부정성결교회(福富町聖潔教會)와 산수정성결교회(山手町聖潔教會)가 설립되었다.

북부정성결교회(함경남도 함흥부 북부정 1정목 101)는 처음에는 함흥성결교회로 불리었고 함흥에 두 번째 성결교회가 개척됨으로 함흥제일교회라고 불리었으며 교회가 있는 마을 이름을 따라 광하리

교회라고도 하였으나 1941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교회명칭을 북부정성결교회로 변경하였다.

동양선교회는 1924년 철원교회에서 사역하던 김하석 전도사를 함흥에 파송하여 조선식 가옥을 매수하고 6월 1일에 첫 예배를 드렸다. 북부정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함흥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해방과 함께 북부정성결교회는 교회를 재건하여 크게 부흥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부정성결교회 신자들 200여명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1950년 12월 23일 흥남철수작전 때에 군용상륙함(LST)을 타고 다음날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하여 수용소 내에 임시예배당을 세워 예배하였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북부정성결교회 교인들은 단체로 상경하여 1954년 미8군 공병대에서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 주어 예배당을 건축하였는데 이 역사는 현재 충무성결교회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

산수정성결교회(함경남도 함흥부 산수정 2정목 57)는 1932년 7월에 경성성서학원에 수양생인 조기성(趙基誠) 전도사와 최하숙 전도부인을 파송하여 8월 2일에 ‘함경남도 함흥부 산수정 1정목 118’에 설립하였다. 설립당시에는 ‘함흥제이교회(咸興第二教會)’라고 하였다.

1941년 예배당을 ‘함경남도 함흥부 산수정 2정목 118에서 산수정 2정목 57’로 옮겼다. 산수정성결교회는 1943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하였으나 해방과 함께 교회를 재건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국전쟁 중 흥남철수작전 시에 교인 다수가 군용상륙함(LST)을 타고 남하하여 1955년 4월 16일 산수정성결교회 재건을 목적으로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174-3’에서 이지호 전도사를 중심으로 교인들이 모여 종로교회(현 삼성제일교회)창

립예배를 드렸다. 현재 삼성제일교회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과 통일 이후 함흥에 ‘산수정성결교회’ 재건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흥원지역에 설립된 성결교회 :

흥원지역에는 동평리성결교회(東坪里聖潔教會)와 흥원성결교회(洪原聖潔教會)가 설립되었다.

동평리성결교회(함경남도 흥원군 용천면 동평리 442)는 1925년 6월 16일에 흥원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마을 이름을 따라 ‘동평리성결교회’ 혹은 ‘용천성결교회’라고 부르다가 1933년 제1회 성결교회 총회 이후 ‘동평리성결교회’로 통일하였다. 동평리성결교회는 1925년 9월 16일에 필기운 전도사를 파송하여 동평제(東坪齊)라는 집을 빌려 예배당으로 수리하고 모든 설비를 완전히 갖추고 열심 전도한 결과 1925년 말에는 50여명이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렸다. 동평리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일제에 의해 성결교회가 강제 해산될 때까지 ‘흥원군 용천면’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흥원성결교회(함경남도 흥원군 주익면 동상리 31) 여기서 말하는 흥원성결교회는 흥원군에 두 번째로 세워진 흥원성결교회이다. 이 교회는 1925년에 회령성결교회를 설립하고 사역하던 김종인(金宗仁) 전도사가 첫 번째로 설립된 흥원성결교회가 동평리성결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자 이후 1933년 1월 5일 교회를 설립하며 ‘흥원성결교회’라고 하였다. 1934년 7월 7일부터 5일간 김종인 전도사는 자신의 인도로 ‘특별심령부흥회’를 열었는데 모든 신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10월 7일에는 이준수 목사의 주례로 성찬과 세례식이 있었다. 하지만 흥원성결교회는 결국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고 1937년 6월에 교회가 폐지되었다.

흥남지역에 설립된 성결교회:

흥남지역에는 흥남성결교회(興南聖潔教會)와 용흥성결교회(龍興聖潔教會) 그리고 구룡성결교회(九龍聖潔教會)가 세워졌다.

흥남성결교회(함경남도 함주군 흥남읍 하덕리 21-2)는 1932년 4월 24일~28일까지 북부정성결교회(함흥성결교회) 직원들과 교우들의 후원과 강송수 목사의 인도로 대거전도회를 열어 100여 명의 청중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가운데 70여명이 믿기로 결심하고 40여명이 주일예배에 참석함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하덕리성결교회’라고도 불리기도 하였고 첫 교역자는 김진문 전도사였다.

1933년에는 인근 마을에 가서 전도하여 지교회로 서호진성결교회와 구룡성결교회를 설립하였다. 흥남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흥남읍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용흥성결교회(함경남도 함주군 흥남읍 용흥리 108)는 처음에 ‘본궁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940년에 용흥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용흥성결교회는 북부정성결교회의 오두한 장로를 중심으로 신자들이 1936년 5월에 함흥과 흥

남의 중간에 위치한 ‘본궁’이라는 동네에 가서 전도한 결과 30여명의 결심자를 얻어 교회를 설립하였다. 북부정성결교회는 예배당 부지를 마련해 주었고 1940년에는 예배당이 신축되었다. 용흥성결교회는 1943년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함경남도 함주군 흥남읍 용흥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구룡성결교회(함경남도 함주군 흥남읍 구룡리 11)는 1933년 8월부터 흥남성결교회가 구룡리의 주민들을 위해 전도한 결과 장·유년 30여명이 모여 예배드림으로 설립되었으나 교역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1937년에 첫 교역자로 김형식(金亨式) 전도사가 부임하여 사역하였다. 구룡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함경남도 함주군 흥남읍’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성결교회의 함경남도지역에서의 이 같은 놀라운 전도활동과 교회설립은 성결교회가 전도본위의 교회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함경남도에서의 많은 교회설립은 성결교회 부흥을 견인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중 북부정성결교회와 산수정성결교회 교인들이 남하하여 현재의 충무성결교회와 삼성제일교회의 토대가 된 사실은 한국교회사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 ☹️

그리스도의교회 중심지 함경남도 북청과 동석기

전인수 (강서대학교 교수 / 교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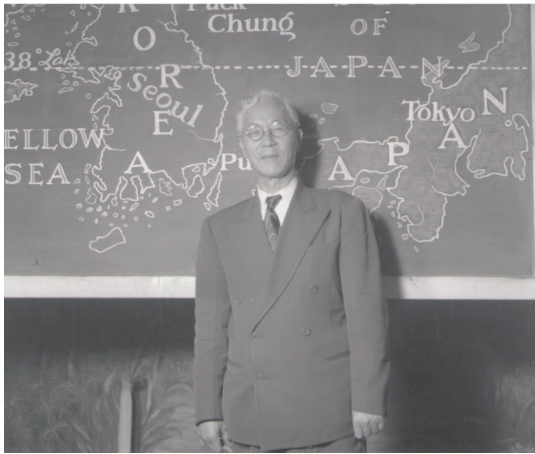
독자 중에는 그리스도의교회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분이 있을 것 같다. 그리스도의교회는 19세기 초 미국에서 일어난 교회개혁 운동인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으로 생겨난 교회이다. ‘환원’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의미이다. 기독교에서 본래의 상태는 초대교회인데, 그중에서도 신약성서가 말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곧 환원운동은 여러 교파로 분열된 교회의 일치(unity)를 위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신약교회로 돌아가야(restoration) 한다는 운동이다.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의교회가 있는데, 그리스도의교회(유약기)와 그리스도의교회(아카펠라)이다. 이 두 교회의 뿌리는 모두 환원운동이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교회(아카펠라)이다.

그리스도의교회는 1930년 11월 29일 함경남도 북청에서 시작하였다. 즉 북청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발상지인 것이다. 그리스도의교회는 북청에서 교회를 시작한 동석기라는 인물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교회는 동석기와 북청이라는 두 키워드를 갖는다. 북청에 그리스도의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동석기의 삶을 중심으로 풀어나가 보자.

1. 동석기, 그리스도의교회 목회자가 되다

그리스도의교회에서 ‘형제’(Brother), ‘전도자’(evangelist)로 불렸던 동석기(董錫琪, S. K. Dong, 1881-1971)는 1881년 5월 5일 함경남도 북청군 이곡면 초리(初里)에서 태어났다. 북청은 동석기의 고향이다. 그가 태어났을 때 한반도는 굳게 닫힌 쇄국의 문을 열고 이제 서양과의 본격적인 교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적 야욕을 본격화하고 있었고 한국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다. 천주교는 1세기 전에 수용되어 긴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맥을 이어 갔으며, 기독교(개신교)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은 만주와 일본에서 한반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다.

동석기는 십 대에 정계에 진출하고 싶은 꿈에 서울로 올라왔지만 돈을 다 탕진하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 1903년 20대 초반의 나이에,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떠난다. 그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게 된다. 동석기는 하와이에서 9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기독교를 믿게 되고, 미국 본토로 들어가 공부할 기회를 잡았다. 농장 주인이



한국에서 그리스도의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동석기 전도자. 1950년경 미국 엘카혼 그리스도의교회에서 촬영.

동석기를 좋게 봐서 유학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그는 1904년 미국 본토로 떠나기 직전 감리교 목회자인 워터만(Dr. Waterman)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당시 동석기처럼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이주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동석기가 기독교 신앙에 전적으로 ‘회심’한 것은 미국에서였다. 전에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하나의 방법으로 기독교를 믿었다. 그는 1906년 캘리포니아 지진 때 사람들이 죽어가고 건물에 불타는 극심한 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진심으로 회심하고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는 감리교 계통의 노스웨스턴대학과 그 대학 안에 캠퍼스가 위치한 가렛 신학교(Garrett School of Divinity)를 다닌 후 1913년 감리교 설교자로 한국에 귀국하였다. 사탕수수 노동자에서 감리교 목사가 된 그는 당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흔치 않은 엘리트 지식인이었다.

동석기는 인천 내리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기도 하고 3·1운동에 연관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그는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하여 군중들과 함께 서울의 이곳저곳에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본강점기 이민 1세대들은 미국에서 한국인이

라는 정체성이 더 강해지고, 고국에 헌신하는 경향이 컸다고 한다. 그가 3·1운동에 참여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동석기는 다시 유학을 떠난다. 이 두 번째 유학을 통해 그는 신약교회를 모범으로 하는 그리스도의교회에 대해 알게 된다. 그는 1927년 미국으로 건너가 다음 해 가을 학기부터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 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에서 대학원 코스를 공부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약기 그리스도의교회(Christian Churches)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었다. 동석기는 자신이 십여 년 동안 몸담아 왔던 감리교 신학과 배치되는 주장 때문에 첫 학기를 신학적인 논쟁으로 보내게 된다. 그러나 그는 결국 모든 교회가 신약성서적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함을 믿게 되고 유약기 그리스도의교회로 적을 옮긴다. 그러나 그의 신학적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30년 그는 선교비를 마련하러 교회를 순회하던 중 앨라배마주 버밍햄에서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배 중에 아카펠라로 찬양해야 한다는 더 보수적인 아카펠라 그리스도의교회(Churches of Christ)를 만나게 된다. 그는 더 철저하게 환원한 교회는 아카펠라 그리스도의교회라고 확신하게 된다. 곧 그는 두 번째 도미(渡美)를 통해 감리교에서 유약기 그리스도의교회로, 다시 아카펠라 그리스도의교회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테네시주 내슈빌 교회들의 후원으로 드디어 그리스도의교회 선교사로서 1930년 11월 8일 자신의 고향인 함경남도 북청에 도착한다. 당시 한국에는 “인생 오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930년대 오십이라는 나이는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나이였다. 그러나 동석기에게는 이때가 인생의 후반기 생애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었다.

2. 그리스도의교회의 고향 함경남도 북청

1930년 한국에 귀국한 동석기는 신약성서의 모범대로 교회를 세우는 환원운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만주와 중국에 대한 침략계획을 엿보고 있었다. 당시 한국 장로교회는 교리와 신조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분위기였다. 이 때문에 새로운 신앙운동을 표방하는 이들이 한국교회 중심과 주변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최태용이 ‘신앙혁명’을 부르짖었고, 이용도는 전국적인 부흥사로 등장하면서 생명력 없는 교회와 교역자를 비판하였다. 무교회주의자 김교신이 활동했던 때가 이때이다. 당시는 경직화되고 교권화되는 기성 교회에 반대한 신비적이거나 수도적인 신앙운동, 서구적 기독교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조선적 기독교 운동, 신앙적 체험을 불어넣고자 하는 부흥운동과 같은 신앙운동이 한국교회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렇게 보면 환원운동도 당시 한국교회의 지형도에서 이러한 새로운 신앙운동이었다. 곧 교파 교회로 시작했던 한국교회에서 환원운동은 교회 개혁적 성격을 띠었다. 동석기는 처음에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그리스도의교회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서울은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신앙운동의 근거지로 나무랄 데가 없었다. 다만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왔던 그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향수가 남달랐다. 그리고 이를 먼저 고향에 전하고 싶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교회는 북청에서 시작되었다.

동석기는 귀국 다음 날부터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날은 마침 주일이였다. 노독을 풀 겨를도 없었다. 그는 가족들과 친척,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아마도 귀국 인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쉬지 않고 3

주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이 한국 최초 그리스도의교회 설립으로 나타났다. 이 교회는 함전교회로서, 마을 이름을 땄다. 1930년 11월 29일이였다. 그는 2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중 7명은 장로교 출신이었고, 1명(동석기 부인)은 감리교 출신이였다. 나머지는 모두 새 신자였다. 그중에는 동석기의 조카딸도 있었다. 그날의 모습을 동석기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세례식이 강독에서 진행되기는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곳에는 세례식을 보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이들이 있었다. 그중 누군가가 말했다. “이렇게 추운 얼음물에서 어떻게 목욕을 할 수 있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프거나 반드시 죽게 될 거야.” 그들 중 한 명도 아프거나 죽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들은 모두 건강했고 행복해 했다.

귀국한 지 21일 만에 새로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동석기가 복음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세례식이 끝나자마자 모임 장소로 돌아와 성찬식을 거행하고, 3명의 집사와 1명의 회계, 4명의 주일학교 교사를 선출했다. 동석기가 이렇게 빨리 교회의 직분자를 갖춘 것은 이것이 교회 구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북청 수동그리스도의교회. 예배당을 건축한 후 기념 촬영한 모습.

두 번째 교회(시흥리교회)는 1931년 5월 세워졌다. 이때는 일본 도쿄에서 사역하던 그리스도의교회 선교사인 맥칼렙(J. M. McCaleb, 1871-1953)이 찾아와서 동석기와 함께 세례식을 진행하였다. 당시 31명이 세례를 받았다. 같은 패턴으로 세 번째, 네 번째 교회도 설립되었다. 세 번째 교회는 먼저 세워진 두 곳의 교회에서 각각 12명, 4명이 연합하여 세워졌다. 동석기는 1930년부터 1934년까지 모두 4개의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세 번째 미국행이었던 1935년~1936년 사이에 있었던 선교보고에 의하면 이때까지 모두 4개의 교회를 세우고 151명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세 곳은 튼튼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 세워진 두 교회는 곧 자립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동석기는 지금까지의 사역에 만족해하면서도, 더 많은 열매를 위해 선교사를 한국에 파견해 달라고 미국 그리스도의교회에 요청하였다.

이때와 연관된 감동적인 일화가 하나 전한다. 곧 한 인물이 한국에 선교사로 가 달라는 동석기의 설교를 듣고, 실제 선교사로 나왔던 것이다. 동석기가 립스콤대학교에서 설교할 때 1962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베어드(O. P. Baird, 1912-1999)가 그의 설교를 들었다. 베어드는 립스콤대학교와 하딩대학을 졸업하였으며, 1962년~1972년까지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였다. 베어드는 30여 년 전에 립스콤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곳을 방문한 동석기 전도자가 한국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하자 ‘누가 가게 될 것인가’라며 궁금해 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되었다. 동석기의 설교가 30여 년 만에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동석기는 1936년 귀국하였고, 이후 3개의 교회를 북청에 더 세웠다. 1940년 11월 10일에 일곱 번째 교회가 세워졌다. 모두 7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이 수서리 교회는 처음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공간이 협소해지자 신자들은 교회 건축에 들어갔다. 신도들이 135달러를 모금하여 스스로 교회를 건축하였다. 가난한 신자들은 노동으로 봉사하였고, 여자들은 성미(誠米)로 원조하였다. 동석기는 목재, 타일, 창문 등과 같은 자재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동석기는 함경남도 북청에 모두 7개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로써 북청지역의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의교회 신자들에게 어머니 교회가 되었으며, 한국이 통일되면 반드시 재건해야 할 교회가 되었다. 이 북청의 수동교회에서 이흥식(李興植, 1912-1991)이라는 인물이 배출되는데, 그는 해방 후 남한에서 그리스도의교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된다.


3.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토대를 놓다

1945년 한국이 해방되자 한국교회는 활기를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교회는 러시아 군대와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교회도 어려움에 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동석기는 더 염려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목회자인 데다가 미국에 오래 살았던 경험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동석기는 1945년 9월 월남하여 서울에 정착하였다. 당시 공산당은 기독교인들을 직접 겨냥하여 박해하였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이 월남하였다. 한경직, 안병무, 함석헌과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다. 동석기는 오랜 시간 동안 다시 북청으로 들어갈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런 시기는 오지 않았다. 역사는 더 이상 그에게 북한지역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전개되었다. 남겨두고 온 교회에 대한 부담감은

그에게 평생 남을 수밖에 없었다.

동석기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내수동교회를 설립하였다. 동석기는 장남인 동충모와 함께 사역하면서 1946년 5월 19일, 8명의 새 신자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는 동석기로서는 남한에서 행한 최초의 세례였다. 이때 그의 사위도 세례를 받았다. 딸 동은희는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1949년 유학 때문에 도미하였다. 그녀는 애빌린기독교대학에서 가정경제학을 공부하였다. 이때 동석기가 동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46년 5월 당시 내수동교회에는 15명의 세례교인이 있었다. 동석기는 내수동교회를 첫 번째 자립교회(self-supporting church)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동석기는 해방 후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첫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며, 기독교의 기반 위에 독립국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당시 기독교 지식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경직 목사와 김재준 목사도 한국이 기독교 국가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석기는 변함없이 미국교회에 그리스도의교회 선교사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는 선교사들이 300달러 정도면 미국인의 평균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많은 이들이 한국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해방 후 한국은 그에게 추수기를 앞둔 들판이었다. 그는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몇 개의 교회를 더 세웠다. 선교사를 보내 달라는 그의 바람은 1954년 데일 리치슨(Dale Richeson)과 최수열(L. Haskell Chesshir, 1916-2003) 선교사가 입국하면서 성취되었다. 이후에도 동석기는 미국에 한국 선교를 위한 후원금을 요청하고, 한국교회를 돌보는 데 평생을 바치다가, 1971년 1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하였다. 북청은 물론이거니와 남한 지역 그리스도의교회 성장과 발전에서도 동석기는 절대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실로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토대를 놓은 인물이다. 

함흥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질소비료공장」, 「과도기」

함흥고등보통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좌익문학을 탐독하던 문학소년 이순익(필명 이북명)은 1927년 졸업 후 조선질소 흥남공장에 취업하여 3년간 노동자로 생활한다. 그는 이곳에서 함흥출신의 좌익작가 한병도(필명 한설야)를 만나 교류하며 지도를 받아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1920년대 이후 한반도 최대의 공업 지대이자 공산주의 세력이 강력한 함경남도 함흥을 중심으로 함흥의 공업지대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들을 발표하였다. 그중 「질소비료공장」은 이북명의 대표작이다.

「질소비료공장」의 주인공 한문길은 지역의 씨름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건강한 남성이었으나 조선질소공장 유안(황산암모늄)계에서 일하며 건강을 잃게 된다. 폐결핵에 걸린 문길은 어떻게든 공장에 남으려 하지만 결국 ‘노동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해고를 당한다. 당시 흥남의 각 공장에 불기 시작한 노동운동의 영향으로 노동자들 간 결성되기 시작한 친목회는 일종의 노동조합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공장주와 사법당국은 친목회 조직을 저지하는 데 전력을 다하여 친목회 결성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문길을 해고로 이끈 건강검진에서 문길 외에도 50여명의 노동자가 함께 해고된다. 이 일은 노동자들로 위기감을 느끼게 하였고 문길의 친구들이기도 한 노동운동의 지도부는 비밀리에 모든 노동자들에게 결기와 투쟁을 독려하는 선전물을 배포한다. 선전물 배포사건에 놀란 사 측과 일본경찰은 범인색출에 열을 올리고 이 과정에서 한문길도 혹독한 취조를 받고 풀려난 지 며칠이 못 되어 죽게 된다. 4월 28일에 사망한 문길의 장례식은 5월 1일 메이데이와 겹쳐져 수백의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인파들의 행진으로 변모했다. 문길의 상여는 ‘메이데이의 노래’를 부르는 노동자와 인파들과 함께 공동묘지로 향하는 장면으로 소설은 끝난다.

한설야는 함흥출생 소설가로 함흥고보 재학 중 발생한 3.1운동에 참가하여 3개월간 수감되었고 이후 이광수의 추천으로 1925년 등단한 인물이다. 이후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으며 1947년 북조선문학총동맹 중앙위원장 등 북한의 문학과 문화계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남로당 문인 숙청에 앞장섰으나, 1962년 본인도 숙청되어 자강도의 수용소로 추방되었다가 1976년 고향 함흥에서


사망한다.

「과도기」의 주인공 창선은 아내와 함께 간도로 이주하였으나 중국인들의 등쌀을 못 이기고 고향 함흥으로 돌아온다. 돌아온 고향마을 창리(創里)는 인가가 모두 사라져 공장으로 변하였다. 창선은 온 마을이 집단이주한 옆 마을 구룡리로 향한다. 구룡리도 철도길로 마을이 갈라지고 울창한 소나무들이 모두 사라져 다른 마을이 되어 있었다. 창선의 가족을 비롯한 이주민들은 새로 이주한 마을에 포구가 갖추어지지 않고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생계를 이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창선은 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형 창룡에게 그간 고향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듣게 된다. 지방 유력자들이 나서서 함흥의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고 함흥이 인천과 같은 항구로 변할 것이라며 땅을 팔고 옆 마을로 이주하도록 꾀었다는 것이다. 창리를 떠난 주민들은 구룡리에 정착하였으나 구룡리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모두 극빈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절망한 노동자들은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

장진물이 넘어서 수력 전기 되고
내호 바닥 기계 속은 질소비료가 되네

아-령 아-령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뽀뽀뽀 주소

논밭간 좋은 건 기계간(공장)이 되고
계집애 잘난 건 요릿간만 가네.

「과도기」의 후반부에는 함흥의 주민들이 상투를 자르고 공장의 노동자가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노동자가 될 수는 없는 법, “맨 힘차고 뼈 굵고 거슬거슬하고 나이 젊은 우등통하고 미웁스럽게 생긴 사람”만이 공장노동자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창선은 어떻게 됐을까. 고향에 돌아온 창선이 ‘요행 공장노동자로 뽑혀 상투 자르고 감발치고 부삽 들고 콘크리트 반죽하는 생소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함흥의 이모저모

함흥알개

“함흥알개”는 강인한 생활력과 영악스러움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별칭이다. 함흥사람들은 장사수완에 밝아 평안도, 황해도 등 타지역 주민들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


함경도를 대표하는 함흥 사람들은 알개(알미울 정도로 영악하고 기질이 강하다는 표현)로, 흥원사람들은 참새(말이 많음), 북청 덤베(성격이 급하고 덤벙거림), 정평은 짜드래기(질기고 거칠다는 표현)로 불린다. 함경남도 사람들은 보통 찔락이(승부욕이 강하고 나서기 좋아한다는 표현)로, 함경북도는 왕찔락이로 불려 함경남도보다 함경북도가 좀더 강하게 각인돼 있지만 실제로 “완력”이 세기로는 함흥사람을 제일로 친다. 평안도 사람들은 함경도사람들에 대해 성격이 급하고 승부욕이 넘치며, 나서기 좋아하는 점을 흠으로 꼽는다. 반면 함경도 사람들은 성격이 투박하고 급한 반면 의리가 깊고 생활력이 강한 것을 장점으로 생각한다.

함경도 사람들에게 평안도 사람, 특히 평양, 남포, 개성 사람들은 ‘노랭이’와 ‘깍쟁이’로 통한다. 노랭이는 건달(일하기 싫어하고 건들건들 놀기 좋아하는 사람)과 한없이 약아빠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특히 노력동원 때 가장 ‘뻘질’거리는 것은 평안도, 특히 평양사람들로 소문나 있다. 평안북도는 북데기(실속이 적고 얻을 것이 없다는 뜻)로 불리는데 평안남도 사람보다는 덜 노랭이라는 인식이 짙다.

함경도 사람들은 황해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황해도 사람들은 ‘땡해도’나 ‘물농포’ 등으로 통한다. 농사를 많이 짓고 벌방

(북한어: 들이 넓고 논밭이 많은 고장)지방이라 사람들이 온순하고 말투도 느리기 때문이다.


자강도는 당콩(냉쿨로 된 한해살이 식물로 촌스럽고 털털하다는 표현)으로, 양강도 사람은 감자(전형적인 촌사람이라는 뜻)로 불린다. 자강도는 평안도와 가까운 성향이고 양강도는 함경도 성향이 강하다.

함경도 출신의 한 탈북민은 평양에서 대학에 다닐 때 처음 한동안 평양학생들로부터 심한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 보통 한 학급인원이 25명 정도이고 이 가운데 2~3명이 함경도 출신이라고 한다. 사투리를 쓰면 흥내낸다는가 놀리는 듯한 웃음 때문에 몇 달 동안 싸우다시피 했다고 한다. 평양 우월감에 빠져 함경도 사람들을 무시할 때면 울화가 치밀 정도였다. 공동생활 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식사하러 가거나 친구를 사귀는 것은 대부분 같은 함경도 출신이라고 한다. 

함남도제일주의

북한의 공식 매체나 출판물에는 지역감정적 발언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실린 경우가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함경도 제일주의”라는 발언은 북한의 공식문헌에 여러 차례 등장했다. 이는 북한정권 초기 함흥을 중심으로 활동한 오기섭 세력과 관련이 깊다. 해방 후 조선 로동당 함경남도 당위원장에 임명된 오기섭은 일제 강점기부터 함경남도 지방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공산주의자이다. 그는 일제 강점기 14년간 옥살이를 하였고, 해방 직후에는 “일제통치하에서 진정한 민족주의자이면서 자본가와 지주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산 사람들은 민족주의자일 수가 없고 모두 친일파”라고 주장하며, 자본가에 대해 김일성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소련군의 문서에 의하면 해방 후 국내에서 가장 먼저 공산주의 조직이 꾸려진 곳이 함흥인데,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오기섭이다. 그는 국내공산주의 세력을 대표하여 김일성과 반목하며 공산정권 수립기 ‘김일성 가짜설’에 동조하기도 하였다.

김일성은 북한정권 초기부터 오기섭과 대립하며 오기섭을 지방할거주의라고 비판하는데 1947년 3월 15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위 제6차 확대회의에서 김일성은 오기섭에 대해 함경남도에서 지방할거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지방할거주의란 어느 한 지방에 자리를 잡고 중앙정부의 지도와 통제를 거부하고 고립적으로 통치하려는 사상이나 경향을 말한다. 지방할거주의는 함남도제일주의라 불리게 되었다. 김일성은 이를 종파주의의 온상으로 비판하며 중앙당 간부사업 기준에서 함경남도 사람들이 중앙의 간부로 선발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강은주, ‘함남도 제일주의 정신, 내려치는 함흥시장,’ 『북한』 2016년 7월, 통권 535호

안문석, “해방직후 북한 국내 공산세력의 국가건설전략: 오기섭의 ‘인민전선’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 22권 2호, 2013

“함흥역서 평안도 말 쓰면 언어맞기 일쑤” 연변통보, 2009. 01. 08, <http://www.yanbianews.com/bbs/zboard.php?id=discussion&no=38345>

함흥의 대표음식



2019년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함흥냉면 식당의 냉면 (제공: 오장동함흥냉면)

함흥냉면

남한에서는 함흥냉면이 유명하지만, 북한에서는 함흥의 냉면이 전혀 유명하지 않다. 함흥의 면요리로 농마국수가 유명하다. 농마는 녹말(綠末)의 함경도 방언이다. 평양의 냉면이 메밀로 만들어져 부드럽고 국수가 잘 끊어지는데 반해, 함흥 농마국수는 녹말을 익반죽해 국수를 만들어 면발의 질긴 맛이 특징이다. 함경도 지방은 감자의 주산지로 감자 음식이 발달하여 감자로 만든 면의 농마국수를 즐겨 먹었다. 밀가루나 메밀은 국수틀에 반죽을 넣고 압력을 가하면 면발이 틀의 구멍으로 술술 빠져나온다. 그러나 녹말반죽은 입자의 밀도와 특성으로 인하여 국수틀의 작은 구멍으로 면을 뽑기 위해서는 성인남성이 체중을 실어야 겨우 면발이 천천히 나온다. 이러한 어려움을 일거에 해결할 발명품이 1932년 함흥의 기술자에 의해 개발된다. 1932년 6월 29일자 동아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함남 함주군 서호에서 철공업을 하는 김규홍씨는 일즉(줄곧) 조선국수기계 제조에 전력을 가하여 그 완성을 보는 즉시 전매특허를 출원중이든 바, 요즈음 출원 하가의 지령을 받게 되었다. 전매특허권을 가지게 된 김규홍씨는 함주군의 철공소를 원산에 옮기어오는 동시에 동 철공소를 크게 확장하고 매일 제조에 분망중이다. 이 기계의 특징은 일인(한사람)의 반력(절반의 힘)으로 배 이상의 속도로 국수발까지 보면서 능히 할 수 있는 것, 기체가 극소함으로 좁고 낮은 장소라도 가설할 수 있으며 재래식 제면기에 비하여 특히 위생적이며, 3개월만 사용하면 인건비 절약으로 본 기계 2대를 살 수 있는 점이라 한다.”

삼수, 갑산을 비롯하여 현재의 양강도 지방의 농마국수는 콩깻국을 국물로 하는데 반해 함흥의 농마국수는 소고기 국물을 육수로 사용한다. 거기에 흥어나 가자미 회를 고명으로 얹어 맵게 말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왜 남한에서는 냉면이 함흥의 대표 면요리로 알려졌을까? 그것은 6.25 이후 평안도에서 피난온 주민들이 평양냉면을 팔아 유명세를 타자 함흥출신의 피난민들도 함흥냉면이라는 이름으로 회고명을 얻은 매운 국수를 팔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서울시내에 위치한 함흥냉면집이 2019년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되어 유명세를 타고 있다.



가자미식해 (제공: 산정마을)

가자미식해

사람들은 ‘식해’와 ‘식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식혜는 쌀을 찌거나 밥을 해서 거기에 엿기름을 붓고 식힌 후 설탕을 넣은 우리의 전통 음료이다. 식해는 가자미 등의 생선을 토막내어 소금과 밥, 고춧가루, 무, 엿기름 등을 넣고 버무려 삭힌 것으로 주로 함경도와 강원도 지방에서 발달한 음식이다. 식해의 대명사는 가자미식해이다. 북한 사람들은 가자미를 가재미라고 부른다. 가자미식해(가재미식해)는 가자미를 삭혀서 만든 식해로, 함경도 지역의 음식이다. 동해안 지역의 노랑가자미로 만들며, 차게 보관해 반찬 또는 안주로 먹는다. 함경도에서는 메좁쌀을, 강원도에서는 쌀을 사용해 만든다. 함경도에서는 조밥, 소금, 고춧가루 외에도 엿기름을 섞어 가자미식해를 담그는데, 엿기름이 조밥의 녹말을 당화시켜 독특한 맛을 낸다. 시인 백석은 1936년 함흥에 거주하며 9월 3일자 조선일보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재한다.

동해 가까운 거리로 와서 나는 가재미와 가장 친하다. 광어, 문어, 고등어, 평매, 횡대... 생선이 많지만 모두 한두끼에 나를 물리게 하고 만다. 그저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가재미만이 흰밥과 빨간 고치장과 함께 가난하고 쓸쓸한 내 상에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오른다.그동안 나는 한 달포 이 고을을 떠났다 와서 오랜만에 내 가재미를 찾아 생선장으로 갔더니 섭섭하게도 이 물선은 보이지 않았다. 음력 팔월 초상이 되어서야 이내 친한 것이 온다고 한다. 나는 어서 그때가 와서 우리들 흰 밥과 고치장과 다 만나서 아침저녁 기뻐하게 되지만 기다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식해는 조선 사람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김치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김일성 또한 가재미식해가 함경남도 특산이라며 각종 식해를 많이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하라고 교시를 했다. 남한의 영동지방에서도 가자미식해를 먹지만, 북에서 온 실향민과 탈북민들은 훨씬 더 크고 살이 많은 함경도의 가자미식해를 그리워한다. 🐟

참고

- 위영금 『밥 한번 먹자는 말에 울컥할 때가 있다』 (서울: 들녘, 2023)
- 주영하, 『분단 이전 북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서울: 열린책들, 2023)
- 김양희, 『평양랭면,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 되잖구나』 (서울: 폭스코너, 2019)

함흥의 사람 사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자매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함흥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함흥 서쪽에 있는 반룡산 주변에 살았어요.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대계층에 속해서 북한에서 힘들게 살기도 했습니다.

함흥은 지역이 어떻게 구분되죠?

시내는 동흥산구역, 성천구역, 회상구역이 있죠. 외곽에 사포구역이 있고, 바닷가 쪽으로 가다보면 본궁, 더 가면 흥남이죠! 동흥산구역은 옛날부터 중심지여서 옛날에 일본 사람들 살던 빨간 벽돌집도 있고요, 중앙도당 같은 행정구역이 모여 있죠. 성천강 건너서는 원래 함주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함흥에 편입됐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따로 있었나요?

함흥에서 선호하는 지역은 성천, 회상 구역에 중앙 간부들이 많이 살았어요.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아파트에 살지 않고 땅을 사서 개인집 짓고 살아요. 반룡산 기슭이나 성천강 건너 강가

경치 좋은 데 부자들이 이사갔죠.

함흥에도 아파트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좀 어땠나요? 어렵거나 불편했던 점은 없었나요?

함흥에 성천, 회상, 동천 지역들은 집들이 다 유럽풍 아파트였어요. 특히 회상구역에 아파트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중간 장사꾼들이 처음에 좋은 현대아파트를 지었는데 집은 괜찮은데 수압이 약해서 물이 잘 안 나오고 김치 담그기도 어렵고 해서 여러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간부들은 보통 시내에 모여서 살았고 동흥산구역 쪽에 경치 좋은 데서 땅을 사서 살았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흥남이랑 본궁에서 매연 냄새가 잘 올라와서 힘들었지요.



동독건축가들에 의해 건설된 함흥의 아파트 (출처: 평화문제연구소)

함흥에 직업 특성은 어떻게 됐나요?

함흥에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그냥 사는 위치에 따라 그 위치 특성에 맞게 일자리가 결정됐어요. 바다 근처에 살면 어업으로 공장 근처면 공장 관련된 일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서 일자리가 결정되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군대나 대학을 갔다 온 후에는 다른 일자리로 배치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는 지역에 따라 공



장에 배치되죠. 자연스레 직업이 대물림되는 거죠.

함흥 주변의 산 중에는 반룡산이 가장 가깝죠? 지금은 동흥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지명 중에 동흥산구역도 있고요.

네 맞아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반룡산 올라가는 길에 있어요. 반룡산이 성천강 옆에 있구요. 동흥산구역에 집이 많고 일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빨간 벽돌로 집을 많이 지어 놔서요. 동흥산구역 쪽에는 유럽풍 아파트도 많이 있었어요. 성천, 회상구역에도 유럽풍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던 기억이 있네요. 성천강 건너편에 단층집이랑 작은 아파트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건너는 다리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천강 건너는 큰 다리가 만세교죠?

맞아요. 원래 다리가 폭격으로 무너지고 동유럽에서 새로 지어줬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전쟁 때 많이 훼손이 돼서 쓰긴 하는데 잘 안 써요.

사포구역은 어떤가요?

사포구역은 신도시 느낌이 있어요. 한국처럼 깨끗하고 그런 신도시는 아니고 집이 많은 거주구역이죠. 인프라가 많고 상점들이 많구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원래는 동흥산구역에 있던 시병원을 사포구역으로 옮겼어요. 그래도 시내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선호하지는 않죠. 사포구역에 새로 지은 집들이 많아요. 김정일이 과학 연구를 위해 과학원을 회상구역에 세웠어요. 그 사람들 집은 회상이 아닌 사포구역에 많이 지었더라고요. 출퇴근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서울보다 훨씬 복잡하고 출퇴근이 어렵죠. 1-2시간 기다



함흥 시내를 운영중인 무궤도열차(전차)

리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무궤도 기차도 다니고요. 사포, 동흥산, 회상구역까지 연결되었어요. 버스 요금은 옛날에는 거의 공짜여서 5-10전 정도 했어요. 지금은 버스를 개인이 운영하니까 요금도 엄청 비싸고 시설도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고난의 행군 이후에 많이 개선됐어요.

함흥 중심부에서 흥남이나 사포구역으로 갈 때는 보통 어떻게 움직이나요?

함흥에는 뽕뽕이라는 기차가 있었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공장끼리 연결하던 작은 협궤열차예요. 고난의 행군 때까지도 시내에서는 뽕뽕이를 많이 탔어요. 함흥에서 흥남까지는 버스나 뽕뽕이는 1시간 정도가 걸려요. 뽕뽕이는 장진 지나서 부전까지 가요. 부전에서는 경사가 있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차를 밧줄에 묶어서 끌어올리는데, 고난의 행군 때 많이 없어졌어요. 고난의 행군 이후로는 차로 움직이는 거 같아요. 흥남까지 걸어서는 못가는 거리예요. 도시로 쪽 이어진 거는 아니고 중간에 언덕이랑 벌판들이 있어요.

사포에서 다른 구역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렸나요?

사포에서 동흥산까지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

는 거 같아요.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워낙 기차가 천천히 가고, 가는 도중에 섰다가 가고 그런 이유로 오래 걸린 거 같아요. 자전거나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자전거를 타면 무궤도 기차보다 빨리 가는 경우도 있었던 거 같아요. 함흥역에서 본궁까지 버스로 가면 40분 정도 걸렸어요. 함흥에서 흥남까지 가는 버스는 없고 보통 뺑뺑이로 움직여요.



흥남비료공장 전경 (사진 출처: 노동신문)

흥남구역은 어떤가요?

함흥에서 보면 흥남은 완전히 변두리죠. 일제시대 때 공장도 많이 세워졌어요. 근데 진짜 공장만 많이 세워지고 발달은 많이 안 된 지역이에요. 일제시대 때 노구치가 질소비료공장들을 많이 세웠어요. 수력발전소까지 연결이 되는 인프라가 있었거든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다 노구치에 대해서는 들어봤어요. 비료공장에서 안 좋은 공기들이 많이 나와 도시가 오염이 되고 생활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고 아무래도 오염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살고 싶어한 거죠. 일본사람들이 공장 건설하면서 애들도 일하게 했는데, 죽은 아이들을 그냥 파묻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공장들의 발전으로 북한 노동력이 많이 발달이 되었는데 이걸 학교나 다른 데서 따로 가르쳐 주지를 않아서 저도 한국에 와서 알게 되었어요.

화학공장에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던데, 주민들은 체감을 하시나요??

흥남, 동궁, 용성구역에 공장이 다 집결해 있죠. 오염 물질 때문에 질병이 많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이 힘들어했죠. 흥남 쪽 노동자들은 장수하는 사람이 없고요, 60세 되면 이빨이 다 빠져요. 흥남에 가면 하늘이 항상 뿌옇고 노란 연기들

이 막 나와요. 화학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았죠. 몸에 안 좋은 건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텨야죠. 가기 싫다고 안 가면 징역을 받죠.

60년대에 함흥이 직할시로 들어갔던 적이 있고 2001년에 흥남구역에서 다시 흥남시로 잠깐 바뀌었다가 2005년에 다시 흥남구역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변화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함흥은 계속 정치적으로 많은 탄압을 받던 곳이었어요. 함남제일주의나 지방할거주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흥에 민주 인사들이 많았어요. 김일성 동상이 평양보다 함흥에 먼저 세워지고, 더 컸고, 함흥 대극장도 평양 대극장보다 컸어요. 그런 이유로도 비판을 받았던 거 같아요. 일제시대에도 노동자 도시라 노동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평양보다 함흥이 더 살기 좋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평양이랑 경쟁할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함흥은 워낙 풍요롭잖아요. 바다도 끼고 있고 기름진 땅과 모든 과일이 다 나왔어요. 진짜 없는 과일이 없었어요. 비료도 다른 지역

들보다 더 신경썼던 거 같아요. 물도 함흥이 더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한마디로 풍요롭고 모든 게 다 있었던 도시였어요. 함흥을 포함한 함남에서 평양으로 과일이나 야채 농작물들을 수출을 많이 했어요. 김일성한테 바치는 사과나 배도 따로 구분해서 가져갔고요.

6.25 끝나고 함흥 재건할 때 동독이 많은 도움을 줬다던데, 함흥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동독이랑 소련이 복구를 많이 해줬어요. 함흥 주민들도 동독이 많이 도와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동독 사람들이 절약을 엄청 했다고 하죠. 조그만 성냥갑도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재활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천구역이나 화상구역에 동독사람들이 지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동독 사람들은 독일식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김일성이 “온돌도 놓고 우리식으로 지어라”고 해서 절충식으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1954년 동독재건단이 찍은 함흥장터의 여인들 (사진출처: 「신동삼 컬렉션」)

함흥에 동독 사람들이 살던 마을을 ‘동독마을’이라고 부르다던데 맞나요?

그건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렇게 불렀다고

하던데, 저희 세대에는 다시 우리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살고 어디를 짓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함흥에 많은 사람들이 평양으로 이사를 갔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함흥에 돈주들이 쌀과 물건들을 중국에서 들고 와서 화물상에 팔고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그 돈주들이 다 평양으로 넘어갔어요.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평양에 아파트를 투자하면서 평양에서 살게 되었죠.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평양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평양이 수도잖아요. 당연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시야를 더 넓게 본 거 같아요. 출신 성분과 계급이 무너지기 시작하던 때에 재력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게 된 거죠.

함흥에는 시장들이 많았나요?

네 맞아요. 하지만 옛날 시장들이 많은 거 같아요. 가장 큰 시장 중에는 평수 시장이라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시장으로는 사포 시장이 있구요. 십일장과 일일장 느낌에 금사 시장과 사포 시장이라는 곳도 있어요. 어느 때에는 김정일 잠바가 유행해서 다 따라서 입었던 적이 있어요. 달리기 장사라는 게 있었는데 무상으로 가져와서 나중에 돈을 주는 경우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물건을 떼먹고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함흥에 있는 시장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시장 경제의 시작은 김정일을 통해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물건들을 나눠주고 시장에서 서로 팔고 나눠 가지던 문화가 있었던 거 같아요. 팔삼직매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부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팔았던 게 있었어요. 함흥 말고 다른

지역에 다른 시장들도 있었지만 함흥이 공업 도시다 보니까 함흥이 가장 크게 했었죠.

시장에 물건들은 어떻게, 어디서 받아 오는 건가요?

지금은 함흥 장사꾼이 국경을 찾아가서 중국에서 물건들을 받아 와요. 전에는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직접 와서 함흥에서 물건들을 거래했어요.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직접 중국으로 받으러 가요.

자매님이 계셨을 때 함흥의 경제는 어땠나요?

북한의 수도는 평양이지만 함흥이 제2의 도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 같아요. 함흥에 대학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 중산층을 겨냥한 대상화가 점점 되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함흥에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왔어요.

아이들 교육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과외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학교 교사들이 와서 돈이나 쌀을 받고 진행이 됐었어요. 가장 선호하는 학교는 외국어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 때 보통 외국어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때 다시 일반학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어학교에서 영어는 기본이고 다른 언어도 배우고 훨씬 좋은 환경이었죠. 당연히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아니고 간부들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이나 돈이 많은 가정들이 들어갔어요.

주민들의 휴양시설로는 어떤 곳이 있죠?

보통 휴양 장소로 마전해수욕장이라는 곳을 많이 갔어요.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갔던 거 같아요.

흥남 앞에 바닷가는 더럽고 지저분해서 놀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폐수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있는 마전해수욕장까지는 올라가야 놀 수 있죠. 거기서 모래도 잘 깔려 있고 그늘 같은 것도 오히려 한국보다 좋았어요. 백사장 바로 앞까지 소나무가 빼곡하게 있죠.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은 차로 가는데 옛날에는 버스로 많이 갔어요. 시내에서 큰 차로는 30-40분 정도 걸려요. 반룡산에 있는 정자들도 근사하죠. 옛날에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정자 지어놓고 놀았다던 데가 몇 곳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막 노는 분위기는 아니고 제가 살던 곳은 이런 좋은 곳에서 조금 거리가 있어서 가볍게 놀러 가기는 어렵죠. 고난의 행군 때도 돈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놀러 가고 했었어요. 김일성 특각도 마전에 있었어요.



마전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함흥의 주민들 (사진 출처: 조선중앙방송, 연합뉴스)

주민들도 김일성 특각이라는 걸 아나요?

네. 알죠. 그리고 특각 지키는 군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주변에 돌아다니고 수영장에 노는 사람들도 구경해요. 놀러 온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요.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이 언제 오는지는 모르는데, 마전 주변에 통제가 조금 심해지면 ‘혹시 누가 왔나?’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전해수욕장에 풍선으로 날아온 빠라가 자주 뿌려져서 난리가 났었어요.

빠라 내용이 어떻던가요?

조잡하죠. 김일성의 여성편력, 그런 너저분한 얘기가라서 북한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차라리 남한의 발전상 같은 걸 보냈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만한데요.

함흥에 유명한 대학들이 많죠?

함흥하면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죠. 중앙대학으로 함흥약대, 함흥수리동력대학, 화학공대가 중앙급 대학이죠. 함흥의대, 사범대학교, 함흥예술대학도 유명하죠.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대학은 약대나 의대였어요. 수리동력이나 화학은 중앙급인데 잘 안가고 싶어했어요. 예술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정부가 혜택을 많이 주고 출세할 수 있었거든요. 평양이나 함흥 밖에서도 사람들이 대학을 가려고 많이 왔어요. 의대가 유명한 게 정형외과는 북한에서는 원래 함흥에만 있었어요. 구강의학도 평양보다 함흥이 발달했다고 하고요.



고려약학대학 학생들의 실습 (사진:조선향토대백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왔나요?

평양에서 1호 행사를 하면 함흥에서도 1호 행사를 같이 해요. 루마니아 대통령 니콜라이 차우세스

쿠, 캄보디아 시아누크 국왕도 몇 번을 왔죠. 팔레스타인 민족해방기구 지도자도 오고, 티토도 함흥에 왔었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했던 거 같아요. 김정일이 용성기계공장을 자랑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만든 공장이라서 “어머니 공장”이라고 불렀죠. 매우 상징적이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곳이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유명한 권력자도 여럿 방문했어요. 여행객들은 본 적 없고 외국 배들이 들어오면 선원들이 호텔에서 쉬거나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통제를 받아서 움직였어요. 2000년대 초반에 신포에 경수로지원하러 한국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그때 함흥을 통과해서 평양에 갔어요. 그 사람들 지나갈 때는 지나가는 길 모두 통제를 하죠.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흰 눈에 노란 개가 맛있어서 비쌌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찾다 보니 그 개를 많이 먹었대요.

신포에 간 한국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예배도 드리고 작게 예배당도 세우고 했는데, 그런 건 모르시죠?

그런 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 온 거랑 별개로 신포 사람들은 한국 티비도 전부부터 나왔어요.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모여서 티비를 봤어요. 함흥 서호에서도 한국 티비 많이 봤죠. 1960년대에는 지금처럼 엄하게 단속하지도 않았고 쉬쉬하기 때문에 걸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원래 듣는 사람들은 계속 잘 듣는 편인 거 같아요. 부모들이 자녀 입단속을 잘 했죠. 80-90년대 때 외국물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연변노래나 녹음기나 카세트도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 그 노래들이 연변노래가 아니라 한국노래라는 걸 알았죠. 그래도 사람들은 모르는 척하고 연변노래라고 해요. 한

국노래인 줄 알고 들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라디오는 보통 장마당을 통해서 구매했어요. 거의 모든 집에 다 숨겨 둔 라디오가 있었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도 티비는 안 봐도 남한 라디오는 몰래몰래 잘 들었죠.

자매님도 그런 매체를 접해 보셨나요?

북한의 정치적인 것을 비판하면서 코미디적으로 풀어 갔던 녹화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북한 말투로 방송이 돼서 한국 방송인지 잘 모르고 헛갈린 경우도 많았어요. 저는 모르고 듣다가 당황했는데, 같이 듣던 친구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낸 거 알고 그냥 들었던 거죠. 노동신문을 남한에서 가짜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냈는데 북한 사람들이 진짜 노동신문인 줄 알고 읽다가 내용이 이상해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함흥에도 재일교포가 많았죠?

네 엄청 많죠. 귀국동포라고도 불렀어요. 지금 북한에 달려나 중국 위안화 쓴다는데, 옛날에 함흥에는 엔화가 많이 돌았어요. 재일교포들이 이자를 많이 받고 돈을 잘 벌었던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왔어요. 원산과 청진에도 재일교포가 많은데 함흥에 더 많은 것 같아요. 회상구역에 재일교포 동네도 따로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재일교포가 고난의 행군을 통해 돈주가 되고 장사도 하고 돈을 불리기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2000년대에 아파트를 지을 때도 재일교포들 자금으로 지은 아파트들 많죠. 그 사람들 중에 평양에 아파트 지을 때 투자하면서 중앙에 연줄을 대서 평양에 이사 간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 보면 돈이 계급인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함흥에서 한국 옷을 많이 입고 다녔는데 그것도 다 일

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보통은 자기들끼리 결혼을 많이 하고, 돈이 많다 보니까 다 개인 집사들을 데리고 있어서 일을 다 시켰어요. 다들 재일교포를 부러워하고 질투와 동경의 대상이었죠. 재일교포 중에 보통 의사들이 많았어요. 물론 재일교포는 늘 감시대상이니깐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죠. 학교에도 한 반에 재일교포가 한두 명씩 있었어요.

학교도 많았다고 하던데 어땠나요?

학교 학생들과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회상구역, 동흥산구역에 학교 많이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떤 화교할머니는, 전죽을 해서 발이 아주 작은 할머니도 본 적이 있어요. 화교는 학교도 따로 있었고요. 물론 일반학교에 다니는 화교 애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화교라고 하면 가난한 이미지였는데, 고난의 행군 지나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지금은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서 전보다는 많이 없을 거예요.

함흥의 특산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과일은 사과, 배, 복숭아가 많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나는 과일 중에 '감' 빼고는 함흥에서 다 나요. 감은 원산에 많았죠. 해산물도 털게, 대게, 미역들도 많았어요. 미역도 더운 데서 나는 미역보다 더 맛있고 부드러웠어요. 한국 미역이랑은 맛이 완전히 다르죠. 함흥은 정말 있을 거는 다 있고 풍요로운 도시였죠.

함흥하면 냉면이 유명하죠?

북한에서는 함흥냉면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농마국수라고 불러요. 함흥에서 농마국수 만드는 '똥땀'라는 할머니가 유명해요. 김일성이 48년에

함흥에 와서 그분이 만든 농마국수를 먹었는데 그때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 여자를 자기 요리사로 불러올렸대요. 그분이 똥땀쵸. 이 여자 오빠가 간첩으로 남한에 갔다가, 다시 간첩으로 북한에 와서 걸렸는데 이 여자는 김일성의 총애를 받아서 연좌제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분이 은퇴하고 함흥에 내려와서 신흥관에서 일했죠. 그런데 음식은 재료가 중요한데 북한에서는 재료가 부족하다 보니 아무리 신흥관이라도 맛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배급 잘 나오는 군대식당에서 하는 농마국수가 더 맛있었죠. 함흥 음식 중에 가자미 식해도 유명했어요. 함흥에서 잡히는 가자미는 엄청 커요. 한국 가자미는 상대도 안 되죠. 털게도 워낙 유명하죠.

함흥에서 유명한 음식점이나 랜드마크는 뭐가 있을까요?

신흥관이 제일 유명하죠. 유명한 건물이 함흥 대극장이랑 신흥관이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일본 사람들이 지었던 빨간 벽돌로 지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도 유명했죠. 아 그리고 이성계 집 본궁도 유명했어요.



함흥 신흥관 전경 (사진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승기 박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이승기 박사도 워낙 유명했죠. 아주 대단했죠. 이승기 집이 회상구역에 3층짜리 아파트였어요.

이승기가 과학원 원장인데, 집은 총리급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함흥과학원 옆에 으리으리하게 집을 지어줬죠. 그런데 이승기가 언제부터인가 언론에서 싹 사라졌거든요. 소문에는 이승기가 핵무기를 개발하느라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김일성이 시켰을 때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비날론섬유의 위상은 어떻게 되나요?



2011년 북한에서 발행한 국제화학의 해 기념 우표, 북한은 이승기를 인류최고의 화학자 중 한명으로 선전하고 있다.

비날론이 폐기됐는데 실은 계속 나오죠. 냄새가 엄청 지독해요. 그물을 만드는 데 많이 썼죠. 접착제로도 썼어요. 화학 물질이고 위험성이 있어서 옷을 만드는 데는 잘 안 쓰고 대신 걸레로 만들어서 많이 썼죠. 북한에서 걸레는 다 비날론걸레 쓸 거예요.

함흥이 마약으로 유명하잖아요?

마약을 김일성, 김정일 때 함흥제약공장에 생산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2010년 넘어서 그 책임자가 총살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상부에서 시켜서 만들었지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슈가 생기니까 못 만들게 했죠. 화학공대 졸업생은 보통 다 마약을 만들 수 있어요. 마약공장을 나라에서 만들고 마약공장 다녔던 사람들은 마약을 다 제조할 줄 알아요.

나라에서도 처벌을 하면 이제 예전처럼 많이 만들지는 못하겠네요?

네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함흥 마약산업이 거의 전멸했다고 하더라고요. 양귀비나 아편같은 게 원래 많이 있었죠. 옛날에는 ‘다연’이라고 부르는 풀이 있었는데, 그걸 말려서 담배로 피웠죠. 그걸 화학적으로 개발을 해서 만들었죠.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마약도 같이 발달이 됐던 거 같아요. 예전에 파리나 벌레를 위생 때문에 퇴치하려고 퇴치제 개발하는 데 엄청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그 퇴치제 개발하다가 마약도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부에서 못하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돈맛을 봤잖아요. 하나의 산업생태계가 구축됐고요. 아이들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 관련된 일을 하게 되고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죠. 애들도 마약을 하고 마약하는 사람은 밥은 굶어도 마약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 계셨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고난의 행군 오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노무 세상 불로 심판당할 때가 됐나 보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할머니도 믿음에 관련된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북한에서는 종교를 믿는 이유로 추방당하기도 하거든요. 저희 집 멀지 않은 곳에 예수믿어서 추방돼 온 집이 있어요. 가족 중에 정치범 수용소 가서 죽은 사람도 있는 집이에요. 그집 아저씨가 저희랑 가깝게 지냈는데 “용서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같이 진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녔다는 이야기는 남한에 와서 고모 통해서 들었죠. 할머니나 아버지나 직접적으로 믿음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 어려서부터

숙박검열을 계속 나왔는데 저는 북한 모든 집이 다 이렇게 숙박검열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집이 지주출신 믿는 집안이어서 그렇게 검열을 당한 거였더라고요. 다른 믿는 사람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독자분들에게 “함흥은 이런 곳이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함흥을 짧게 표현한다면 부족함이 없는 도시인 거 같아요. 함흥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가정들이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사람들이 빼앗긴 권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언론에 비친 함흥의 모습들

함흥 북부에 화학무기 생산 시설 은닉된 듯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24년 11월 19일 (현지시각)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보고서에 인용해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 북부 지역이 화학무기 연구 및 생산 거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함흥시 북부는 함흥화학공업대학,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등의 대학과 연구소, 제조 시설이 있는 곳이다.

RUSI는 보고서에서 이 시설들 근처에서 군 시설, 터널 입구, 철도 노선 등이 포착돼 민감한 연구나 생산 활동이 은폐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비밀 활동을 위한 지하 터널이나 폐쇄된 시설 여러 곳을 찾아냈다.

국방과학원 소재 함흥화학재료연구소는 열보호 물질 개발 등 미사일, 로켓 제조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2017년 이 시설의 확장 계획을 직접 점검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 방영됐음을 볼 때 군사적 연관성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보고서 작성자인 레니 필립스 RUSI 연구원은 “북한은 시안화수소부터 신경작용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화학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2017년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신경작용제 VX로 암살했다. 북한은 화학무기 금지협약(CWC)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 사진 출처: 2024. 11. 20, 뉴시스)



북한 함흥화학공업대학에서 2022년 코로나 방역을 하는 모습. 이 대학이 있는 함흥시 북부가 북한의 화학무기 생산 거점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흥에서 목욕탕 마약파티 적발, 이후의 후속조치

2024년 10월 9일 데일리NK에 따르면 함경북도 소식통은 “내각 인민봉사총국이 9월 10일 전국 편의봉사망에 ‘미안(피부미용)과 미용실, 안마, 목욕탕 등 편의봉사시설에서의 문란 현상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지시문에는 ‘사회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



평양 제1목욕탕 내부. 사진은 기사와 무관

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각될 경우 6개월의 노동단련 형에 처해지거나 사안이 엄중할 경우 농촌으로 추방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함흥시의 한 고급중학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다.

목욕탕은 원래 남녀가 함께 들어갈 수 없지만, 이들은 목욕탕 책임자에게 정식 이용 가격 외에 70달

리(한화 약 9만6000원)를 더 찔러주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통째로 빌려 쓴 것으로 알려졌다.

목욕탕 책임자는 최근 손님이 줄어 돈을 벌기가 힘들자 70달러를 주겠다는 학생들의 제안을 받고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목욕탕을 내줬다고 한다.

목욕탕 이용 가격은 1인당 북한 돈 1만5000원으로,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1.2달러다. 70달러면 거의 60명의 손님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목욕탕 책임자가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전한다.

(참고, 사진 출처: 데일리NK, 이데일리, 2024. 10. 09)

함흥 마약왕 잡고 보니 간부들 줄줄이 연루

2024년 7월 초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구역에서 빙두(필로폰)를 유통한 30대 최모 씨를 비롯해 여러 간부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8월 19일 데일리NK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 씨는 전형적인 8.3노동자(소속 기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출근을 면제 받는 사람을 지칭)로 오랫동안 빙두 판매에 가담해 왔다.

그러던 중 2024년 3월 말 한 지역 주민이 빙두 거래가 의심된다며 시 안전부에 최 씨를 신고했다. 이후 시 안전부가 최 씨를 감시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최 씨의 거래 대상자 중 일부가 일반 주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냈다.

최종적으로 시 안전부는 3개월의 잠복 수사를 거쳐 최 씨를 포함해 시당위원회 간부 2명, 구역당위원회 간부 1명, 구역 안전부 안전원 1명 등 총 9명을 마약 관련 범죄로 체포했다. 이들은 현재 예심 중에 있다고 한다.

안전부 조사 과정에 최 씨는 빙두 장사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장기간 마약 거래를 해온 것이 지금껏 드러나지 않은 건 그의 남다른 장사

수완 때문이었다.

최 씨는 양강도 해산, 함경북도 청진 쪽에서 원단을 들여다 재봉공들을 고용해 옷을 만들어 팔았는데, 워낙 장사 규모가 크다 보니 빙두 장사로 돈을 많이 벌어도 크게 의심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최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보다 주민들의 관심을 끄는 건 역시 간부들의 ‘법적 심판’ 여부와 처벌 정도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주민들은 대체로 최 씨만 사형을 선고받고 간부

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다른 건과 달리 간부 여럿이 동시에 잡혔으니 흐지부지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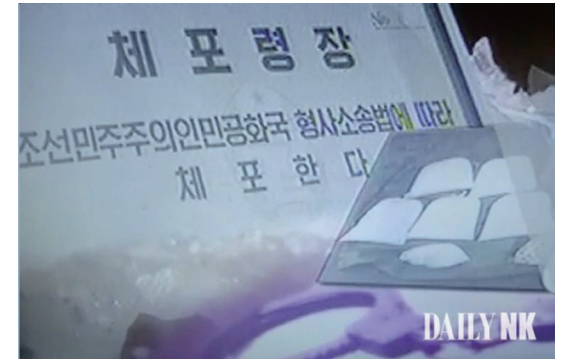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함경남도 당위원회는 강연회를 열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7월 20일과 8월 3일 두 차례 도급 기관 일꾼 토요학습에서 체포된 간부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이들은) 인간 쓰레기들이 사용하는 빙두를 썼으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사상교양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빙두는 1990년대 중반 계획경제 붕괴로 흥남제약공장(함경남도), 순천제약공장(평안남도), 상원만년제약공장(황해북도) 등 국가 주도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일부 노동자와 일꾼들이 마약을 빼돌리기 시작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양과 함흥을 중심으로 간부들과 부유층에 서서히 퍼지기 시작한 빙두는 2000년대 중반 제조기술이 알려지면서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급속도로 퍼졌다. 이에 당국은 2021년 7월 ‘마약범죄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감시 임무를 부여받은 간부들이 오히려 이를 주도하는 등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소식통은 “실제 마약 거래를 하는 돈주들은 대체로 간부들을 끼고 장사한다. 국가는 원칙을 부르짖지만 간부들부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오죽했으면 일부 사람들 속에서 간부라면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마약, 성매매, 뇌물 착복 등을 해야 능력으로 인정받는다는 말까지 나오겠냐”고 꼬집었다.

(참고, 사진 출처: 데일리NK, 2024. 08. 19)



함흥 룡성기계단지에서 생산된 미사일 러시아에 제공



2024년 11월 25일 야후뉴스는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생산하는 핵심 무기 생산단지를 확장하고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몬터레이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를 인용해 보도했다. ‘2·11 공장’으로 알려진 무기 생산단지는 북한 제2의 도시 함흥의 룡성기계단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레어 연구원은 이 공장이 북한에서 화성-11급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유일한 공장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KN-23으로 알려진 미사일이 러시아군의 공격에 사용됐다고 말한다. ‘2·11 공장’의 확장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NS 연구원들의 분석에 따르면, 상업 위성회사 플래닛 랩스가 10월 초 촬영한 사진들은 추가 조립 건물과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 시설로 보이는 것이 건설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또 단지의 일부 지하시설 입구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레어 연구원은 "터널 입구 앞에 있던 사용되지 않는 교량 크레인이 제거돼 시설의 해당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장의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로운 조립 건물은 기존 미사일 생산 건물의 약 60~70%에 달하는 규모이다.

KN-23 미사일은 2019년 5월 첫 시험발사됐으며, 미사일 방어망을 피하기 위해 낮은 궤도를 저공비행하도록 설계돼 우크라이나 방공망 침투를 모색하는 러시아에 잠재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수천기의 미사일을 발사, 추가 공급을 북한에 의존함으로써 자체 생산 시설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레어 연구원은 말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룡성기계공단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올해 계획된 현대화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또 다른 위성사진회사 SI 애널리틱스는 탄도미사일용 연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2·8 비날론 단지’에서의 새 건설도 확인했다며, 이는 고체 추진체나 중요한 액체 로켓엔진 연료인 UDMH 생산 증가를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 사진 출처: 뉴시스, 2024. 11. 25)

함흥의 각종 개발 소식

함흥시 마전·내호농장 등에 새집들이 진행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함경남도 영광군 자동농장과 함흥시 마전농장, 내호농장에 수백 세대의 새 살림집(주택)이 지어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한날 한시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무상으로 받아 안은 농업 근로자들의 기쁨 넘친 모습과 아이들의 밝은 웃음으로 마을들은 명절처럼 흥성였다”고 보도했다.

(참고: 뉴스1, 2024. 08.30)



北, 함흥시 부민농장에서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문명개화 새 모습”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함흥시 부민농장에서 살림집 입사모임이 진행됐다”라면서 “동흥산 기슭에 문명개화의 새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참고: 노동신문, 뉴스1, 2024. 07. 23)



함흥에 학생교복공장 준공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상반기 국가 사업 결산이 예상되는 당중앙 전원회의를 앞두고 함흥학생교복공장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후대들을 위한 당과 국가의 시책을 보다 확실하고 변혁적인 성과들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뉴스1 2024. 06. 17)



北 “함흥 연포온실공장 채소 생산 실적 좋다” 함경북도에도 공급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4년 12월 12일 연포온실농장에서 올해 11월까지 높은 남새(채소) 생산 실적을 기록해 연간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함흥시와 함경남도 주민들에게 신선한 남새를 공급했다고 보도했다.



(참고: 노동신문, 뉴스1, 2024년 12월 12일)

위성 사진에 포착된 함흥의 탄도미사일 공장

민간 위성회사 플래닛랩스가 지난 2024년 11월 20일 촬영한 북한 함흥의 ‘2월 11일 공장’ 사진을 보도했다. 함흥의 탄도미사일 공장은 최근 확충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 로이터뉴스, 뉴스1, 2024년 11월 25일)



Mission
Bible
College

성경대학시리즈

성경이 말하게 하라!

셀프 스터디에서부터 국내 목회 현장,
해외 선교 현장까지

성경대학시리즈는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사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현지인 성도를 영적 리더로 길러내고자 하지만
훈련과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현장**,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성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목회현장**,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평신도**를 위해

성경대학시리즈(Mission Bible College)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하고 영적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교사가 앞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묵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성경 자료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성경 본문과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하여, 한 권의 책만으로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미션 바이블 칼리지는 4개 과정, 40여개 과목으로 계속 개발, 발간될 예정입니다.

※ 교재 구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025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는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이해와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될 기회인
북한선교학교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주차	날짜	강의 주제	강사	형식	
북한 선교를 위한 북한 이해	1	4월 7일	북한의 정치와 주체사상	정종기(고신총회 북한선교원)	온라인	
	2	4월 14일	한국교회와 북한선교	하충엽(숭실대학교)		
	3	4월 21일	북한주민의 경제생활과 장마당	최설(북한대학원대학교)		
	4	4월 28일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인권문제	강디모데(엔케이피플)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			
	5	5월 12일	북한의 종교와 교회	유관지(북녘교회연구원)	온라인	
북한 선교 현장	6	5월 19일	북한의 종교 박해 실상	김바울(북한 지하교회출신 사역자)	온라인-대면 병행	
	7	5월 26일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북방선교방송)	온라인	
	8	6월 2일	북한선교에 있어서 국제협력문제	정인수(NKCCC)		
	9	6월 9일	DMZ 기도회			
	10	6월 16일	비즈니스를 통한 북한선교	이다니엘 사무총장(IBA)	온라인	
	11	6월 23일	국내정착 탈북민 선교와 통일목회	정형신 목사(뉴코리아교회)		
	12	6월 30일	제삼국 북한선교 현장 이야기	현장사역자 1	온라인-대면 병행	
	13	7월 7일	제삼국 북한선교 여성사역 이야기	현장사역자 2		
	14	7월 14일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신자, 수료식	현장사역자 3		

일정 및 시간 4월 7일 - 7월 14일, 매주 월요일 저녁 7:30-9:30

진행 형식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일부 강의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됩니다.

회비 - 10만원 (DMZ기도회, 비전트립 별도)
- 신학생, 선교사, 목회자,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회비의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접수 오픈도어 홈페이지 (<https://www.opendoors.or.kr/>) “이벤트 및 공지사항”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접수기간: 2025. 2. 3 - 3. 31)

문의 한아론 선교사 (010-5107-8448)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